



8

198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4. 8호

(루게 442)



◆◆◆◆◆◆◆◆◆◆ 차 례 ◆◆◆◆◆◆◆◆◆◆

해돋이 바다가에서 (외 1 편).....	4
이 거리 이 길... ..	4
이 하나의 소원만은... ..	5
내 사랑하는 꽃은... ..	6
주체사상탑.....	7
누리에 넘치는 만민의 환호.....	8
우리 수령님 돌아오실 그날엔... ..	10
위대한 향도의 별.....	11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당의 독창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	14
안겨주신 크나큰 그 믿음.....	19
별처럼 빛나는 그 마음속에 (외 1 편).....	20
우리의 지방공장 은을 낸다오.....	20
《훈장내신서》.....	21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	28
백두산의 해돋이여.....	30
언제나 친근한 그 이름.....	30
우물.....	31

내 너를 사랑하노라	33
산촌역의 밤에	33
누나 앞에서	34
즐거운 저녁	35
내가 찾는 사람	36
신들메를 조이자	48
갈꽃질때	50
기발 (외 1 편).....	60
역두에서	60
빛내이리 청춘시절	61
일주일간.....	62
나도 그 별 하나 (외 1 편).....	73
내 정 끝은...	73
고전소설 《사성기봉》에 대하여	74
선로공이 가는 길	79
통일이 되면 (외 1 편).....	79
흙냄새	80

해돋이 바다가에서 외 1 편

리 선 을

동녘하늘이 흰히 터온다
어둠속에 잠겼던 산천초목이
생의 기쁨속에 설레이고
새날을 축복하는 기발과도 같이
불노을 춤추며 펼쳐지는 저 바다 멀리
두둥실 둥근 아침해가 솟아오른다

바로 이런 아침이 아니던가-
온 나라가 해방의 기쁨속에 들끓던 그날
사람들 가슴마다 소생의 기쁨과
새날의 희망을 안겨주시며
아버이수령님께서 사랑의 자옥자옥을
이 바다가습으로 옮겨주신것은...

저기 등대섬에서부터 여기
넓게넓게 열린 행길우엔 오늘도
한손 높이 환하게 웃으시며 오시는
절세의 청년영웅
젊으신 장군님의 그 모습 비여오는듯

그 얼마나 기다리던 장군님이시던가
왜놈의 발굽아래 온 강토가 피 흐르던 날
짓밟히는 인민의 아픔 백배로 안으시고
이 나라 광복의 새아침을 불러오신
위대하신 장군님-

노을빛 하늘이 타고 바다가 설레던
그날의 환희, 그날의 노래여!
아, 오매에도 그리던 장군님 맞으며
목청껏 부를던 그날의 만세소리

오늘은 저 바다 우렁찬 파도소리 되어서
저렇게 이 가슴으로 울려오는것 아니냐

저기 흰갈기 날리며 달려오는 파도는
그날 아버지장군님을 향하여
이 부두가 흰옷차림으로 달려나가던
동포들의 자랑넘친 그 모습이 아니냐

저 하늘 불타는 아침해와도 같이
아버이장군님께서는 정녕
우리들 가슴마다에 광명을 주시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그 빛발 뿌리셨어라!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저멀리
불덩이인양 두둥실 솟아오른 아침해여!
이 땅우에 수억만년 해가 뜨고 해가 저도
어둠에 짓눌렸던 우리 인민들 가슴우에
언제 한번 해돋이가 있어왔던가

아, 아버지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찬란한 해돋이여!
수령님 계시여 이 땅의 밤들은 가시고
오늘의 광명 오늘의 락원은 일떠섰나니

아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녕
이 땅우에 웃음과 꽃, 기쁨과 노래
우리가 생이라 부르고, 삶이라 부르고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그 모든것
한품에 안아오셨어라!

이 거리 이 길...

이 거리
이 길이였다
젊으신 장군님
백두의 군화자옥을 찍으시며
이 땅에 현지도의 길을 오실곳은...

해방된 내 고향에 장군님 오신다기에
김일성 장군님께서 찾아오신다기에
벗어지는 막고무신 두손에 틀어쥐고
엎어지며 달음치며 따라서던
영광의 거리, 력사의 거리여!

조그만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며울며 헤매던 눈물의 거리

이 거리에서 처음으로
전설로만 들어오던 장군님 맞이했을 때
오매에도 그리던 장군님의 그 모습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가슴은 불타
목청껏 만세 부르며 대지를 구르며
뒤따르고 뒤따르던 그날의 감격이여!

아, 장군님 높이 모시고
 우리는 이 거리에서 처음으로
 송진내 풍기는 인민위원회 간판을 달고
 가지가지 법령들과 지시문들
 담벽우에 붙여가며 건국의 초행길을 걸었고
 이 거리에서 미국놈도 때려부시고
 우람찬 사회주의대기념비들도 일떠세웠다

그 위대한 나날속에서
 내 이제 머리도 희여졌다만
 내 이 거리에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영원히 그날의 흥분
 그날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리니
 영광의 거리, 해방의 거리
 아아, 내 영원한 청춘의 거리여!

이 하나의 소원만은...

방금속

참으로 원하던 우리의 소원은 풀려
 수령님 휴양의 길에 오르셨다고
 온밤 기쁨으로 설레이던 마음들이

푸름푸름 밝아오는 새벽빛 안고
 농장길 달리시는
 수령님 우러러
 두볼을 눈물로 적시웁니다

온 나라 인민의 소원을 담아
 휴양의 길에 모시였는데
 어찌하여 이 새벽
 바람 찬 들길을 또 가십니까
 온 한해 눈비를 맞으시며 걸으신 길을
 온 한해 이슬에 젖으시며 걸으신 길을,

이른봄날엔
 눈물에 친히 손을 잠가보시며
 이 나라 풍년씩을 키워주시고
 여름날의 새별 옷은 논두렁우에선
 포기포기 벼꽃을 안아키워주시며
 걸으신 그 길우에

달리는 차안에서 끼니를 에우시던
 그 사랑의 길우에
 참으로 수령님 바라시던
 그 좋은 날은 와

들에 언덕에 무겁도록 실렸던
 벼바다... 강냉이바다...
 그 구슬같이 빛을 뿜던 황금의 나락들을
 집집에 탈곡장에
 처마가 들리도록 가려놓고
 온 나라 창문들이 웃는

이 좋은 가을날에조차...

날알향기, 과일향기
 강산에 넘치는 사랑의 향기에
 별방에 가도
 산간에 가도
 웃음이 벅그는 이 풍요한 가을날에조차
 어찌하여 바람부는 들길을 걸으십니까

수령님!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걸으신 그 길이
 아직도 모자라시웁니까

이 땅이 하늘
 공기마저 태우던 그 뜨거운 열파를
 한몸으로 다 막아주시며
 인민의 경사로운 4월의 봄날에도

왜놈의 무거운 샅짐아래 쓰러진
 막별이군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슬내린 발머리에 계시던...

아, 한평생 눈비속을 걸으시는
 수령님을 생각하며
 간절한 소원 안고 모신
 휴양의 길이온데
 그 휴식마저 인민에게 바치시니

수령님!
 한평생 인민에게 주신
 그 대해 같은 사랑이
 아직도 적어서입니까

이 아침 수령님 모시고픈곳은
들길이 아니옵니다
약속만 하시고
한평생 미루어만 오시는 그 휴식은
대풍을 마련하신 이 가을날에만은
단 하루만이라도 다만 하루라도
편히 쉬시게 하고픈 오직 그 한마음

우리 어떤 기쁨 드리오면
시름을 다 더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순간만이라도
편히 쉬시겠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온 나라 마음들이 더욱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 소원
언제면 그 언제면 풀어주시렵니까

수령님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속에
인민의 온갖 소원 다 풀린 이 땅에서
이 소원만은
오직 이 하나의 소원만은
풀길이 없어
해마다 우리 가슴에 쌓이옵니다

아아, 수령님!

내 사랑하는 꽃은...

장 호 건

이 땅우엔 꽃도 많아라
진달래
만병초
백일홍...

꽃은 꽃마다 자랑도 많아라
아름다움
향기로움
진귀로움

허나
내 사랑하는 꽃은
눈서리에도 스러지지 않고
불속에서도 타지 않는
그 삶이 영원한 꽃

그 꽃들이 나의 가슴에
소중히 안겨졌어라,
은혜론 태양의 빛발 안고
20년대 언덕우에 붉게 피어났던

그 충성의 꽃씨앗이
80년대 이 강산에
오늘은 일만 송이송이로 만발하여라
꽃도 많은 이 땅에
꽃바다 지방도 많은 이 땅에...

날바다에 갑문기둥을 일떠 세우며
천길 땅속 보화를 안아올리며
향도의 해발을 우리러
끝없이 피어나는 천만인생의 대화원에
내 또한
피어서 행복한 이 기쁨이여

내 사랑하는 꽃은
꽃중에도 영생하는 꽃
그 송이로 피여 한생
비오는 날에도 향기풍기리
눈보라치는 날에도 향기풍기리
아, 당이여 그대 품에 영원히!

주체사상탑

동 기 춘

우러르면
땅은곳은 저 하늘끝
빛발쳐가는곳은
이 세상 한끝인가

그 고결함 그 숭엄함
신념의 뿌리우에 솟아
그리도 존엄높은것이냐
진리의 해불
너 주체사상탑이여

《주체》!- 그 글발 안으면
무엇이라 이름못할 뜨거움이
가슴속에 그득히 차올라
다시금 우러르노니
탑이여 너의 돌기돌기는
어디서 시작된것이냐

두터운 압록의 얼음장을 딛고
나라의 독립을 부르시던 수령님
그 지울수 없는 자욱이
저 대돌에 어려있고

바람찬 화전의 언덕에서
혁명의 앞길을 밝히신 수령님
그날에 드셨던 한점의 등불이
저 봉화에 어려있구나

빼앗긴 자유 짓밟힌 권리
어떻게 우리 찾았고
시련에 찬 년대들을 넘으며
사대와 교조의 탕수는
어떻게 우리 끌어냈더냐

주체 그것이 없던 날
살아도 죽은 목숨이던것
그래서
삶도 없었다
빛도 없었다

주체 그것은
조국의 운명
인간의 운명을 구원한 불

위대한 수령님

날바다에 표류하는 세계를
행복의 포구로 인도하신 등대

저 빛발 놓치면
짓밟힌 노예로 울고
저 빛발 지니면
세계의 주인으로 영생하는것

숭고한 의리의 뜨거움이 가슴에 없이는
수호의 값높은 자각이 피속에 없이는
감히 탑을 쳐다못보리라

오, 탑이여, 탑이여
너는 인류세계가
수천년을 헤매이다 비로소 받아안은
신념의 기둥

너는
영원한 봄에로 굽이치는
미래의 지향과 의지를
세계의 중심
평양의 한복판에 세웠도다

위도와 경도를 넘어
끝없이 물결쳐오는
새삶의 환희를 안고
감사의 노래를 안고

낮이면 해빛이 되여
밤이면 별빛이 되여
우리모두의 가슴에
공지와 존엄의 넋을 키우는
빛과 열이 시작되는곳이여

이 빛발 흐르는
저 먼 대륙의 끝까지
싱그러운 바람결은 설레고
자주의 봄은 푸르게 일떠선다

번영하라 세기여
우리 수령님 인류를 위해 쌓으신
그 숭고한 위업이
여기에 탑으로 솟아 빛발치거니
영원한 미래는 주체의 세계여라

누리에 넘치는 만민의 환호

문 동 식

영광의 천만리

천리를 가시면
환호성도 철리
만리를 가시면
꽃물결도 만리

지구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도처럼 뻗어간 두줄기 궤도우에
친선의 새력사를 새겨가시는
위대한 우리 수령님

밤이 깊어도 잠못들며
수령님 가시는 그 길에
비가 오지 않는지
가시는 그 길에
찬바람 불지 않는지...

오직 하나의 이 생각
천리고 만리고
따르고따라가는
우리 마음속에 울려오나니
오, 환호성 환호성

《혁명의 영재
김일성 만세!》
《만세! **김일성**!》
천지를 진감하는 폭풍같은 환호여

모스크바와
와르샤와에서
베를린과
쁘라하에서...
날과 날을 이어 펼쳐지는 꽃바다

단결과 협조
친선과 평화

그 빛발 대륙에 넘치여
억만 꽃송이는 피고 또 피고
평화의 리념으로
침략의 검은 구름
핵전쟁의 불구름 막아주시는
그 위업 누리에 넘쳐
환호는 오르고 또 오르고

손을 드시여
답례하시고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방문록에 친히 글발도 새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밝으신 영상에서
광명한 미래
무궁한 행복을 안으며
조선은 명절로 설레이나니

오, 끝없어라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사는
조선의 영광이여
민족의 궁지여

수령님의 존함
누리에 빛나시여 조선이 빛나고
수령님 우러러 터치는 만민의 환호에
우리 인민의 자랑 세계에 넘치거니

위대한 수령님
만리를 가시여도 천만리를 가시여도
따르고따라가는 우리 인민의 마음
수령님의 자욱자욱 심장에 새기며
만수무강 삼가 축원하나이다

씨비리 장미꽃

대지의 자양으로 자라왔으니까
따사로운 봄빛으로 꽃피웠으니까
오월의 봄날에도 성에 불리고
눈보라이는 씨비리땅에서

전설의 문을 열고 따온 꽃인듯
철늦은 엄한속에 피워낸 장미꽃
움쓰크에 찾아오신 우리 수령님께
당신들은 삼가 드리었나니

만발한 꽃송이 장미꽃송이
조선의 마음에도 붉게붉게 피나이다
수령님 맞이할 이날을 그리며
품에 안아 가꾸던 그 마음들이

그윽한 꽃향기 장미꽃향기
조선의 누리에도 풍겨오나이다
수령님께 드리는 이날을 위해
잠도 잊고 보살피던 그 숨결이

꽃이 없고 향기없는 씨비리땅에
수령님을 어이 모실수 있으랴
그 지성 봄빛되고 토양이 되어
눈서리를 녹이며 피워낸 장미꽃

아, 붉은 꽃잎은 받드는 마음
넘치는 향기는 따르는 숨결
수령님께 드리는 꽃다발은 하나건만
쏘련의 추억만 마음입니다

힘멜 라이히츠로인에게

이십팔년 긴 세월이 흘렀나이다
머리엔 흰서리가 내렸나이다
폴초브 드넓은 대지를 가꾸던
힘멜 라이히츠 옛 관리위원장이며

조선의 청산마을 푸른벌 여기서
민주도이첼란드 그곳은 수만리로 멀건만
마치 이웃의 로인을 대하듯 내 오늘 그 이름
구면처럼 부르나니

가슴속엔 뜨거움이 흐르나이다
세월은 생활우에 락엽을 내리건만
언제나 봄날에 사시는 우리 수령님
로인님을 또다시 찾아주셨나이다

마치 우리 농장 마을에 오시면
우리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생활도 건강도 가정살림도
허물없이 살뜰히 물으시던 그때처럼

십년 또 십년 세월은 흘러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했건만
그리도 잊지 않고 로인님을 찾아주신
수령님의 은정에 눈시울 젖어-

나는 자꾸만 부르나이다
폴초브의 힘멜 라이히츠로인이여
천년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는
수령님의 의리속에 솟아있는 로인님은
영원히 못잊을 조선의 벗이웨다

두 가정

평양의 문수거리
선반공 나의 집 문을 여시오
웃으시며 들어서시던 우리 수령님
베를린의 노위스노거리 68호동
한 노동자의 가정에 들리셨나니

아, 문수거리 나의 집과 추녀를 함께 들고
아시아의 동쪽과 유럽의 서쪽에
높이 솟아있는 로동자 두 가정
지구를 한마을로 함께 살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수령님 돌아오실 그날엔...

우리 수령님
조국으로 돌아오실 그날
무슨 꽃다발을 우리 안겨드리면
감사의 한마음 다 불리랴

우리 수령님
조국으로 돌아오실 그날
무슨 꽃다발을 우리 안겨드리면
수억만리 그 로고 다 풀어드리랴

나라마다에 친선의 꽃을 피우시고
지구우에 평화의 봄을 가꾸시고
돌아오실 수령님께 안겨드릴 꽃다발
무슨 꽃으로 우리 엮을가

그 생각으로 용해공들은 쇠물뽑고
그 마음으로 농장원들은 풍년벌 가꾸고
그 일념으로 광부들은 쇠돌캐고

그 지성으로 방직공들은 비단짜고...

현미경을 마주한 과학자의 가슴도
원고를 써가는 시인의 심장도
초소를 지켜선 병사의 눈빛도
그 한뜻 한숨결로 불타오르나니

위대한 우리 수령님
외국방문 마치시고 돌아오실 날
그날엔 우리모두 안겨드리리
이 세상 어디서도 볼수 없는 꽃다발

수령님 바라시는 창조의 천만꽃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해빛안고
피어나고 솟아나 빛나는 조국땅
우리는 수령님께 삼가 드리리다
만수무강 축원의 꽃바구니로

1984년 6월

향로의 별

비슈와나스

아득히 지평선에 찬란한 향로의 별 솟았네
동무들아 이 아침 기쁨의 노래 부르자
김정일동지를 따르는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신념
그이의 찬연한 빛발 대륙과 대양을 넘어
온 누리를 비쳐주거니
그이의 눈부신 빛발아래
우리의 앞날은 밝고밝다네

위대한 **김일성**각하의 높으신 뜻 받드시고
그이는 우리를 래일의 행복예로 인도하시거니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아드님이신
그이는 우리를 희망찬 앞날예로 이끄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기울이시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죽음을
주고
인민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시네

그이의 로고로 하여
온 세계가 따르는 주체사상의 위대성
날을 따라 더욱 밝은 빛을 뿌리리라
저 멀리 지평선에 솟은
향로의 별 우러러
동무들아
영원한 축원의 노래 부르자

(필자 인디아신문 《인디안타임스》
주필)

위대한 향도의 별

안헬 카스뜨로 라마렐요

동녘하늘에
찬란한 빛을 뿌리며
위대한 향도의 별
인류미래의 태양
높이 솟아올랐어라

그이는 주체의 위업을 찬란히 꽃피우시며
조선의 영광 빛내이시는 길에서
인류가 념원하고
세상사람들이 찬양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류의 량심을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사상가
그이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구호
조선에 힘있게 울려 퍼지나니
그이를 따르는 충성의 대오들
지축을 울리며 힘차게 전진하여라

그이는 탁월한 혁명의 영재
속도전의 불길 지피여
조선에서 새 기적을 창조하시여라
그이의 불멸의 업적
대와 같이
세계를 찬란히 비쳐주어라

그이는
조선에서 인류문학의 앞길을 밝히시며
《황금의 예술》을 창조하신
예술의 영재

그이는
20세기의 문예부흥을 이룩하신
위대한 천재

그이는
모든 사고와 실천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진정한 인민의 충복

그이는
위대한 사랑과 불타는 동지애로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마련해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그이는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절세의 위인
주체시대의 탁월한 지도자
그이의 위훈 세계에 빛나라

그이는
조선에서 일대번영기를 마련하시여
빛나는 미래를 앞당기시는
인민의 탁월한 스승

그이로 하여
조선은 영광 떨치고
그이로 하여
주체위업 활짝 꽃피고있나니

아, 인류는
조선에서
그이의 리상을 보노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류의 희망
세계인민들은
그이의 비범한 예지로 마련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며
그이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높이 칭송하노라
우리모두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팔자 빼루조선천선문화협회 위원장,
국회상원 의원)

사랑의 불빛 외 1편

리범수

가을비는 내리고 또 내리고
먹물같은 어둠은 오솔길을 덮는데
기통갔던 나어린 전사
야영지로 돌아오고있었다

빛도 없고 길도 잃고
인적마저 없는 외로운 산속
몸은 얼고 지치고
어디선가 공포와 적막이
엄습해오는 이 밤길

이런 때 한줄기 광명이 나타난다면
온 우주와도 바꾸지 않으리
이런 때 그 뉘가 마중온다면
잊지 않으리 검은 머리 희도록

하지만 이 밤 이 비를 맞으며
그 누가 문밖을 나서라
고향집 어머니의 그 사랑도
이 길엔 와닿지 못하리

다만 이 세상의 단 한분만이
전사를 기다려 비를 맞으시며
수림속 언덕우에 서계셨나니
아, 그이는 우리의 스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비쳐주시는
사랑의 그 불빛 안고
전사는 일어섰다 그 불빛 우러러
감사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눈섭마저 무겁다는 강행군의 밤
나어린 대원의 배낭을 벗기시여
자신의 배낭우에 덧놓아 메시던
그 은정 어려있어
그 불빛 그리도 밝은것인가

한 전사의 얼굴에 비낀
한점의 그늘을 헤아려
몸소 차표도 끊어주시며
사랑의 고향길 손저어 보내시던
그 은정 어려있어
그 불빛 그리도 뜨거운것인가

아, 그 불빛
생명의 바줄처럼 심장에 동여매고
전사는 갔다 그 불빛 향하여
그 불빛 희망의 등대처럼
온 넋으로 바라보며
전사는 갔다 그이의 품으로

하늘엔 비발 가득차고
새벽은 멀어
아침해는 산의 베개에서
아직 머리 들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의 그 불빛 따라
그이의 품안에 전사는 안기고
안기여 우러르는 전사의 얼굴엔
광명한 태양이 빛을 뿌렸다

어은금아 노래하자

어은동의 오동나무 정히 다듬어
네 노래 그리도 정다운것이냐
어은동의 물소리 새소리 어리여
네 노래 그리도 청아한것이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가락을 골라
몸소 은선 금선 메워주시고
친히 네 이름도 지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노래하자 어은금아 못잊을 그 시절
노을비낀 산기슭 잔디밭에 앉아
그이와 함께 네 가락 울릴 때면

훈련의 보람인듯 둥근달 솟아
노래도 마음도 흥에 겨였지

크나큰 그 사랑 그 은정에 목매여
달빛어린 시내가를 거닐던 그 밤
내 운명의 밝은 길 열어주시며
창문가 등불아래 잠못드시던
그 영상 우러러 네 노래도 흐느꼈지

오늘도 그날처럼 네 가락 울리면
어은동의 박우물처럼
따르는 내 마음 티없이 맑아지고
령군봉의 그 바위처럼

받들어 갈 내 마음 굳세여지거늘

어은금 어은금아
너는 내 마음
너는 내 녀의 메아리!
너는 내 영원한 청춘의 날개!
내 삶의 다정한 길잡이!

인생의 먼길에 벗이 되라고

노래마저 아, 노래마저 안겨주신
그이는 나의 운명
영원한 나의 태양!

사랑의 금선끝을 령군봉에 얹어놓고
충성의 은선끝을 내 심장에 걸어놓고
노래하자 어은금 나의 사람아
이 세상의 모든 노래 다 끝나도
불러 끝이 없을 충성의 노래를!

어머님의 웃음

-김정숙어머님 동상앞에서-

리덕진

어머님 웃으시여
진달래 저리도 곱게 피였는가
진달래 활짝 피여
어머님 환히 웃으시는가

내 조용히
어머님의 영상 우리러
따뜻한 그 품에 안기니
해빛넘친 진달래 떨기떨기
진동하는 꽃향기에 젖어
내 가슴 이리도 뜨거워 오는것인가

아, 어머님
정든 회령집을 떠나실 때
걸음걸음 설움에 고이고
그 어리신 가슴에도
방울방울 피눈물 맺히던 이 조국땅

어머님의 눈길
회령집 뒤동산을 더듬으실 때
진달래 송이송이 시들고
백살구꽃잎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장군님 우리러
가시는 백두의 길우에
혈전의 고개, 피의 언덕은
그 몇몇이었더나

이 땅을 떠나실 때에는
피맺힌 원한만을 안고 가셨기에
그토록 험난한 설한풍만리에
자옥자옥 봄을 안고 오셨구나

고향의 유정한 뒤동산에, 내 조국땅에
장군님의 해빛을 안겨주시려
꿈결에도 이 봄날을 그리시던
어머님의 그 마음

고달픈 꿈을 달랜 찌그러지는 오두막에도
생의 밝은 미소 안겨주시고
차디찬 부엌바닥
꺼져가는 머슴의 피멍든 가슴에도
혁명의 붉은 꽃을 피워주셨나니

어머님의 그 사랑
세월이 갈수록 못잊어
해마다 이 강산에
온갖 꽃 저리도 만발하는것이냐

너무도 짧은 한생에
너무나도 숭고한 삶의 빛발 뿌리시며
이 땅우에 밝은 세월을 꽃피워주신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한평생
가시덤불길만을 헤치시며
어머님 안고오신 몸이어서
락원의 창가에
저리도 행복의 웃음 구울고
삶의 기쁨은 만발했어라

아, 어머님 웃으시여
진달래 곱게 웃고
어머님 웃으시여
이 땅의 봄날도 한껏 웃어라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당의 독창적문예이론의 정당성과 생활력

김정웅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본보기로 되는 인간성격을 어떻게 형성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주의문학에서 언제나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인간의 자주의식과 창조적지향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불길이 전세계적범위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혁명투사-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 절실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지난 시기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와 논의가 거듭되어 왔으며 일련의 가치있는 미학적견해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에서 기본요구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선행시기 문예이론에서 해명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릴데 대한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이 제시됨으로써 비로소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작업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려면 먼저 영화에서 취급하는 사건들과 주인공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합니다.》

어떤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인간성격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문학예술의 사회적성과 관련되는 기본문제로서 사회제도와 계급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제기되고 해결되어왔다.

우리 당은 새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으며 공산주의미래의 유일한 인간본보기로 되고있는 로동계급을 기본으로 내세우며 혁명가로 자라나는 보통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을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기본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혁명문학의 본질적특징으로, 기본요구로 된다.》

문학작품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주인공을 그린다는것은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탄생과정을 그린다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성과 고상한 정치사상적품모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주인공을 완성된 공산주의자로 그리는것이 아니라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적실천

활동과정에 끊임없이 사상정신적품모를 완성해나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리론은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민족해방운동의 기본과업을 문학예술에서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는 창작의 지도적지침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닌 힘있고 지혜로운 사회적존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며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 수행하려면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풀수 있는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준비된 혁명력량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킬데 대한 문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원쑤들을 때려부시기 위한 혁명투쟁시기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이후에도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혁명적세계관이 선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리해와 견해도 가지고 모든것을 로동계급의 립장과 관점에서 분석평가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사람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의 혁명문학은 사람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워야 하며 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려면 마땅히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우리의 혁명문학은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것을 본질적특징으로, 기본요구로 내세움으로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을 자주적립장과 창

조적립장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리론의 정당성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있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리론의 정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그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그려내는것은 인간학인 문학의 본질에도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문학예술 작품에서는 생활이 발전하는데 따라 성장하는 산 인간형상을 보여주어야 하는것만큼 작가는 생활의 우여곡절을 따라가면서 인물들의 혁명의식이 바이고 자라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산 인간을 진실하게 생동하게 그리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고유한 본성이다.

현실 그대로의 산 인간을 진실하게 생동하게 그릴데 대한 인간학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발전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을 잘 형상 할데 대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서고있다.

타고난 혁명가란 있을수 없으며 완성된 공산주의자도 있을수 없다. 사람들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창조적능력을 배양해 나가며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간다.

우리 문학의 기본주인공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갔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떠나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와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성격을 사실주의적으로 전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리는것은 또한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감동적으로 형상하기 위하여서도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주인공의 성격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사람들의 심금을 강하게 울리는 성격형상을 창조해 내는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 항구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주인공의 성격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창조하는 문제는 작품에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만 훌륭히

실행될수 있다. 다시말하여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리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며칠 사이에 한두번의 교양이나 일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체험과 끊임없는 투쟁을 거쳐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간다. 따라서 주인공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게 되면 그가 겪는 심각하고도 극적인 체험과정과 우여곡절로 가득찬 심리세계가 생동하게 드러나게 된다. 또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게 되면 작품에 투쟁의 시련속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 환희와 비애, 사랑과 증오 등 구체적인 사상감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반영되게 된다. 이처럼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리는것은 문학예술작품에서 산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내며 감동적인 인간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이것은 결국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창작실천에서 인간학의 본성적요구를 옳게 구현하여 산 인간의 형상을 진실하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창조할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생활력있는 방침이라는 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리론의 정당성은 다음으로 문학예술작품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본질적내용과 특징을 정확히 반영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사실주의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미학실천적문제의 하나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정당하게 그리는것이다. 생활반영의 진실성은 사실주의문학의 생명이며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떠나서 혁명문학에서 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는 문제도,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혁명적역할을 높이는 문제도 실현될수 없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를 떠나서 훌륭히 실현될수 없다. 그것은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에 대한 묘사가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의 반영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생활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혁명투쟁의 본질적대응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운다는것은 밝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려는 사상, 다시 말하여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

산주의를 건설하려는 혁명사상과 관점으로 무장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을 개척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를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사회현상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 혁명의 원리와 투쟁방법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이러한 인식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때려부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상과 립장, 관점을 가질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려는 혁명적 각오와 의지를 소유할수도 없다.

문학작품에서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린다는것은 사회현상의 본질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 혁명투쟁의 원리와 방법을 인식하는 과정을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그리게 되면 그의 성격형상속에 사회생활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혁명발전의 합법칙성, 혁명의 원리와 투쟁방법 등이 정확히 구현되기 마련이다. 창작실천의 견지에서 볼 때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떠나서 주인공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할수 없으며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 형성과정을 통하여서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을 예술적으로 정확히 구현하는 문제가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보는바와 같이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리론은 문학작품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함으로써 주인공의 성격을 훌륭히 전형화하며 생활반영의 사실주의적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담보를 마련하여주었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이 우리의 혁명문학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만들며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문학작품창작의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독창적인 리론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 독창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에는 물론 미래의 공산주의사회에 가셔도 거대한 위력은 나타내게 될것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은 우리 나라 문학창작실천에서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으며 빛나는 열매를 맺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미학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으로써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기 위한 열쇠를 마련하여주시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문학은 조선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투쟁속에서 자라나며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이것은 우리 문학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도, 빛나는 업적의 하나로 된다. 당의 구체적인 보살피심속에서 이미 1970년대초에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과정에 우리 문학은 원작에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형상하는데서 풍부하고도 귀중한 경험과 본보기를 마련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장편소설로 옮기는 과정에 우리 문학은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어 가는 매 단계를 명확히 보여줄데 대한 문제, 각계각층 인물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그들이 처한 사회계급적처지와 생활환경에 맞게 다양하고 특색있게 그릴데 대한 문제, 인물들의 내면세계와 심리상태를 풍부하고 깊이있게 그릴데 대한 문제 등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모든 미학적문제들을 실천적으로 빛나게 해결할수 있게 되었다.

장편소설 **《피바다》**에서 어머니의 형상,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 갑룡의 형상, **《꽃파는 처녀》**에서 꽃분의 형상 등은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 있게 구현하고있는 훌륭한 예술적전형으로 된다.

문학작품에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두드러지게 뚜렷이 형상한것이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데서 가장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것은 혁명적수령관을 명확히 천명하는 문제이다.

우리 문학의 기본주인공들인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났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란 바로 혁명적수령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조직진행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을 제시하고 올바른 전략전술과 투쟁방도를 밝혀주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의 길로 이끌어준다. 수령의 역할,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으며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사업을 옳바로 진행해나갈수 없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르시여 우리 혁명을 조직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갔다. 따라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투쟁의 길에 들어서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체득하여 나가는 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리론,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득하는 과정을 떠나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바로 이로부터 우리 문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형상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혁명적수령관,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품모를 인식하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켜 왔다.

장편소설들인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새봄》, 《평양시간》, 《생명수》, 영화문학작품들인 《군당 책임비서》, 《월미도》, 《언제나 한마음》, 《그날의 맹세》, 《전환의 해》 등 문학작품들에 나오는 긍정적주인공들은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과정에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에 의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난 전형적인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전형적형상을 통하여 우리 문학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세계관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을 예술적으로 정확히 밝혀내었으며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적과정을 정당하게 보여줄수 있게 되었다.

우리 문학의 실천적경험은 혁명적수령관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천명하는것이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훌륭히 그려내기 위하여 작가들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있다.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리론을 구현하기 위한 창작실천을 통하여 우리 문학은 각계각층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내는 데서도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였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혁명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할데 대한 문제는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사회계급관계의 특성,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혁명과업의 특성으로 하여 우리 문학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로 제기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혁명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문학은 이러한 현실적요구에 따라 각계각층 사람들의 혁명화과정을 형상화하는데 큰 주의를 돌리었으며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린 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장편소설 《생명수》의 주인공 박대성, 《새봄》의 주인공 최병진, 《평양시간》의 주인공 리상철 등 인물들의 형상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사회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과 창조적로동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농민들의 전형적인 성격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어있다.

우리 문학은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자라나는 노동자, 농민들의 전형적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는 한편 지식인들과 사회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형상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장편소설 《해돋이》, 중편소설 《의사는 집을 떠났다》를 비롯하여 지식인들과 사회정치생활의 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이 혁명화 되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문학작품들은 오늘 광범한 대중속에서 커다란 미학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형상하는데 있어서 매 인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사회계급적처지에 맞게 세계관형성의 단계를 명확히 보여주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세계관은 크게 세단계,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 단계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미워하는 사상을 키워나가는 단계 그리고 혁명적각오를 가지는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다.

오늘 주인공의 성격을 전형화하면서 혁명적세계관형성의 단계들을 뚜렷이 형상하고있는것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사상미학적특징으로 되고있다.

물론 작품에서 혁명적세계관형성의 매 단계들과 세계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교과서에서처럼 순차적으로 풀어나갈수는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이 설정한 주인공의 사상의식수준과 생활처지 그리고 작품의 주체사상의 특성에 따라 세계관형성의 첫째단계만을 집중적으로 그려내기도 하고 둘째단계나 셋째 단계를 위주로 하여 그려내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단계를 다같이 폭넓게 취급하기도 한다.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작가들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단순화, 도식화, 격식화하는 편향을

철저히 배격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체험과 끊임 없는 사상수양, 혁명적 실천활동을 통하여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진실하고도 생동한 인간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형상을 훌륭하게 창조한 여기에 또한 우리 문학의 중요한 성과의 한 측면이 있는것이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리론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생동하고 감동적인 인간성격은 훌륭히 창조해낸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깊이있고 섬세하게 그려내기 위하여서는 그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영화예술론》, 41페이지)

사회와 혁명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인 생활체험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 심각한 변화와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에서의 변화와 전환은 심각한 생활체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생활체험을 거치는 인간의 내면세계는 풍부한 극적내용을 담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사람들이 겪게되는 생활체험과 이러한 생활체험과정에 드러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진지하게 파고들어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장편소설 《새봄》에서는 해방직후 우리 나라 농촌의 복잡한 사회정치정세와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준엄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주인공 최명진의 심각한 생활체험과 내면세계를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형상화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그리면서도 무엇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현상들에 부딪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계급의식을 두드러지게 그려내놓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계급의식은 사람들의 모든 사상감정의 기초에 놓인다. 계급의식은 착취사회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 반항심에 뚜렷한 사상적지향성을 주어 이 모든 사상감정을 더욱 예리하고 확고한것으로 만든다. 인간의 자연발생적인 감정도 그것이 계급의식에 기초하여

뚜렷한 지향성을 가질 때 목적의식적인것으로 되며 생활과 투쟁에서 커다란 힘을 나타내게 되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다면적으로 그리면서도 어디까지나 계급의식이 이루어지고 공고화되어나가는 과정을 두드러지게 형상함으로써 혁명적세계관의 사회계급적바탕을 명확히 천명할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관형성과정자체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게 되였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상철과 오월, 《생명수》에서 박대성, 영화문학 《군당책임비서》의 차석빈, 《월미도》의 리태운을 비롯한 인민군용사들 등 우리 문학의 긍정적주인공들의 형상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립장과 관점을 뚜렷이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확고한 계급의식을 심어주며 인민대중을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을 반대하고 새 사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학은 계급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형상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생활의 거울로, 투쟁의 본보기로 되는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문학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형상하는데서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있으며 공산주의적인간학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해 나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는것을 력력히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우리 문학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귀중한 경험은 우리 당이 제시한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리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그리는데서 이룩한 거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의 혁명문학을 보다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한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문학부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는것은 우리 문학을 보다 찬란히 개화발전시켜나가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릴데 대한 독창적인 리론을 창작실천에 더 훌륭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안겨주신 크나큰 그 믿음

정영호

받아안은 감격이
생각할수록 꿈만 같아
그 몇번이고
소스라쳐 목메여라

자나깨나 우러러 뵈고싶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시여 환히 웃으시며
한일도 없는 이 전사의 손을
뜨거이 잡아주시였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고

아! 햇빛도 스며들지 못하는
날바다의 깊은 물밑에서
한치한치 어둠을 밝혀가며
한점의 흠이라도 생길세라
용접의 불물을 입혀가던 남모르는 그 마음도
그이께선 다 보아주시였더라

엄동설한의 날바다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어도
혼연히 수중용접의 불보라를 날려가며
교대에 교대를 더해
물밑에서 나을줄을 몰라
우리 중대장의 속을 태우던 그 일도
정녕 그이께선 다 보아주시였더라

우리들이 어려워할세라
기계화부대들을 보내주시고
일손들이 흥겨우라
수도의 예술인들도 보내주시고
온 나라가 갑문건설자들을 보고 싶어한다시며
사진기자들까지 보내주시더니

그이께선
아버이의 다심하신 사랑의 손길로
이 전사의 어깨를 두드려주시였더라
갑문건설은 동무에게 맡기니

완공의 그날엔 꼭 영웅이 되라고...

찬란한 향도의 해발아래
날마다 시각마다
날바다를 둘러돌고 일어서는 갑문
그 어마어마한 언제길에
이 평범한 전사는
하나의 자그마한 조약돌과 같건만
산악갈을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하늘땅을 메우며
사나운 광풍이 억만의 파도를 돌아온다 하라
하늘땅보다 더 큰 그 믿음을 지니여
전사의 이 가슴은
그 어떤 광풍도 격랑도
끄떡없이 막아나설 천만산악의 성벽

서리발 총창이 번개를 날리는
가렬한 격전장에서만
전사의 위훈이 빛난다더나
불을 뿜는 적화점을 한몸으로 막아
승리의 함성 메아리치는 고지우에서만
금별의 위훈이 빛난다더나

바치리라 이 한몸
천만년 무궁할 언제를 받들어
하나의 장식으로 굳어진들 어떠리
받아안은 그 사랑에
전사는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참된 의리를 위훈으로 빛내이리

아! 만년대계의 기념비 남포갑문
터져오르는 환성속에 완공의 꽃보라를 날리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다시 만나빌 그날
전사는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리
안겨주신 크나큰 그 믿음을
이 가슴에 번쩍이는 영웅의 금별로 빛내이며

별처럼 빛나는 그 마음속에 외 1 편

윤경남

봄보다 먼저 봄을 안고
가을보다 먼저 가을을 안고
언제나 농장벌의 첫 새벽 총소리인양
너 선창으로 울리는 발동소리

아직은 새벽달 서산마루에 걸렸어도
실고가는 그 마음
안고사는 그 마음
사시절 벌과 함께 사네

낮에 밤을 이어 운전대를 잡고
포전마다 들길마다
하루에도 그 몇번
어쩌면 너는 사나이같이
그리도 온종일 달리고 또 달리느냐

산천의 물소리
벌방의 새소리
철따라 변해도
청춘의 꿈을 안고 사랑 안고 가는
네 마을 다는 모르리

꽃나이 스물에
봄
여름
가을
계절따라 농사일 많고많아도
농장의 주인으로 기계화초병으로

큰몫을 말아나셨거니
네 가슴에
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망찬 푸른 벌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그 은혜!

아, 생각할수록 뜨거웁네
가슴뭉클 치미는 걱정의 파도
수령님 머나먼 외국방문길에서도
나라의 농사인 근심하지 마시라고
꽃바람 풍년바람
안고가는 그 마음

그래서이리
수령님 잠시라도
농사일 걱정하지 않으시게
늘어나는 분배몫 두고
올해에도 기뻐하시게
이 벌의 새별로 날마다 쫓는 마음

아,눈이 와도 비가 와도
별처럼 빛나는 그 마음속에
네 오늘도 계절을 앞당겨
발동소리 더 높이 울리며
쉽없이 가고있구나
수령님 걸으실 만풍년의 들길로!

가사

우리의 지방공장 은을 낸다오

맑은 물 샘솟아 흐르는 시내가에
아담한 식료공장 솟아올랐소
갖가지 지방의 원료도 많아
맛좋은 식료품 쏟아진다오
아, 따사론 당의 해빛아래
우리의 지방공장 은을 낸다오

산촌에 기계소리 울려 퍼지고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 흐르오
도시의 지원받아 살던 이곳에

오늘은 먹고 남아 도시로 보내오
아, 따사론 당의 해빛아래
우리의 제방공장 은을 낸다오

하늘아래 첫동네 두메의 산촌도
하늘아래 꽃이 피는 락원되였소
지방공장 찾아서 견학도 오니
풍요한 우리고장 자랑도 많다오
아, 따사론 당의 해빛아래
나라의 살림은 늘어만 간다오

《훈장내신서》

조승찬

이것은 펍 오래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부상당한 몸이었다. 락동강전선을 떠난 지 열이틀만에 공화국북반부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근강 미진나루에 도착한것은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 무렵이었다. 나는 날뛴기전으로 근강을 건느자고 정말 부리나케 걸었다. 그랬으나 정작 강기슭에 다달았던 나는 뜻밖의 사태에 아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도 흥성거리던 나루터에는 배조차 간곳이 없고 황량한 갈밭우로는 쓸쓸한 찬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불어치고있었다. 검고 우중충한 수면은 가끔 흰갈기를 일으키며 새벽빛속에서 유난히도 번뜩거렸다. 우수수- 새벽바람이 한줄기 불어가자 갈밭은 더욱 음산하게 설레었다.

강가로 조심스럽게 내려서던 나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대안에는 벌써 놈들이 모가지를 잔뜩 움츠리고 지켜서있는것이였다.

(한발 늦었구나!) 하는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파고드는 순간 나는 여직껏 지탱해오던 마지막 기운이 줄지에 말뚝으로 몽땅 빠져 버리는것을 감촉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제 예돌아 가자니 백여리길이 넘는 그 먼길을 어떻게 가랴. 그것이 순편한 길이라면 또 모른다. 걸음걸음 모퉁이마다 이름도 모를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적후의 험난한 길인데다 부상당한 몸이고보니 더욱 그러하였다.

나는 이미 행군해온 로정을 통하여 예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간고한것인줄 잘 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물속에 뛰어들수도 없다. 내 한몸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벌써 어느 수림속이나 골짜기에 주저앉아 버렸거나 놈들과 결판을 냈을지도 모른다. 부대의 전선리탈을 보장하기 위한 락동강기슭의 돌출부 방어전에서 영웅적으로 희생된 전우들의 위훈을 부대에 전할 무거운 임무가 나에게 있다. 이 위훈을 부대에 전하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기였던 문화부중대장은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불행하게도 전사하였다. 립종을 앞둔 그는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여 나에게 넘겨주었다.

《창수동무 살아서...이걸 부대에 꼭...》

이것이 그가 남긴 유언의 전부였다. 수첩을 펼치던 나는 또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훈장 내신서》란 다섯자의 글발이 내 눈을 확 끌어당기었던것이다.

《전용섭 소대장, 24살 로동당원

적땅크 2대 격파, 적병 11명 살상, 부대가 준 돌출부방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

임충기 7보총수, 18살, 민청원

육박전에서 단신으로 적병 9명 살상

적들의 시체속에서 탄약 일곱 탄띠와 수류탄 13개 수집.

한덕배 6보총수, 41 살, 로동당원

수류탄을 안고 육탄이 되어 적땅크 1대 격파

.....》

생사를 판가리하는 그 처절한 싸움속에서 문화부중대장을 희생된 매 전사들의 전투공로를 빠짐없이 적어놓았다.

전우들의 위훈자료 뒤에는 그것을 보증하는 문화부중대장의 낫익은 수표가 적혀있었다. 나는 그가 어찌하여 숨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 수첩을 나에게 넘겨주었는지 알수 있었다. 비록 보풀이 일고 모서리가 닳아진 허름한 수첩이었지만 거기에는 우리 소대 전우들이 흘린 피와 조국을 위해 높뛰던 심장의 고동과 가렬한 혈전의 메아리가 그대로 집약되어있는것이였다. 그 작은 수첩은 천군의 무게로 내 어깨를 지지눌렀다.

이것은 어찌보면 부대의 전선리탈을 보장하기 위해 돌출부에서 최후결사전을 각오했던 그 전투보다 더 중대한 임무일는지도 모른다.

나는 뚫어오르는 걱정을 안고 그 수첩의 뒤장에 이렇게 적어넣었다.

《리희춘 문화부중대장 31 살 로동당원

그는 소대가 어려운 임무를 받고 돌출부에 남게되자 자진하여 전투원들과 함께 결사전을 각오했던 지휘관이였고 그들의 전투위훈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부대에 전할수 있게 한 훌륭한 정치일군이였다.

돌출부 방어전투를 최종적으로 지휘함.》

나는 병사의 이름을 걸고 이 내신서에 수표하였다. 그리고는 수첩을 접어 군복상의의 옷주머니에 소중히 보관하였다. 그 수첩을 부대에 넘겨주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주저앉을 권리도 없다는 병사의 자각이 나를 앞으로만 떠밀었던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퍼런 강줄기가 앞을 가로막고 있

는것이다. 며칠전부터 염증이 오기 시작한 상처가 또한 무섭게 독을 피우면서 불덩이처럼 몸을 달구고 있다. 조갈이 들어 터갈라진 입술에서는 빨갛게 피가 내배였다. 정신이 깜빡깜빡 흐려지면서 발걸음이 자꾸 허청거렸다.

나는 둔덕우의 에어린 버들가지에 몸을 기대채 가쁜숨을 몰아쉬며 물소리가 소연한 강쪽을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가?)

어디선가 인기척소리가 들려왔다. 내 손은 저도 모르게 총부터 더듬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내가 지나온 갈밭속에 한 처녀가 오독 서서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

경계어린 시선으로 처녀를 지켜보며 나는 한순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처녀가 내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확연히 반기는 기색이 어려있었다.

《강을 건느자고 그래요?》

《그렇소.》

아직 정체를 알수 없는 처녀여서 나는 그 이상 더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지금은 위험해요. 낮에는 놈들의 경계가 심해요.》

《놈들이 들어온지 오래오?》

나는 슬그머니 손에서 총을 놓으며 물었다.

《며칠 됐어요.》

《동문 어디서 사오?》

《저 언덕너머 썬터마을에 있어요.》

처녀의 시선은 봉대가 감긴 내 어깨에 와닿았다. 그는 아까와는 달리 내앞으로 스스럼없이 다가서며 근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다쳤어요?》

《아니 일없소.》

나에게는 상처의 아픔보다 불시에 나타난 처녀의 정체가 더욱 궁금하였다.

하지만 그가 적의 앞잡이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퇴색한 누런 솜동복을 입고 노끈으로 허리를 가튼하게 동여맨 그의 아래도리는 함초롬히 젖었고 솜동복의 앞섶에는 총탄이 뚫고나간 흔적인듯 소눈깎만한 구멍이 두군데나 평 하나 뚫려있었다.

처녀는 묵묵히 나의 상처를 지켜보았다.

날은 시시각각으로 밝아오고있었다.

기습을 떠난 물새 한마리가 수면을 활을듯이 낮추며서 빠리리 빠리리 소리치며 강 저편으로 날아갔다.

《가시자요. 여기서 빨리 피해야 해요.》

문득 처녀가 나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나는

의혹에 찬 시선으로 그를 마주볼뿐 움직이지 않았다. 시기가 시기였던만큼 매사에 응당한 경각성을 높여야 했던것이다.

《조금 내려가면 동굴이 있어요.》

처녀의 맑은 눈에서 진심을 읽게 된 나는 잠시 후에야 그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하였다.

과연 동굴은 멀지 않았다. 아가위며 찔레덩굴이 한데 엉켜있는 나지막한 절벽아래에 동굴의 입구가 나있었다. 처녀의 부축을 받아 굴안으로 들어 서니 습한 냄새와 한치얕도 분간키 어려운 캄캄한 절벽이 앞을 막았다. 조금 지나서야 굴안의 툭파이 희미한 빛속에 어렴풋이 알리였다. 결보기와는 달리 굴안은 퍼그나 넓었다. 습기가 배인 누기찬 벽체를 더듬으며 주춤주춤 안으로 들어가던 나는 무엇인가 발목에 걸쳐여 하마트면 앞으로 엎어질번 하였다. 다행히도 처녀가 나를 부축하며 주의를 주었다.

《갈단을 조심하세요.》

갈짚이 수북에 깔린 안쪽으로 들어가던 처녀는 성냥불을 켜서 벽에 걸려있는 양철등잔우에 불을 달았다. 불빛이 비쳐가는 굴안을 돌아보던 나는 의아해졌다.

안쪽으로 무릎이 넘도록 높이 쌓은 침대모양의 갈단우에는 방금전만 해도 그 누가 누워있었던듯 우묵이 패워진 잠자리가 나있고 그옆에는 이불도 한채 개여있었다.

이 모든것과 처녀와는 어떤 련관이 있는것일까? 그리고 여기에 누웠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말인가?

나는 그 어떤 동화의 환상세계에 빠진듯한 착각을 느끼면 처녀를 멍히 쳐다보았다. 그러는데 처녀가 나를 갈단《침대》우에 앉히고는 《그럼 잠깐 기다려주세요.》 한마디 남기고 굴밖으로 총총히 사라져갔다. 나의 머리속에는 의혹의 질은 그림자가 비껴갔다.

(도대체 저 처녀는 누구일까?)

처녀가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를 의심하기에는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진심이 어려있었다. 나는 굴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는 이어 굴밖으로 나왔다.

방금 솟아오르는 아침태양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수가 없었다. 대기는 죽은듯한 정적속에 잠기고 갈밭너머 수면우에는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듯 주홍빛 노을이 붉게 물들어있었다. 주위를 살펴본 나는 굴에서 얼마간 떨어진 바위틈새에 몸을 숨기고 처녀를 기다렸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탄창도 새로 갈아끼웠다. 설혹 처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나

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처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했던 것이다.

처녀가 다시 굴앞에 나타난것은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그는 치마폭에 무엇인가 싸들고 왔는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이어 굴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잠시후 굴밖으로 나온 처녀는 나를 찾는 모양인지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군대동무-!》

누가 들을가봐 겁내는듯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래도 나는 대답치 않았다.

처녀는 두번세번 나를 거쳐 부르며 여기저기 안타까이 찾아헤매더니 나에게서 몇걸음 떨어진 바위앞에 이르러 실망한 낯빛으로 백을 놓고 털썩 주저앉았다. 더 숨어 있다는것은 그에게 죄될 일이였다.

나는 다시한번 주위를 살피고나서 처녀앞에 나섰다.

《아이!...》

죄였던 용수가 뛰여오르듯 처녀는 발짝 일어나 불꽃이 피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차츰 야속함과 악의 없는 노여움으로 변해 갔다.

《그렇게도 사람을 믿지 못해요?》

《...》

나는 처녀앞에서 무엇인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가 굴속으로 들어가니 등잔에선 여전히 가물 가물 불꽃이 피여오르고있었다.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다가 놈들에게 발각되면 어찌자구 그래요.》

처녀는 나를 자리에 앉히며 가볍게 나무랐다. 그리고는 갈단뒤에서 무엇인가 꺼내여 내앞에 내밀었다.

《시장하시겠는데 어서 좀 드세요.》

까만 보자기속에서는 아직도 온기가 따끈따끈한 밥그릇이 나왔다. 그것을 보는 순한 나는 며칠째 낯알구경도 변변히 못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내장이 벌컥 뒤집히는것 같은 시장기가 나를 밥그릇앞으로 사정없이 떠밀었다.

그러나 나는 그앞에 선뜻 나설수가 없었다. 그저 처녀의 가혹한 마음이 한없이 고맙고 감사할뿐이였다.

식사를 마치자 그는 나의 어깨에서 봉대를 풀어헤치였다. 또다시 온몸을 찌르는듯한 아픔이 전신에 퍼져갔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봉대를 풀어헤쳤던 처녀는 미간을 찌프리며 실 눈섭을 바르르 떨었다. 상처는 예

상했던것보다 더 험하였다. 끓았던 자리는 터져서 피와 고름이 한데 엉키었는데 시뻘경계 부어오른 살가죽은 거무죽죽하게 변해가고있었다.

처녀는 피고름을 씻어내고 약통을 꺼내 정성스레 약을 발라주었다. 아편이 섞인 고약이라는것이였다.

《고름은 인차 빠질거예요. 그럼 좀 누워계세요.》

처녀는 발치에 내려앉아 짜리나무단에서 삭정을 꺼내여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탁탁 나무타는 소리가 들리였다. 나는 처녀에게 무엇인가 더 묻고싶었으나 상처의 아픔때문에 입을 벌릴수가 없었다. 입만 벌리면 금시 신음소리가 새어나올것 같아서였다. 그렇게 모진 아픔을 참아가던 나는 차츰몸이 나른해지면서 정신이 가물가물 흐려지는것을 느끼였다. 처녀가 정성스럽게 발라준 약효때문인지, 아니면 오래간만에 차려진 훈훈한 잠자리와 안도감때문이었든지 그것은 지금도 내 기억에 똑똑치 않다.

다만 그 누구의 부축이 꼭 필요하였던 그때에 있어서 처녀의 따뜻한 손길은 요람가의 자장가처럼 나를 포근히 감싸주었던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정신없이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깨여보니 눈앞에는 첫 순간 온통 불의 바다, 길길이 솟구치는 화염뿐이였다.

락동강! 락동강!

나는 지금 화광이 충천하는 락동강기슭의 격전장에 었드려있는것이 아닌가.

땅크들이 밀려든다. 한대, 두대... 다섯대다. 시커먼 포신을 오만하게 쳐들고 무한궤도로 땅을 물어뜯을듯이 와르릉대며 점점 가까이 다가드는 적땅크... 누군가 전호총장을 넘어 땅크를 맞받아 기여간다. 전용섭소대장이다. 육박의 총포탄이 작렬하던 고지우에서 언제나 돌격으로 부르던 용맹스런 나의 소대장. 그는 나에게 병사시절의 첫 걸음마를 떼여준 잊지 못할 지휘관이였다. 그뒤로 또 두명의 전사들이 수류탄뭉음을 안고 기여간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을 꼼짝할수 없는가?

갑자기 눈앞이 병긋하고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폭음은 들려오지 않았다. 타래치는 호연속에서 소대장이 쓰러지고 뒤따르던 전사들도 몸을 뒤틀며 넘어진다.

《아, 아!...》

나는 몸부림치며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그때 누군가 나를 가볍게 흔들며 나직이 불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소리와 함께 땅크도, 화염도, 전우들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리우에서는 반디불같은 등잔불이 가물가물 타고르고있었다.

《정신이 드세요?》

귀에 익은 목소리와 함께 입가에 웃음을 담은 처녀의 얼굴이 내앞으로 가까이 다가온다.

눈을 깜빡이며 한참이나 그를 올려다보던 나는 누웠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갈발속에서 처녀를 만나던 일이며 이상한 동굴속과 침구류, 그리고 처녀의 정성어린 치료를 받고 자리에 누던일과 모질게 쑤셔대는 동통을 참아가던 일이 한꺼번에 재생되었다. 그렇게 쑤셔대던 상처의 아픔도 한결 즈믄해지고 몸도 거뻐해졌다.

《내가 오래동안 잤소?》

《네, 너무 곤히 잠든것 같기에 그냥 뒹눴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어요?》

《꿈?! 내가 뭐라고 했소?》

《바위에 눌린것 같더군요. 그냥 몸을 뒤틀며 피로와하는것 같아 깨웠어요.》

처녀는 눈이 동그래서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꿈이었던가... 아니 그것은 꿈이라기보다 환각속에서 잠깐 그러본 처절한 격전의 한토막이었다. 환각이 사라진 지금에도 그 광경은 너무도 생동한 모습으로 눈앞에 살아올라 나는 처녀의 물음이 오히려 꿈속에서처럼 아득히 들리는것이였다.

《지금. 몇시나 됐소?》

《초저녁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소?》

나는 화닥닥 놀라 이불을 젖혀 버리고 갈단우에서 내려섰다. 아직 눈앞이 어질어질하긴 했지만 아침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내가 일어나서 침구류들을 거두는것을 보자 처녀가 만류하였다.

《봐주세요. 밖에 나가시겠어요?》

《아니 난 떠나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불에 손을 뻗쳐가던 처녀가 돌아서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찌나 경악에 찬 표정이 어렸던지 나는 한순간 무뚝해졌다.

처녀가 나에게로 급히 다가왔다.

《그 몸으로 어떻게 가신다구 그래요?》

《걱정 마오. 그래두 난 가야 하오. 처녀동무,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소.》

《글쎄 안돼요. 그 몸으로 못가요!》

처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예상외로 강경하였다.

《이러지마시오. 난 지체할 권리가 없소. 나에겐...》

《군인동무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 몸으로 가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니 딴 생각 말고 며칠 눌러계세요.》

처녀는 정말 며칠이고 눌러앉힐 작정인듯 무작정 나를 갈단우에 도로 주저앉히었다. 그리고는 배낭이며 총을 빼앗아 바람벽뒤에로 밀어놓았다. 딱한 일이었다. 보기와는 달리 그는 여간만 고집스런 처녀가 아니였다. 그렇다고 모든것을 사실대로 터놓고 말할수 없었던 나는 잠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나는 생각을 고쳐하였다.

물론 군인의 모든 행동은 군사비밀에 속하는것이므로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철저히 엄수하는것이 병사의 신성한 의무로 되고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이 결음이 얼마나 중대한것이며 부대로 가야 할 내 임무가 얼마나 절박한것인가를 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실을 안다면 처녀도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막아나서지는 않을것이였다.

《이것 보오. 처녀동무! 물론 후퇴해 오는 동무들이 누구나 다 자기 부대로 빨리 가고 싶어하는것은 사실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급히 떠나자고 하는것은 비단 그때문만은 아니요.

우리는 락동강에서 많은 전우들을 잃었소. 그들은 부대의 전략적후퇴를 보장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적으로 싸운 영웅들이요. 그들의 위훈을 부대에 전하기 위하여 기록에 남기었던 한 지휘관은 애석하게도 얼마전에 전사하였소. 그는 숨지는 마지막 순간...》

나는 불시에 목이 콕 메여올라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또다시 불타는 격전장이 되살아 오르고 수첩을 넘겨주던 문화부중대장의 우뚝뚝한 모습이 되살아 올랐다.

...그날 나는 날이 밝을무렵에야 찬바람 몰아치는 메마른 언덕가에 표말도 없는 나지막한 봉분을 만들어놓았다.

군모를 벗고 문화부중대장의 무덤을 묵묵히 굽어보는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조종소리도 울릴수 없는 슬픈 영결이였다.

나는 봉분의 차디찬 흙을 움켜쥐며 어깨를 떨었다.

《문화부중대장동무!...》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지휘관들과 가까운 전우들을 잃었던가. 조국을 위해 바친 그들의 숭고한 녀과 불멸의 위훈은 먼 후날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군복상의의 옷주머니에 소중히 보관한 문화부중대장의 수첩을 어루어들은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축축히 고여올랐다. 마침내 나는 모든것을 그에게 죄다 털어놓았다. 나중에는 문화부중대장의 수첩까지 꺼내보이였다.

격해진 나의 심정을 깊이 리해하는듯 그 수첩을

펼쳐 보던 처녀의 얼굴에는 한없이 숭고한 격동의 빛이 어리었다.

그는 수첩의 갈피갈피에 적혀진 매 전사의 이름과 위훈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한참이나 시선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마지막장을 덮고도 처녀는 한동안 그린듯이 앉아 움직이지 못하였다.

《어쩌면... 어쩌면...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흐느끼며 속삭이듯 떨리는 처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부대에 가닿아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 강을 건널 방도가 없을까요?》

《...》

처녀는 수첩을 매만지며 잠시 말이 없었다.

《물론 어려운 부탁인줄은 압니다.》

《아니, 아니예요!...》

깊은 상념에 잠기었던 처녀는 소스라치듯 놀라 머리를 저으며 재빨리 대답하였다.

《그건 제가 힘써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다른것을 생각했어요.

오늘아침에도 두사람이 떠나갔어요. 소대장동무가 부상당했던데 이들을 치료받고는 그냥 떠나야 한다며 가버렸어요.》

처녀는 솜옷 앞자락이 뚫어진 구멍을 매만지며 채광이 비껴드는 굴입구를 조용히 내다보고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여기 놓인 등잔이 무엇때문에 필요했으며 어제까지만 하여도 여기에 누구들이 있었던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새벽부터 그의 아래도리가 화락하니 젖었던 까닭도 이제는 리해되었다. 그러자 머리속엔 갑자기 한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처녀의 뒤에는 반드시 우리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혼자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해낼수 있으랴.

그때 처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후퇴가 시작되어 매일같이 새 사람을 맞고 보내면서 저는 실로 많은것을 깨닫게 되는것 같아요. 아버지가 희생되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그저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랬던 저에게 군인동무들이 큰힘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처녀의 뜻밖의 말에 나는 은근히 놀라며 물었다.

《이곳 나루터를 지키는 사공이었어요. 일생을 노대와 함께 살아온 아버지는 슬하에 저하나 키우며 살아왔지요. 그랬던 아버지가 인민군대가 나오니 일

마나 기뻐했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것을 처음 보았어요. 그러다가 후퇴가 시작되니 인민군대의 전략적후퇴를 보장하느라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있었는데 그만 놈들에게 붙잡혀 ...》

처녀는 목이 메어올라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일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바랐는지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는것 같아요. 생전에 좀더 잘 돕지 못한것이 내내 가슴에 걸려요.》

처녀는 수첩을 나에게 밀어주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였다. 슬픔을 이기고 투쟁의 길에 나선 처녀의 심정이 뜨겁게 느껴졌다.

《아이, 이 정신봐.》

이윽고 처녀가 무엇을 잊거나 했던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까 한 부탁은 제가 잊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서 꼭 쉬세요.》

《가시렵니까?》

나는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해 엉거주춤 일어 섰다.

《저는 또 길목을 지켜야 해요. 후퇴해오는 동무들이 길을 잘못 들수 있거든요.》

《그럼 동무는 이 일을 혼자서 하시요?》

《처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했어요. 그렇지만...》

《!!...》

이리하여 나는 결코 숨겨두어서는 안될 처녀의 성스러운 투쟁의 또 한페지를 알게 되었다.

충격이 컸다. 잠시나마 그에게 의혹을 품었던 내 자신이 이 순간 얼마나 죄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나는 그를 만류할수 없었다.

다음날 밤 우리는 자정이 깊어서야 행동을 개시하였다.

굴밖으로 나오니 사위는 먹물을 뿌린듯 캄캄하였다.

처녀의 길안내를 받아 으스스한 강웃목으로 올라가니 갈짚으로 덮여놓은 크지 않은 폐목이 놓여있었다. 물위에 떠서 흥떡이는 그앞에 나서자 나는 추축하였다. 폐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통나무 몇대를 묶어놓은것이어서 사람을 태워 내겠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정작 폐우에 오르니 호들갑스럽게 몇번 기우뚱거리긴 했지만 웅케 건디여 났다.

《나무를 붙드세요. 복판에 물살이 빨라요.》

처녀는 긴 장대를 들어 폐목을 기슭에서 밀어내며 나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는 물살을 따라 천천히 노를 젓기 시작하였다. 폐는 강복판으로 서서히 미끄러져갔다.

나는 기관단총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긴장한 눈길로 아래컨 대안을 지켜보았다. 철썩덕, 철썩덕... 폐전을 치는 물결소리가 어둠에 잠긴 강상을 타고 은은히 퍼져갔다.

나는 처녀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걸음마다 목숨을 내대야 할 어려운 길에 서슴없이 나선 처녀의 소행이 이 밤 나에겐 더없이 경건한 느낌으로 안겨왔다.

싸움의 천리길을 헤쳐가고 헤쳐오는 준엄한 나날에 원썩을 맞받아 일떠선 이 나라 인민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목격한것이 한두번이 아니건만 나는 처녀의 소박하고 숭고한 모습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 뜨거운 숨결을 안고 나는 락동강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훈장내신서》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별빛이 어롱대는 강심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언제까지나 후대위 오는 그 심경속에 오래도록 파묻혀있고 싶었다. ...

갑자기 아래컨 대안쪽에서 모닥불빛이 뿜긋 피어오르며 시키면 그림자들이 얼씬거리는것이 멀리로 바라보였다. 새벽이 오자 놈들은 으슬으슬 추워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 불빛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처녀도 조심스럽게 노를 저으며 대안쪽을 훑어지게 지켜보았다.

강북판에 들어서자 물살은 더욱 세차졌다. 처녀는 성급히 노를 저었다. 물결을 따라 사선으로 흘러내리던 폐목이 차츰 물살에 말리기 시작하였다. 한번 밀리기 시작한 폐목은 자꾸 아래로만 쏠리었다. 처녀가 말하던 급류가 시작된것이였다.

나는 처녀를 도우려고 황급히 일어섰다. 그 찰나 폐목이 기우뚱 춤을 추며 호돌갑스럽게 떨어졌다. 균형을 잃은 몸을 건잡지 못한채 나는 폐전을 부여잡으며 펄쩍 주저앉았다. 동시에 《가만계세요.》 다급히 웨치는 처녀의 바쁜 목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롭고 다급한것이었던지 나는 가슴이 섬적하였다. 하지만 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한것은 그다음이었다. 처녀가 놀라 소리치며 주저앉는 순간 노를 놓쳐버린것이였다. 노는 벌써 저쪽에 떠 내려가고있었다. 폐목도 물살에 휘말려 거침없이 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놈들의 코앞에서 발각되고 말것이었다.

위기일발의 이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숨이 짹 막혀버리는것 같았다. 멀어져가는 노를 지켜보고 섰던 처녀가 돌연 숨옷을 벗어 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폐목이 바쁘게 춤을 추며 혼

들거렸다. 창황중에 나는 몸을 간신히 바로잡으며 당황하여 소리쳤다.

《동무!-》

그때였다.

별안간 총성이 따쿵-하고 울리었다. 그러자 대안쪽에서 불빛이 번뜩이며 우르르 달려오는 놈들의 모습이 보이였다.

끝내 발각된것이였다.

《서라!》

꽤지 먹따는듯한 고탈소리가 새벽공기를 찢었다. 뒤이어 총성이 연거퍼 터지였다. 대안은 삽시에 발각 뒤집혔다.

나는 폐전으로 달려나가 얼씬얼씬 다가오는놈들을 향해 기관단총을 휘두르며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동무, 올라오지 못하겠소?》

《넌려... 말아요...》

물우에 솟구쳐 올라 필사적으로 폐목을 떠밀던 처녀가 도간도간 끊어지는 숨찬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이였다. 비발치는 총탄은 더욱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처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눈곱이 확 달아오르고 가슴이 뭉클하였다. 아, 그때 상처입은 내 몸이 어찌나 한스럽고 원망스럽던지...

나는 가슴속에 타끓는 분노를 터뜨리듯 놈들을 향해 기관단총을 휘두르고 또 휘둘렀다.

강을 무사히 건느자 이번에는 건너마을쪽에서 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정황은 위급하였다. 우리는 무작정 숲을 향해 내달렸다. 날밝기전으로 적들의 추격에서 벗어나야 했던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좁혀들고 있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나는 수류탄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처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인주세요.》

《쓸줄 아오?》

《알아요.》

나는 그에게 수류탄 두개를 넘겨주었다.

놈들의 눈먼 총탄이 머리위로 새된 소리를 지르며 날아갔다. 어둠속에서 가까와오는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도 한결 다급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또 얼마쯤 내달렸다. 했으나 상처의 모진 아픔이 전신을 불로 지지느것 같아 나는 제대로 걸을수가 없었다.

《안되겠어요. 제가 저놈들을 유인할테니 동무는 어서 숲속으로 빠지세요.》

《정신 있소?》

나는 펄쩍 놀라 소리치다싶이 부르짖었다.

《이러지 마세요.》

처녀는 크지 않은 싸리나무아지를 붙든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이였다.

《그러다는 둘이 다 붙잡혀요. 동무에겐 중한 임무가 있잖아요… 락동장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위훈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돼요.》

《무슨 소릴 하요! 동무는 함께 가야 하요.》

《제 걱정은 마세요. 저아래쪽 진펄에만 들어서면 놈들이 어찌지 못할거예요. 더구나 저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되거든요.》

처녀는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빠른 말씨로

《아버지가…그걸 바랐어요…》

이 한마디 남기고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어둠속을 향해 몇걸음 내짚던 처녀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급히 나에게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소 서슴어 하듯 수집은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다.

《힘들거예요. 하지만 꼭 무사히 가주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처녀는 또한번 방긋 웃어 보이고는 곧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이놈들아!》

아우성치며 달려오는 놈들의 머리위로 처녀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려갔다. 그러자 놈들의 어지러운 발자국소리가 그가 사라진쪽으로 멀어져갔다.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몇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때 놈들이 밀려가는쪽에서 요란한 폭음이 일었다. 수류탄폭음이였다.

《처녀동무!…》

나는 그때야 비로소 아직 처녀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음을 깨달으며 피가 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총성은 더욱 자지러졌다…

부대에 도착한 나는 문화부중대장이 넘겨준 수첩을 중대장에게 전달하였다. 수첩은 곧련대에 보고되었다.

훈장내신서는 정식으로 작성되어 사단으로 올라갔다.

이무렵 우리는 재진격의 명령을 받았다. 기다리던 보복의 그날은 드디어 왔다. 우리는 원썬을 죽치며 남으로 질풍같이 내달렸다. 또다시 행군, 추격, 포위, 불꽃튀는 백병전… 그런속에서도 나는 가끔 적후에서 만났던 그 처녀를 추억하며 잊지 못해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부대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락동장에서 영웅적으로 희생된 소대 전우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비롯한 각종 훈장을 수여하는 공화국정부의 정령이 발표되었다는것이였다.

부대는 크나큰 감격과 격동이 휩싸였다. 어느때없이 엄숙하고 숭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훈장 수

여식장에는 대부분의 수훈자들이 없었다. 그들은 지금도 불타던 락동강격전장의 어느 한 골짜기에 표말도 없이 고이 잠들어있을것이였다.

했지만 그들이 세운 불멸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리라! 우리는 모두 그것을 확신하며 조국을 위하여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 간 옛 전우들의 위훈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이날 나에게도 전사영예훈장1급이 수여되였다. 나는 문화부중대장의 유언을 끝내 수행한 기쁨으로 마음이 설렘었다.

다음날 신문엔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였다. 기사 의 중심에는 위훈자들의 생전의 모습 그대로 사진들도 크게 실리였다.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가 찬란한 훈장이 번뜩이였다.

그 신문을 받아고 또한번 크나큰 감격에 휩싸였던 나는 갑자기 흥벽을 두드리며 그 어떤 세찬 충격에 신음소리를 내며 신문을 확 그러쥐었다.

준엄한 나날에 목숨을 내대고 이 훈장내신서를 부대에 전달케 한 그 처녀, 마땅히 이 영광스런 대오의 첫머리에 서있어야 할 그 처녀의 위훈은 아직도 세월의 갈피속에 고스란히 묻혀있지 않는가?

나는 내 가슴에 빛나는 훈장속에는 나의 공로와 위훈만이 아닌 숨은 영웅들, 그 처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불멸의 녀이 깃들어있음을 깊이 깨달았다.

하지만 어이하랴, 처녀의 위훈을 보증하고 내세워 세상에 빛을 보게 할 방도를 알수 없었으니… 나는 아직 그의 이름조차 모르고있는것이였다!

×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공업화의 거창한 진군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내 가슴에는 열여섯개의 훈장과 메달이 주렁져 보는 사람마다 존경과 찬탄을 금치 못해한다. 때로는 직장과 가두에서 지어는 중앙텔레비죤과 신문사들에서 찾아온 사람들과 기자들이 시대의 위훈자, 공로자라고 내세워 주며 내 이야기를 듣고저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름도 없이 가버린 한 처녀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곤한다.

세상에는 명성을 떨쳐 만사람의 축복속에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성실히 싸우다가 가버린 이름없는 영웅들도 또 얼마나 많은가?

하기에 나는 수십년 세월이 흘러간 오늘 먼 옛일을 추억하며 오늘 뒤늦게나마 그 처녀의 《훈장내신서》를 대신하여 이 글을 쓰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있습니다.**》

최근 문예출판사에서는 4.15 문학창작단에서 창작한 (전재환 작) 총서 《불멸의 력사》 체계에 속하는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을 출판하였다.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1937년 가을부터 1938년 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중일전쟁의 발발과 좌경모험주의적인 《열하원정》이 진행되던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벌리시는 한편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집필하시고 불섬(마당거우)군정학을 벌리시여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시고 1938년의 춘기작전을 승리로 령도하심으로써 난국에 처했던 조선혁명을 일대양양으로 불러일으킨 불멸의 업적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훌륭히 형상한 혁명적대작이다.

장편소설 《잊지 못할 겨울》은 이미 출판된 장편소설 《압록강》과 《고난의 행군》 사이에 들어가는 작품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혁명적 신념이란 무엇이며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신념이 없을 때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 떨어지며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투쟁할 때만이 항일혁명전쟁의 나날에 그 어떤 침체기도 생각할수 없으며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활의 철학적진리를 심오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진실하게 밝혀내고 있다.

소설은 《7. 7 사변》(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조선인민혁명군지휘원 및 병사대회의 방침에 따라 부대를 이끄시고 맹렬한 군사작전을 벌리시던 **김일성** 장군님께서 1937년 가을 어느날 장백림강현계에 자리잡고있는 5호밀영에 도착하신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밀영에 도착하신 장군님께서서는 국내공작중에 있는 련대장 김주현의 안해 김운화를 비롯한 후방밀영성원들을 만나시여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오매에도 그리던 장군님을 맞이한 밀영은 기쁨으로 흥성거린다. 그중에서도 어느때건 장군님께서 들리시면 대접할 생각으로 정성들여 소중히 가꾸어온 감자, 강냉이를 비롯한 푸성귀를 수확하는 김운화의 기쁨은 남다른것이였다.

그런데 이때 장백현당조직책임자 권영벽이 나타나 장군님께 뜻밖의 소식을 전한다. 그는 일제놈들이 《집단부락화》를 실시하려고 책동한다는것과 소부대로서 국내공작을 진행하던 김주현이 금광을 들이치고 금을 빼앗았으나 적들의 추격속에 들었다는것을 보고 올린다. 장군님께서서는 《집단부락》을 틀고앉을 주동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위험에 놓인 김주현소부대를 즉시 소환하도록 지시하신다.

소부대공작조를 인솔하고 밀영에 도착한 김주현을 만나시여 보고를 들으시는 과정에 김주현이 급변하는 정세를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모험적인 전투를 벌리었다는것을 료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당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신다.

김주현은 분산적으로 활동하는 국내공산주의자들에게 통일적인 투쟁방침을 제시하여줄데 대한 사령부의 명령을 집행하지 못한 과오로 련대장직에서 철직되어 작식대원으로 강직된다.

장군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장기군정학을 벌릴것을 계획하시고 밀영건설을 위해 비밀리에 불섬에 오중흡중대장을 파견하시는 한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집필하신다.

장군님께서 친솔하신 주력부대는 또다시 왜놈들을 찾아 떠나고 후방부성원들은 양목정자밀영으로 들어간다.

양목정자로 행군해 가던 어느날 윤화는 부대의 안전을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사랑하는 아들을 적구에 떨구어둔다.

한편 일체침략군관동군사령부에서는 《열하원정》로선에 따르는 《장춘작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참가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리던 끝에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에 대한 《특수작전》을 벌릴것을 모의한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리며 몽강방향으로 행군하고있던 어느날 작식대임무를 수행하고있던 김주현은 해열제로 쓰는 쥘뿌리를 씹으면서도 불똥어리 같은 자기의 몸을 대원들앞에 내보이지 않고 숨기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김주현의 손을 잡아 보시고 그의 몸에 열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몸이 불편할 때는 동지들의 방조도 받을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의를 불러 치료를 받게 하신다.

김주현이가 속한 중대당지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동지에 대하여, 김주현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 뜨거운 가르치심을 주신다.

이무렵 장군님으로부터 과업을 받고 떠나갔던 오중흡중대가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령관동지를 맞이한다.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오중흡을 치하하신 장군님께서는 전군이 군정학습에 들어갈것을 명령하시고 부대를 비밀리에 불섬으로 행군하도록 하신다.

사령부의 종적을 농친놈들은 사령부를 찾아 내려는 목적밑에 박차석을 데리고 만경대조모님 리보익녀사를 련행하여 승용차에 태우고 백두산주변을 돌아친다.

한때 박차석은 조선혁명군성원으로 김형권소조에 망라되어 국내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어 왜놈들의 고문과 회유를 이겨내지 못하고 배신자, 변절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결국 나라와 민족앞에 용서못할 죄를 짓는다.

그러나 리보익녀사께서는 드물지 않는 신념과 굳은 지조, 도고한 위풍으로 일제와 그 주구들을 위압하고 전를케 하신다.

장군님께서는 백두산기슭의 지하혁명조직들을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박철산, 마동희를 다시 과견하시는 한편 군정학습을 진행하신다.

전군이 장기적인 군정학습에 들어간다는것을 알게 되자 자기의 과오가 단순한 규률위반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된 김주현은 몹시 피로운 나날을 보낸다. 장군님께서는 친히 그를 만나시여 우리 혁명이

걸어온 피어린 로정에 대해서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신심을 안겨주신다.

김주현은 밤을 새워가며 장군님의 로작을 깊이 학습한다.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권영벽으로부터 만경대 할머니의 소식이 들어있는 비상통신을 받으신다. 통신을 통하여 조모님의 련행소식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일신의 아프심과 피로우심을 참으시면서 할머니를 련행한 왜놈들과 그 주구들을 복수하자는 전사들의 제기를 만류하시고 원수들의 모략을 짓부시고 군정학습과 1938 년의 춘기 공세를 성과적으로 준비하신다.

군정학습이 거의 끝나갈무렵 장군님께서는 춘기 작전지역을 정찰하며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김주현을 백두산에 과견하신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김주현은 조직을 튼튼히 지켜내고 체포된 권영벽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며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혀를 끊고 희생된 마동희의 혁명적 신념에 대하여 깊이 느낀다. 그는 독립군 참의부서리로 있던 변절자 선우제를 처단하고 밀영으로 돌아온다.

변절자 선우제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치를 알아낸 적들은 불섬을 겹겹이 포위한다. 그러나 장군님의 령활한 전략에 의하여 포위망은 부서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은 1938 년의 춘기공세를 벌린다.

적들의 특수모략은 부서지고 박차석은 놈들에게서마저 버림받는다.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신 조부모님께서는 따뜻한 봄날 만경대로 돌아가시게 된다.

과오를 범하고 작식대원으로 철직되었으나 끝내 자신을 혁명화한 김주현은 장군님의 배려에 의하여 다시 련대장으로 복직되고 안해와 아들을 뜨거운 눈물속에 만나는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독자들은 이 소설을 통하여 혁명적신념을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깊이 느끼게 될것이다.

량남익

백두산의 해돋이여

전계승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상상봉에 올라서니
우주의 문이 열리는구나
빛발 찬란히 펼치는
백두산의 해돋이!

밤하늘의 못별을 호심에 잠그었던
신비로운 천지의 물나라에서 솟음쳐올라
아침해 저리도 아름다운가

반만년의 력사와 더불어
이 나라 인민의 한마음이 받들어 올려
솟는 해 저리도 장엄한것인가

저 장쾌한 해돋이를 향하여
백두의 정기를 지닌
영광스러운 당을 노래하며
절벽우에 산제비 높이 날으고
새벽안개 걷히는 밀림의 바다도
천리에 파도쳐 설레이는 이 아침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
영생불멸의 그 업적을
봉우리, 봉우리마다에 찬연히 빛내이는
아 향도의 해발!

노을속에 머리 처든 아아한 령봉에도
해돋이로 붉게 물든 천지에도 어려 빛나는
만고의 그 예지
그 담력을 내 시로 새기고

눈우에 핀 만병초
세상 가장 싱싱한 그 꽃송이 송이마다
봄빛처럼 봄빛처럼 넘치는

그 미소를 노래하며...

천리 밀림너머
천리 산발너머
천만리에 노을비낀 저 하늘
무한대한 그 사랑만을 나는 안는다

아 백두산의 해돋이
우러러 부푸는 이 가슴
높뛰는 심장의 박동!
내 이 순간 태어나는것인가
터져오르는 환희여 나래치는 기쁨이여

새시대를 밝히며
솟아오른 태양!
불타는 저 하늘을 기폭으로 펼쳐들고
어서 가자 빨리 가자고
이끌어주는 해발따라
심장우에 손을 얹은 나는 태양의 전사

천만산악 넘어도
폭풍만리 헤쳐도
걸음걸음 나를 앞으로만 이끌어줄
찬란한 미래-
우주에 빛나는
공산주의아침으로 펼쳐질
백두의 해돋이, 해돋이!

우러러 다지는 전사의 맹세는
오, 향도의 그 빛발
태양의 그 빛발속에
영광의 삶 청춘으로 빛내여갈 한마음
충성의 위훈으로 빛내여갈 한마음뿐

가사

언제나 친근한 그 이름

김정초

꿈에도 못잊어 부르는 이름
행복의 노래로 부르는 이름
아, 그 언제나 우러러 따르는
다정한 그 이름 우리 당중앙

우리의 생활에 희망을 주고
투쟁의 나날에 신념을 주네

아, 우리 운명 꽃피워주는
소중한 그 이름 우리 당중앙

따르며 부르는 친근한 이름
심장에 새겨진 영원한 이름
아, 한마음 받들어가는
귀중한 그 이름 우리 당중앙

우물

김 주 석

(1)

예로부터 집터를 잡을 때는 먼저 우물터부터 보았다. 흔히 《집터잡고 우물 파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물터잡고 집터잡고》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집터로서는 좋으나 물이 없으면 아수한대로 우물을 따라서 갔다. 우물 하나를 보고 새집이 생기고 그 주변에 몇 집이 둘러앉고 나중에는 새 동네가 생겨났다. 그때문에 우물을 제일 가까이 끼고있는 집이 대체로 오랜 토배기이고 《우물집》 《박우물 집》 《샘터집》 해가지고 그것을 복중의 하나로 부러워했다. 그만큼 우물터를 잡는것이 신비한것으로 되어있었고 우물공사가 힘든것이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어디나 농촌수도화가 다 되다보니 우물에는 뚜껑을 든든히 덮어둔채 관심밖에 있었다.

그런데 온 나라가 펼쳐나서 우물을 파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얼마전에 나는 개천군 보부리에 다녀온적이 있었다. 우물이 많은 농장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고장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방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예비를 동원하고 창발성을 내여 이르는곳마다에 우물을 파고 출판을 박아야 합니다.》

첫 우물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가 한참 열리고있던 몇 해전 어느날, 회의보도를 방송으로 청취하고있던 농장일군들은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첫 보도가 우물문제였다. 바로 이것이다. 눈이 번쩍 띄였다.

보부리로 말하면 사흘만 가물어도 곡식이 타든다는 토질이다. 물원천이 멀다보니 프락포르로 실어다가 팽상도판에 뿌리거나 강냉이영양단지를 옮기면서도 땅속의 물을 리용할 생각은 누구도 못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하수혁명방침은 제시하셨는데 그냥 앉아있을수 없다, 우리 당원들이 첫 우물을 파보자, 그리하여 첫 보도를 듣다가 모두 펼쳐나섰다. 칠순에 가까운 당원 할머니도 상을 들고 나섰다.

멀리 평양에서는 전원회의가 한창 열리고있는 때에 여기서는 당원들이 첫 우물을 완성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접수하고 받드는 태도가 이

리하였다.

그 하나의 우물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정신 이런 기세로 한해에 61개의 우물을 발머리마다 파놓은 보부리, 우물 많은 농장, 우물 많은 리-보부리.

먼 조상들이 물끓을 찾아가면서 수천수백년동안 겨우 한두개의 우물을 파놓고 살아왔다면 오늘은 관수를 위해 우물을 파놓고 그 어떤 왕가물에도 근심걱정 없이 풍년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우물을 따라서 사람이 가는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우물이 솟는다할가.

마치 퍼내고 퍼내어도 줄줄 모르는 옛말속의 신기한 보물창고와도 같이 천길 땅속의 물도 발머리에 끌어다 저장해 놓고 뚜껑까지 든든히 해덮은 수십개의 《물창고》를 끼고 사니 어찌 농민들 마음 흐트하지 않으랴.

(2)

《참 이상하지.》 좀 빠른 말소리...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하는 느린 말소리...

우물을 두고 하는 말임에 분명했다.

허리를 꺾고 우물안을 들여다보고있던 나는 뒤를 돌아다보았다. 신살쪼م 되여보이는 두 농장이주머니였다.

방금 이상하다고 한 아주머니부터 보았다. 앞으로 내밀사한 이몸, 아래단추 하나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가슴아래가 벌려진 숨저고리, 좀 수다스럽게 생긴 편이다.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글썽 이상하지 않게 됐소, 읍에서 탐사대가 구멍뚫는 기계를 싣고와서 통탕거리더니 여긴 물이 없다고 하지 않았겠소. 그런데 물이 팔팔 솟으니 이게 이상하지 않소?》

이상하게 생각하게도 되였다.

이번에는 이상할게 없다던 아주머니를 보았다.

《왜 이상할게 없단말입니까?》

《이상할게 없지요. 이 우물이야 어버이수령님께서 직접 보아주신 우물인데 그래 물이 나오지 않을수 있겠어요.》

이상할게 없기도 했다.

필시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야기 대상이 된 《이상한 우물》로 말하면 두번째 파는 우물이다. 처음 우물터를 잡을 때 탐사대가 시추해보고 물이 없으니 다른데 파라고 했다. 이곳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는 물이 안나오는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라고 왜 물이 없겠는가, 파보자, 물이 나올 때까지 파자, 이렇게 하며 달라붙었다.

우물공사가 진행되던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지하수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고 계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이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찾아 오실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퍼올린 진흙이 질벽거리는 미끄러운 길을 걸으시여 우물결에 오시였다. 아직 돌도 쌓지 않아 몹시 위험했으나 수령님께서서는 우물우에 가로질러 놓은 나무에 올라서시여 활차를 달아맨 삼바리를 잡으시고 우물을 내려다보시며 잘 판다고 매우 만족해하셨던것이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물이 없으리라고 하던곳인데 수령님께서 다녀가신후 조금 파니 물이 샘솟기 시작하였다. 또 이상한것은 아무리 양수기로 물을 퍼도 줄줄을 모르고 그만한 물량을 보장하고있다는것이 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이 층층 고였다. 물이 상당히 많을뿐아니라 맑고... 깨끗했다. 해마다 이 우물덕을 탁탁히 본다고 한다.

이곳 농민들은 저렇게 물이 늘 차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아주신 우물이기때문이라고 말한다. 복받은 우물이라고도 하고 보물단지라고도 말한다.

정말 무심히 들을수 없고 스쳐지낼수 없는 이야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덕성에 감복한 이 고장 농민들의 꾸밈새없이 소박한 마음을 담은 새 전설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3)

농장의 한 일꾼이 책상맡에 머리를 박고 한참 뒤지더니 글쓴 종이 몇장을 내놓았다. 보풀이 일고 네귀가 오그라들었다. 시라고 해야 할지 가사라고 해야 할지 두가지 성질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적당할 글이다.

다시 읽어보고 가사편에 훨씬 가깝다고 단정해 버렸다. 아마 변성기에 이른 어떤 청년의 고심작이리라.

《몰치지요?》 그의 말이다.

《가산대요.》

《글쎄 그렇게나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썼습니까?》

그는 좀 거북한듯 한동안 코등을 어루쓸더니

《거시기... 예순나는 령감이 쓴거지요.》

《뭘 합니까?》

《달구지를 끌지요.》

이번에는 내가 머뭇거리며 한동안 코등을 어루 만졌다. 잠시 침묵, 늘 하는 수법대로 또 《금강》을 권하며 여유를 얻으려 했다. 사실 나는 가사를 잘 모르지 않는가.

세번째로 읽어보았다.

《몇천년 묵은 땅속물도 그 덕성을 노래하는가》라든가 《맑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라는 구절은 놀랄 정도로 운율이 있었고 《사랑의 우물》, 《행복의 우물》, 《풍년우물》 등등 표현은 가사를 쓰는 시인들이 가지고싶을 정도가 아닐까. 그들이 본다면 한절에 하나씩 앓히고 《아》를 붙여준다면 그러루한 가사가 되기도 남을것 같았다.

물론 철자법상 오류가 있긴 했으나 그런거야 어떤 초고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것이 아닌가.

《만나볼가요?》

《뭘 그렇게까지야, 아마 읍에 가고 없을겁니다.》

《읍엔 왜요?》

《분토 실으려 갔지요.》

《네-》

《령감이 <청산리버드나무>와 같은 노래도 있는데 우리 고장에라고 왜 노래가 없겠는가 하고 하면서 썼는데 내 보기에도 아니거던요. 가사라면야 그래도 네번째 줄에 가서는 <아>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사실대로 《아》도 없는데다가 어떤 련은 4행인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것도 있는데 아홉개 단락으로 된것이였다.

어쨌든 생각되는바가 많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에 사는 행복, 그 사랑 그 은덕을 노래로 세상에 전하고싶은 마음이 이렇게 이름없는 수수한 60로인의 가슴에도 시흥으로 넘쳐나고있는것이 아닌가,

어찌 그렇지 않으랴, 수령님 은덕으로 우물풍년 물풍년이 들더니 곧 강녕이풍년이 들었다.

수자나 도표가 아니라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줘야 할 작품에 수자를 드는것은 좀 무뎠한 일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만은 따분한 소설 여러 페이지에 그리는 형상보다 더 효과적일것 같다.

농업과학은 강녕이 한이삭에 여물수 있는 최대수치를 1,000알로 보고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물을 판 그해에 1,100알까지 영근 이삭이 수두룩하다는것이다.

그러니 어찌 노래를 부르고싶지 않으랴.

해마다 《행복의 우물》, 《사랑의 우물》, 《풍년우물》이 더 많이 늘어날 이고장은 실로 노래로 자랑 할만한 고장이다.

내 너를 사랑하노라

김재운

내 너를 사랑하노라
내 언제나
너의 숲속을 걷고싶노라
이 짙나무 오, 백두의 이 짙나무숲

너보다 더 아름다운 숲
그 어디 없으랴만
너의 숲속을 거닐 때처럼
내 마음 설레이는 때는
그 어디 가도 없노라

숨엄히 머리 들어 바라보다가도
내 다시금 또다시 걸음 멈춰
너를 쳐다보노라
너 어찌면 이렇게도
곧추 하늘높이 자라올랐느냐

바람결 따라 허리를 굽히고
철따라 가지를 펴며
우불구불 웅이를 남기며
자라는 못나무들과는 달리

너 이리도 눈보라 세찬 땅에
뿌리박고 자라면서도
오히려 그 한생에

단 하나의 마디도 없이
단 하나의 결줄기도 침이 없이
곧추 하늘높이 자라올랐느냐

때로는 밀림속 휘감기는 번개불에
때로는 밀림속 소용돌이치는 폭풍에
허리 꺾여지고
뿌리채 뽑히어 쓰러진적 있어도
나는 한번도 못보았노라
수십갈래의 줄기를 치며
너 허리를 구부리고 서있는
그 모습을...

쓰러졌어도
꺾이였어도
그 모습 장한
이 짙나무 오, 백두의 이 짙나무숲

내 너를 사랑하노라
내 언제나 너의 숲속을 걷고싶노라
항일전의 날
여기서 살며 싸운
투사들의 넋을
너도 지니고있어...
너도 노래하고있어...

산촌역의 밤에

김희종

풀벌레소리
물소리 높은 밤
레사로이
산촌의 밤은 깊어가도

농장의 소조원처녀야
그 무슨 사연이 있어 이 밤
불빛 가물거리는 역구내를 거닐며
먼 산굽이에서 울러울 기적소리를 기다려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느냐

나는 본다
별이 가까운 산골마을에서
하나 둘 통신대학에 보내보내며
걷고걸던 그 자욱우에

이 밤 또다시 찍혀지는 네 발자욱

온 농장에
네가 심어준 배움의 불씨
밤하늘에 별이 저도
꺼질줄 모르던
과학지식 탐구의 그 등불이었던가

애기모 하느적이는 이른봄날
주체농법의 교실처럼
그들을 모판에 세우고
푸르려 누르려 열매맺을
벼의 숨결을 새겨주던 네 마음

령너머 대학은 어디만큼 멀더냐

차길이 늦어지면
그 작은 어깨에 통신교제 메고
굽이굽이 눈길을 감돌아
찍 어가던 하얀 발자욱...

이 밤 그들이 안고오는
졸업증서
자랑스러운 기사자격증에는
이끌며 가르치며 받들어주던
네 정성의 자욱자욱이 어려있건만

그래도 기뻐이고싶은 정 끝없이
온 마을이 다 감든 이 밤에
너만은 너만은 잠들수 없어
상봉의 기적소리 기다리누나

온 마을에 지식의 꽃 만발하게 피워가며
이름없던 먼 산촌을
문명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세우는

아, 어버이수령님 보내주신
3대혁명의 전위여

그들을 앞세우고
기계소리 노래소리 산뿌리를 흔들며
휘날리는 세 폭의 붉은 기치아래
변하고변하는 산천은
또 얼마나 황홀한 새 모습으로 빛을 뿌리라

파아란 불이 켜진 역두에
기적소리 정답게 렬차가 와닿으면
그 모질고 차디찬 눈비를 다 맞으며
산촌에 또하나의 새 전변을 불러온
소조원처녀의 아름다운 마음우에

하늘의 별들아
꽃보라로 쏟아져라
스적이는 이삭들아
끝처럼 단 향기를 풍겨라

누나 앞에서

김정철

하얀 쟁반에 더운 국 받쳐들고
한 처녀 내앞에 서있다
복스런 얼굴, 상냥한 미소
백두산 밀영의 접대원동무여

무수해며 청취, 산나물도 갖가지
권하는 그것이 그대로 행복인듯
어서 들라고 재촉하누나
그 밝은 미소앞에서는
누나란 말이 절로 터져와

누나,
다심한 그 이름 맘속으로 부르며
그 모습 조용히 우러르니
아, 또하나 다른 누나의 모습이
내 눈앞을 흐려 오는구나
바로 이 밀영 이 자리에 서있던...

남들과 다름없는 행진과 군화
남들과 다름없는 무기와 배낭
그우에 언제나
남을 위해 없어진 무거운 작식도구를

행군의 설참이면 동지들 위해
그는 말없이 산나물 뜯었다

숙영의 밤이면
밤새도록 곁보리를 짊어
그는 동지들의 밥을 지었다

그나마 떨어진 그런 날이면
《내 노래를 부를게요...》
아, 더운 물과 함께
가슴속에 퍼져오던 누나의 그 사랑
전우들은 잊었더라 배고픔도 힘겨움도

아, 한어머님의 품속에서
한피줄로 이어 진듯
누나란 소중한 그 이름으로
언제나 불리우던 유격대의 작식대원
바친 정성 바친 사랑
많기도 했더라 그에게 동생들은
많기도 했더라 그에게 오빠들은

청봉과 건창
배개봉과 삼지연
세월의 락엽이 고이 간직한
아, 이 나라 누나들의 밭짓던 자리여
그날의 작식터의 그 우등불은
이미 스러진지 오랫동안
항일의 누나들의 심장에 불타던

사랑의 그 불길은 꺼질줄 모르거니
그것은 이 나라 너인들 가슴에 번지여
수천수만의 새 누나로 태어나라

혁명의 먼길우에
언제나 교향집을 대신하는
누나의 품으로
누나의 품으로

즐거운 저녁

권강일

서늘한 공원속에
새 놀이터가 생겼다고
아이들이 옷자락에 매달릴 때도
내 선뜻 하는 약속
-저녁에 가자

맑은 아침
분주히 엇갈리는 출근길에서
오랜만에 만난 못잇을 벗과도
반기며 손 잡으며 내 하는 말
-저녁에 만나자

저녁여-
잠시 나누고싶은 이야기도
그 무슨 기쁜 사연을 두고도
버릇처럼 미루거니
남기여두거니

오, 하루일 마친 보람
거리에, 강반에
해빛과 어우러지고
불빛으로 피어나는 즐거운 저녁이여

종더라
자고일어나 활짝 창문을 열다가도
마주 비겨오는 해살처럼
이 하루 로동일과 로동끝에 있을
홍성이는 저녁녘을 생각하기가

온하루 마음을 흥겨웁더라
불꽃 날리는 기대앞에서

바이트날을 지켜볼 때에도
기쁨이 나를 향해 마주오기에...

하는 일보다 바치는것보다
차례지는것이 더 크고
안겨지는것 이 파분한
우리의 이 하루하루

또 어데 있으랴
일터와 나날의 로동일은
그렇듯 권리로
휴식은 어길수 없는 의무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는 나라

오, 고마와
생각할수록
아버이수령님의 사랑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손길 따사로와
나도 모르게 생각은 닿는다
나도 모르게 그 저녁을 외운다

벗을 만나도
아침길을 걸어도
다시금 생각은 뜨거워
저녁에-

정녕 잊지 못해
그저 흠뻑 또하루 땀 흘리고싶어
마음속에 다시 새진다
즐거운 나의 저녁을

내가 찾는 사람

권정문

선옥아,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안고 이 글을 쓰는 지 너는 상상도 못할것이다. 너나 나나 이제 생활의 초입에 들어선 풋내기들이니 뭐나 다 새로와보여서 야단스럽게 떠들고 별치않은 일로도 흥분할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일만은 내 혼자의 가슴에 묻어두고싶지 않아 이렇게 글을 쓴다.

선옥아, 너도 기억할테지.

얼마전에 내가 일하는 이도포선창에 찾아와서 담당한 환자 한사람이 없어졌는데 오지 않았는가고 찾던 일말이다.

나는 그때 오래 헤어졌던 너를 우연히 만난 기쁨으로 이리니저러니 내 소리나 했을뿐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환자에 대해서는 통 관심이 없었겠지.

(환자가 없어졌으면 어딜 갔겠니. 좀 자유주의를 했겠지.

찾다가 없으면 그만둘 일이지 시오리나 되는 길은 날도 밝기전에 달려오다니...)

나는 그때 땀으로 미역을 감고 온 너를 보고 학교 때에도 무슨 일이나 참을성이 없이 바글바글 끓던 그 성미가 여전하다고 생각했었다.

네가 그때 금방 떠나려는 우리 배에 올라 객실과 선창, 지어는 취사장까지 들여다보며 찾던 그 제대군인,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동무들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에 와서는 한주일도 못되어 면회온 동무와 작당해서 《도주》했다는 그 혼썰을 내주어야 할 자유주의분자를 너는 지금도 찾고있는지...

네가 그렇게 속이 타서 야단을 하며 그 사람의 이름은 뭐고 생김새는 어떻게... 아무리 설명을 해야 그저 건성으로 듣던 내가 이 넓디넓은 간석지 건설장에서 그를 찾아냈다면 너는 곧이듣지 않을거야.

더구나 네가 것처럼 용서할수 없고 이해할수 없는 자유주의분자라고 하던 그 제대군인이 나에게 정 말 잊을수 없는 사람,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면 너는 아연해질 정도로 놀랄거야.

그러나 세상엔 이렇게 놀라운 일도 있는가봐.

X

내가 그 사람을 만난것은 정말 날씨조차 기억에 남는 그런 스산한 밤이었어.

한밤중에 나는 동무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을 깨었는데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옆에서 자던 동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침실은 웅덩이그레하게 비었는데 나처럼 지원전투에 나온 잠꾸러기 처녀들만 몇이 금시 잠에서 깨어나 눈이 커져서 어리둥절해있지 않았겠니.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요란한 소음이 막 우리들의 머리위를 덮쳐눌렀다.

집을 밀뿌리채 쿵쿵 들었다놓는 파도소리, 당장 창문을 짓부시고 막 쓸어들듯한 거세찬 바람소리, 온 천지가 산산조박이 나는듯한 천둥소리...

나는 기겁을 해서 2층침대에서 뛰어내렸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그냥 갈팡질팡하고있었다.

이때 어느 사이에 일어났는지 내 옆침대의 커튼 처녀가 밖에 뛰어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비옷을 마구 걸어안고 다시 나가려고 하더구나.

나는 그에게 소리쳐 물었어. 다 어디 갔느냐고...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제방이 무너진대요. 제방이!》 하고는 그냥 밖으로 뛰어 나가버리지 않겠니. (제방이라니?!)

나는 그의 말을 되받아 외우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미처 이해조차 할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뻔한것 같지만 그때로서야 어떻게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할수 있었겠니.

대형화물차가 너대나 옆으로 나란히 서서 달릴수 있는 그 넓고 큰 제방이 무너진다니 그걸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겠니.

내가 막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그 커튼 처녀가 다시 문간에 나타나 《지원자동무들은 나오지 않아도 된대요.》 하고 소리치더구나.

물속에라도 빠졌다 나온것처럼 그의 온몸에서 굵은 물줄기가 줄줄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밖은 비가 어찌나 세관게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던지 첫발자국을 내디디는 순간 온몸이 막 폭우속에 휘말려들어가 짓이겨지는것만 같더구나.

섬을 들이받고 부서지며 아우성치는 파도의 울부짖음소리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것이였어.

먹물속에라도 빠진것처럼 사방은 코앞도 가려볼수 없이 캄캄한데 저쪽 현관문에서 비쳐나오는 전등 불빛만이 바람에 시달리면서도 겨우 꺼지지 않고 어둠을 비치고 있었다.

그밑에는 열톤짜리 대형화물차 한대가 서있었는데 번들거리는 비옷을 입은 여러명의 건설자들이 그 우에 빼곡이 타고있는것이 보였다.

차는 금시 떠나려고 발동을 걸지 않겠니.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로 뛰어가 떠나는 차의 뒤꽂무니에 남자에들처럼 매여달렸다.

그때 마침 차우에서 누가 내 손을 끌어당겨주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어깨와 머리위를 막당굴며 겨우

적제함에 굴러들어갈수 있었단다.

그때 내 꼴이 불만했을거야. 밤이었으니 말이지... 하여간 천만다행이었어.

어떻든 차에 탈수 있었으니까. 만일 한발만 늦었다라면 나는 대오에서 떨어 지고말았을거야.

그렇게만 되었다라면 나는 이 편지를 쓸만한 아무런 생활의 의의와 가치도 체험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거야.

참으로 생활에서 한발자국을 어떻게 내디디는가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는 이때 처음으로 체험했던것 같애.

우리가 탄 차는 속력을 내어 달렸단다. 바다쪽으로 곧추 난 제방둑길에 접어들자 벌써 수많은 자동차들이 강력한 전조등빛으로 어둠을 가르며 바다쪽으로 전진해나가는것이 보였어.

꼬리를 물고 끝없이 달려나가는 자동차들의 긴 대렬을 보는 순간부터 긴장되고 위축되었던 나의 마음이 어느덧 누그러지면서 점차 마음이 놓이기 시작해더구나.

동무들이 준비하자

손에다 든 무장

...

우리 뒤차에서 누가 선창을 뻗는지 혁명가요의 힘찬 노래소리가 비바람과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우리차에까지 들려왔단다. 우리도 활기를 띠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단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기세를 올리니 마치 장엄한 기폭을 앞에 날리며 적진으로 육박해들어가는 용사들처럼 자신만만한 투지와 용맹이 솟구쳐오르더구나.

노래가 이렇게 좋은줄은 나도 이때에야 처음으로 깨닫고 느낀것 같았어.

금시 잠에서 깨어나 퇴성벽력을 품고 느꼈던 그 공포심, 캄캄한 어둠속으로 뛰어들며 찬비를 뒤집어 쓸 때 느꼈던 그 위축감, 칼날같은 섬광이 머리를 찢고 지날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머리를 틀어박던 비겁성은 어느새 사라지고 시련을 맞받아 전투장으로 나간다는 공지와 자부심이 가슴뿌듯이 안겨오더구나.

누가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는지 그는 참 요긴한 때 아주 좋은 생각을 하였거던. 물론 노래를 먼저 부른다는거야 힘들게 없지만 그러나 그 필요성을 남먼저 느낄줄 안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난관을 먼저 뚫고나가면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사람들일거야.

나는 노래를 부르며 줄곧 그 선창자에 대한 생각을 놓치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선옥아, 사람의 생각이란 참 별난것이더구나. 예감이라는것이 있지 않나. 나는 혹시나 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우리쪽으로 바투

다가온 뒤차에서 주먹을 부르쥐고 머리위에 높이 들었다가 힘있게 내리그으며 노래를 지휘하는 한 청년을 알아보았단다.

나는 정말 놀랐어. 너무도 뜻밖이었으니까. 하지만 왜 뜻밖이었겠니.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만나보리라던 그 사람이 아닌가!

오늘 이때까지 이 넓은 간석지건설장 그 어디를 가나 애타게 찾던 그가 아닌가! 바로 그 사람, 그 청년이었어.

멀리 뒤차의 전조등빛이 잠시 비쳤다가 휙 지나간후에는 그를 다시 볼수 없었지만 나의 눈앞에는 노래를 지휘하는 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노상 그대로 그려져있더구나. 정확히 말하면 그의 모습은 나의 눈앞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력력히 살아있는 것이었어.

그가 이미 나에게 남겨준 잇을수 없는 인상과 추억들을 한시에 불러일으키며 더 깊이 더 뚜렷이 마음속에 새겨지는것이었어.

노래를 지휘하는 그 청년을 내가 처음알게 된것은 지난해 늦은가을 그가 제대되어 여기로 오던 바로 그날이었어.

여느해 같으면 벌써 운행을 중지하고 배를 땅에 올렸겠지만 겨울이 다 되도록 끊기지 않는 건설자들을 위해 우리는 하루이틀 미루면서 그냥 배를 물에 올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정말 마지막이었어.

우리 선장아바이가 이번 항을 치르고는 사업소가 있는 신의주로 돌아가겠다고 이미 언명을 했거던.

우리 배가 이도포를 떠난것은 이른저녁때쯤이었단다.

소연도까지는 뻗히 건너다보이는 멀지 않은 길이였지만 무슨 해무가 그렇게 짙게 끼였는지 배가 떠난다 못떠난다 오래 가늠을 하다가 결국 늦게야 포구를 떠났단다.

손님들은 날씨때문에 하루 목게 되지 않을가 해서 걱정을 했지만 배가 포구를 멀리 뒤에 두고 바다에 나서자 모두 마음이 가벼워져서 습하고 추운 날씨였던만 배전에 나와 담배도 피우고 멀어져가는 포구며 이미 건설이 끝나 염전으로 쓰고있는 간석지의 제방너머를 의미있게 바라보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단다.

간석지건설자들에게 후방물자를 싣고간다는 네댓명의 나이 들어보이는 업무일꾼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쌓아놓은 장통과 소금가마니, 송동복, 모포 그리고 가나미속에 넣은 여러개의 큰 짐통구리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아주 만족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소담을 하더구나.

후방부나 어디 해당기관에 가서 섬에서 일하는 간석지건설자들에게 보내는 물자니 우선적으로 내려

고 땡땡 우르고 지원물자까지 욕심을 내서 잔뜩 싣었을테니 그럴만도 하겠지.

이제 그들이 건설장에 도착하면 모두 나와서 《우리 아바이, 아바이.》하면서 제일이라고 떠받들테니까.

기관실뒤쪽에서는 몇명의 젊은 청년들이 씨름군 같이 힘풀이나 쓰게 생긴 청년을 가운데 놓고 이야기관을 벌렸더구나. 몸이 실한 그 청년은 생긴것과 다르게 덤비기까지 하면서 자기 자랑을 아주 그럴듯하게 늘어놓질 않겠니.

자기는 소연도건설장에서 첫손에 꼽히는 460호 굴착기운전공이고 창안명수인데 사업소계시관에는 자기 자신이 대문짝만큼 크게 나붙어있다는거야.

그래서 이 소연도간석지건설장에서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지 않겠니. 터무니없는 허풍꾼이지.

그는 간석지건설장의 속내는 자기만이 다 아는것처럼 희떠운 소리를 곧잘 하더구나.

간석지의 외곽제방은 어떻게쌓고 안제방은 또 어떻게 하고 장천개고의 물살은 얼마나 빠르니 석톤반짜리 볼록크를 들여놔도 80메터나 떠내려간다는등 이제 그걸 막자고 기술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락착되기는 큰 콩크리트배를 여러척 무어가지고 거기에 돌을 잔뜩 싣고 가 가라앉히는 방법이라는등 별의별 소리를 다하더구나.

배도 한척이 아니라 수십척을 덧쌓아 가라앉힌 다는거야.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다른거라면 몰라도 배를 가라앉힌다니 어디 할말이나.

그런데 이 똥똥보수다쟁이의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귀담아들으며 연신 고개까지 끄덕이는 한 제대군인이 있었다. 그는 아마 이런 간석지건설장이 처음이었던가봐. 아직 옷깃에 평장을 달았던 자리가 뚜렷한것을 보면 금시 제대되어오는 군인이 분명했어.

그는 여기 소연도의 제방이 바다쪽으로 길게 뻗어나가 맞은편에서 오는 제방과 얼마 안있으면 아주 잇닿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가는 황금나라이 물결치는 별관으로 될것이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간석지건설장으로 가던 지금의 일도 후날 사람들이 들으면 믿어지지 않는 옛말로 될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흥분해서 두손을 옆으로 벌리고 시를 읊듯이 웨치더구나.

《아, 황금바다, 이 넓은 바다가 다 황금바다로 된단말이지! 한번 해볼만한 일이지. 본때있게 해볼만한 일이야.》

제대군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그의 역실역실한 눈은 정기를 띠고 더욱 빛나더구나.

그의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서는 매우 인상적이었어.

우리 배는 계속 통당거리며 차갑고 눅눅한 안개속을 헤치고 한시간나마 잤었다. 남쪽으로부터 해무가 몰려와 점차 우리는 짙은 안개속에 깊이 묻혀버

리게 되였단다. 정말 숨이 막히게 짙은 안개였어.

이제는 소연도에 거의 왔을가 했는데 선장아바이의 거친목소리가 들리더구나.

《물길이를 좀 재보라구.》

갑판장이 삿대를 들고 선수로 달려가 바다물속을 내려쬰었는데 어떻게 되였는지 얼마 못들어가 쫓기고말더구나.

갑판장이 선장실쪽을 향해 손가락 두개를 펴보였는데 이것은 물길깊이가 두메터밖에 안된다는 뜻이란단다.

《에익, 이렇게 맹랑하다구야.》

선장아바이는 자기 선실의 출입문을 반쯤 열어잡고 안개낀 바다우에서 무엇을 찾는지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화를 내더구나. 선장아바이가 이러는것은 일이 대단히 심상치 않다는거야.

내가 선장실로 달려가 《어떻게 됐어요? 아바이!》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돼진 뭘가 어떻게 돼. 빌어먹을것.》

그는 역증을 내면서 조타앞에 있는 라침판을 주먹으로 탕탕 두드리기도 하고 앞뒤로 밀어보기도 하더구나.

분명 라침판이 고장난것이었어.

우리 배는 이때로부터 헤매기 시작했단다.

얼마 멀지 않은곳에 소연도가 있겠지만 길을 잃고 보니 경험많은 우리 선장아바이도 이 전한 젓빛 장막속에서는 더 어찌는수가 없었단다.

우리 배는 얼마 더 못가서 둔중한 충격을 받았는데 어는 갈수 없게 되였다. 감탕판에 배가 걸리고 말았거던. 우리는 배를 빼어보려고 무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별수 없었어.

벌써 날이 어둡기 시작했다.

우리를 두리싼 흰 연막이 차츰 재빛으로 변하더니 그것이 더 진해지면서 새까만 먹물로 되어버리더구나.

우리는 숨막힐듯한 어둠의 심연속에 깊이 잠기고 말았다.

손님들은 배에서 이렇게 한밤을 지내게 된것은 몹시 속상해 하면서 떠날 때부터 이러니저러니 하더니 끝내 말썽이라고 불평들을 말하더구나. 나는 그들의 말에 가슴이 절리 이사람저사람에게 사정을 설명도 하고 량해도 구했지만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었어.

나는 손님들에게 인차 밥을 지어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엌으로 달려갔단다. 그런데 이때 내 뒤를 따라온 아까 그 제대군인이 크고 우람한 체구로 취사장의 좁은 문칸을 확 채우고 서서 이렇게 묻는것이었어.

《안내원동무, 그러니까 래일도 안개가 겹쳐야 간단말입니까?》

서글서글 해보이는 그의 눈은 불안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안개가 오래야 가겠어요. 물이 불구 안개가 걷히면 래일이라도 뜰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 말고 좀 쉬세요.》

그는 나의 이런 말이 뜻밖이었는지 갑자기 소리를 내어 웃더구나.

《쉬는거야 뭐 나뺄게 없지요.

그런데 난 가야 하니까말입니다. 여기 사업소 참모부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웃습니까?… 허 참 안내원동무두…》

나는 웃지 않을수 없었어. 제대군인들은 뭐나 다 군대식으로 말하니까말이야. 《명령》은 무슨 《명령》이고 《참모부》는 무슨 《참모부》겠니.

사업소 로동과지도원이 배치장을 주면서 빨리 가보라고 한마디 했겠지. 나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해운사업소에 배치받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글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명령은 명령이구. 보시다싶이 배는 감탕판에 걸렸지, 안개는 겹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겠는데 할수 없지 않나요.》

《허참, 이럴수 있습니까? 그래 무슨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 이렇게 딱 막힐수야 있나…》

그는 어처구니없다는 뜻인지 손으로 허공을 째 내리긋더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간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서서 날더러 무슨 수를 좀 생각해내라고 지못게 되풀이하는것이 아니겠니. 너무도 뻔한걸 가지고 억지를 쓰는거지.

우리가 어느 뚜거지에 걸렸는지 배가 깨여지지 않고있는것만도 다행한 일인데…

나는 그에게 오늘밤은 마음을 꼭 녹찾혀가지고 자고나면 래일엔 일이 다 잘될텐데 《군대》가 좀 인내성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고 우습긴 해도 얼리듯 말해주었다.

그는 나의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는지 아니면 자기를 은근히 핀잔하는듯한 나의 말이 못마땅했는지 한참 덤덤히 서있더구나.

그러나 그는 불쑥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어.

《인내성이야 있어야지요. 그러나 어떻게 가긴 가야 합니다.》

그는 취사장의 문칸을 떠나 군대식의 힘찬 발걸음으로 갑판을 울리며 객실쪽으로 가는것이였어.

손님들은 오래지 않아 식사를 끝낸 다음 인차 자리를 보기 시작했단다.

더러는 객실의자에 그대로 앉기도 하고 더러는 바닥에 덧저고리를 깔고 눕기도 했단다.

뚱뚱보 굴착기공은 오늘로 부속을 못가져가면 큰 일이라고 야단이더니 의자등받이에 모로 쓰러져서 인차 드렁드렁 코를 끌더구나.

낮에 기관실뒤에서 그렇게 유쾌하게 떠들며 이야기를 하던 그 제대군인은 배가 걸린 그 순간부터 영판사람이 된것처럼 누구와 더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녁밥도 먹는등마는등하더니 또 갑판으로 나가고 말았어. 그는 배의 선수에서 선미까지 열번은 더 오가면서 어두워진 바다에서 무엇을 찾는지 배전아래를 살피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바다 멀리를 오래도록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는것이 었어.

내가 실것이물을 버리러 나갔을 때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나를 보자 가까이 다가와서 조용히 묻더구나.

《여기서 소연도가 먼데 있을가요? 꼭 가까이 있을것만 같은데…》

《안개가 걷히면 불빛이 보이겠는데 도무지 알수 없군요. 오기는 거의다 왔겠는데…》

나는 그의 침울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롱말삼아 《걱정이 많으면 빨리 늙는대요. 추운데 어서 들어가세요.》라고 했단다.

제대군인은 그저 시무룩이 웃더구나.

그는 무엇인가 나에게 말하려는것 같았지만 그만 두고 선수쪽으로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것이였어. 나는 왜 그런지 그가 좀 측은하게 생각되기도 하더구나.

남들은 이미 자는데 자기도 않고 서성거리는것을 보면 반드시 소연도에 가닿아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 또 제대로 배를 몰아 가지 못한 우리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애써 감추는 그의 심중이 어느 정도 리해되었기때문인지도 몰라.

나는 그의 뒤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인차 불을 끄고 잠이 들었단다. 축전지를 아껴써야 했으니까.

잠이 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추워서 다시 깬 때는 한밤중이 다 되었던것 같애.

나는 불이 시원치 않는것 같아서 난로뚜껑을 열어 보았는데 정말 어느새 불이 다 피웠는지 그물그물 스러져가더구나. 그래 나는 탄을 가지러 선창으로 나갔단다.

밖은 몹시 습하고 추웠어.

질게 끼였던 해무는 꿈속의 조화처럼 말끔히 걷히고 하늘에는 못별들이 총총히 드러나 반짝이였단다.

나는 우리 배가 어디쯤 있는지 그것부터 알고싶어서 사방을 휘돌러보았는데 참 우스운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찾던 소연도는 왕청같이 배가 향한 반대쪽에 있지 않겠니.

그쪽에서는 밤입을 하는 채석장의 불빛이 대낮 처럼 밝은데 그 불빛이 우리가 있는데까지 환하게 비쳐오고 바다쪽으로 뻗어나가는 제방우로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이 쭉 줄을 섰더구나. 그야말로 소연도의 작업장은 바다우에 솟아난 하나의 큰 도시와도 같았어.

내가 불야성을 이룬 소연도 건설장의 야경에 끌려 잠시 서있노라니 저쪽 선창에도 누가 있는것이 알리

더구나.

(아까 그 제대군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도 나를 알아보았는지 이쪽으로 오지 않겠니. 아니나다를까 바로 그 청년이었어.

《저기가 소연도이지요?》

제대군인청년이 묻더구나.

《맞았어요. 저기에요.》

《바로 곁에 소연도를 두고도 참...》

제대군인은 그야말로 끝없는 표류의 절망속에서 드디어 구원의 대륙을 발견한 사람처럼 막 환성을 치르다싶이 하더구나. 그리고는 두손을 허리에 척 올려짚고 아주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소연도를 그냥 바라보고 섰더구나.

그는 갑자기 저쪽 선창으로 달려가 언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던것인지 배낭을 한 어깨에 척 둘러메고 나한테로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어.

《안내원동무, 자 보오. 내가 뭐랬소. 반드시 좋은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소.

안개는 걷히고 소연도는 저렇게 손에 잡힐것처럼 가까이에 있으니 나는 이제 떠나자는겁니다.》

《??》

제대군인청년은 내가 놀라와 하는것은 전혀 보지도 느끼지도 않는지 마치 수영장에라도 온것처럼 배전에 척 걸터앉아 신발을 벗고 다음엔 옷옷까지 벗으려들지 않겠니.

《아니, 정신이 있어요?》

내가 창황중에 그의 옷을 나꿔채며 이렇게 내쏘자 그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아주 태연하게 익살까지 섞어서 말하지 않겠니.

《안내원동무, 일없습니다. 여기서서는 섬에 능히 상륙할수 있거던요. 자 보시오. 섬까지는 천메터, 해염처갈 거리는 400~500메터, 그다음은 감탕관, 물깊이는 최대 3메터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자는겁니다.》

그는 마치도 우리가 적위대훈련에 나가서 정황보고를 할 때 쓰는 그런 군대말투로 명확하게 한조항씩 또박또박 적어 말하고는 아주 능란한 솜씨로 군복을 척척 벗더니 그것을 배낭속에서 꺼낸 비닐자루같은것에 넣고 줄라매는것이였어. 이런건 다 군대에서 배운것이겠지.

(정말 해염을 치려는걸 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그는 벌써 옷주머니를 바다에 던지려고 했어.

그다음은 물속에 천병 뛰어들판이지. 나는 너무도 급해서 앞뒤를 생각할 사이도 없이 《이제 무슨짓이에요?》 하고 되알지게 고함을 지르며 그의 앞을 막아섰단다.

그 청년은 내가 이렇게까지 나을줄은 몰랐던지 놀란 기색으로 멍하니 서서 나를 한참이나 보고 섰더

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배가 못가게 된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제대군인은 성난 나를 좀 어색하게 지켜보더구나.

《그렇게 아닙니다. ...》

리해해주어야 합니다. 병사야 명령을 어길수 없지 않습니까.》

《명령이라구요. 그래 밤중에 바다에 뛰어들리는 명령은 어디서 받았어요?》

내가 가차없이 내쏘고 따지는바람에 그는 말문이 막혔던지 한참이나 어정정해있더구나.

《글쎄 뭐라고 할까... 저길 좀 보십시오. 지금 막 들끓고있지 않습니까!》

전투가 한창이란말입니다. 그런데 난 여기까지 와서 딱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볼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라 주먹까지 내흔들면서 한참씩 갑자르군하며 말하더구나.

그러나 나는 양보할수도 물러설수도 없었어.

《물에 뛰어들 생각은 하지도 말라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그래요.》

자기 말을 듣는척도 안하는 나를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그는 안절부절을 못하며 권투선수들이 그러는 것처럼 한쪽 주먹으로 다른쪽 손바닥을 딱딱 내리치기까지 하더구나. 정말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였어.

《안내원동무! 일본일초가 중요하단말입니다. 한발자욱이 중요하지요.

돌격할 때 병사가 쓰러져도 왜 앞으로만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오직 앞으로!> 이것이 병사의 량심이며 신념이지요. 아시겠지요.》

그의 마지막 《아시겠지요.》 하는 말투는 빈정대는것 같기도 하고 야유하는것 같게도 들렸지만 나는 이때 그에 응수할만한 말을 찾지 못했단다. 사실 속은 더욱 토라졌지만... 내가 이때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었겠니.

제대군인은 나를 지긋게 붙들고 설복하기 시작했단다. 나는 안내원인것만큼 응당히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할것이 아니라 리해하고 도와까지 주어야 한다는거야.

나는 끝내 내 힘만으로는 이 제대군인을 붙들어 앉혀놓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어.

할수없이 나는 선장실로 달려가 자는 선장아바이를 깨웠단다. 곤히 자던 아바이는 나의 말을 듣고 《뭘?!》 하더니 벌떡 일어나 선창으로 내려갔단다.

내가 선장아바이와 함께 다시 제대군인이 있는데로 갔을 때는 벌써 그가 선미쪽에서 물에 내려 서려는 참이였어.

《아니 이게 무슨짓이야. 정신이 썩 빠졌어?!》

선장아바이가 고함을 질렀단다.

《이 추운 때 동태짜이 되려고 그래.》

《일없습니다. 군대에서도 해염을 좀 쳐봤습니다.》

《허튼소리 말구 빨리 돌아오지 못해. 여기는 바다야 바다.》

선장아바이는 더욱 화를 내며 고함을 켜 질렀다. 그러나 제대군인은 벌써 물속에 들어서고야 말았어.

《뭘하고있어. 빨리 구명대를 가져오지 않구.》

선장아바이가 나를 돌아다보며 소리치더구나.

나는 기관실 지붕으로 달려가 구명대를 벗겨들고 바깥에 달려와 선장아바이에게 주었다. 선장아바이는 그것을 배 밑으로 던지려고 했지. 그런데 이때 제대군인이 물속에서 손을 내흔들며 웨치더구나.

《아바이, 일없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아바이는 그의 말을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아바이! 이해해주십시오.》

아바이는 당원일텐데 저의 심정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을 다투어 빨리 가야 하겠는데 잠시라도 멈춰설수 있습니까?》

《죽지 않으려거든 빨리 나와. 그런건 너만 아는게 아니야!》

선장아바이의 말은 더욱 거칠었어.

그러나 그는 물위에 던지려던 구명대를 그냥 천 채 해염치는 제대군인을 이윽히 내려다만 보더구나.

아마 더 어쩔수 없었던 모양인지 아바이는 한참 후에 혼자말처럼 중얼거렸어.

《저기로 가는 녀석들은 전랑 저 모양이란말이야.》

그의 말은 역증이 섞여있으면서도 전에없이 가라앉은것 같기도 하고 궁글은것 같기도 하더구나.

《선장아바이! 명령을 받은 병사는 어떤 조건에서도 멈춰서지 말아야 한다는거야 아바이도 잘 아시는말이 아닌가요.》 제대군인은 자기를 이해해줄듯한 선장아바이의 기미를 알아차렸던지 한결 더 고집스럽게 말하더구나.

《위험해!》

선장아바이가 또 고함을 질렀어.

그러나 그의 말은 이미 악의가 없고 맥이 빠진것처럼 들렸어.

제대군인은 벌써 배 옆을 떠나 해염쳐나가기 시작했단다.

《젠장, 죽을지 살지 모른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라구! 그쪽엔 인차 감탕관이 나질거야! 저기 불이 환한 제방쪽으로 말이야.》

《아바이. 고맙습니다. 내가 간석지관에 나르면 손전지로 신호를 하겠습니다.》

제대군인은 손을 들어 인사를 보냈단다. 그것을 보고 나는 저도 모르게 한결을 배전으로 다가서서 소리쳤어.

《조-심-하세요.》

희스무레하게 보이던 그의 모습이 차차 어둠속으로 멀어지면서 점으로 보이더니 그것마저 천천히 지워지기 시작하더구나.

어둠속을 그냥 지켜보는 나의 눈앞에는 깊이도 끌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위에 혼자 떠서 저쪽 섬의 불빛만을 겨냥하고 한정없이 해염쳐갈 그의 의로운 모습이 그냥 보이는것만 같더구나. 그러면서 혹시 힘이라도 진하면 어쩔가 하는 위구심 이 나의 가슴을 끝없이 옥죄어들었어.

《조심하라구!》

어둠속을 지켜보던 아바이가 갈리고 석심한 목소리로 고함쳤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출렁거리는 바다물면우를 천천히 미끄러져 멀리 퍼져갔지만 저쪽에서는 아무런 응대도 없더구나. 아바이는 그냥 귀를 강구고 듣다가 몇번 마른기침을 짓고는 피우던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바다에 흘집어던지는것이였어.

《내가 망녕이 들었지. 여기에다 배를 처박다니!》

나는 그의 숨결이 전해없이 높아지고 거칠어진것을 느꼈어.

《가야지. 가야 하구말구. 멈춰설수 없지...》

선장아바이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어.

《선장아바이, 일없을가요?》

내가 물었으나 아바이는 말이 없었어.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배전을 떠나지 않고 소연도쪽을 지켜보고있었다.

선장아바이는 이렇게 제대군인의 신호를 기다리며 날이 썰 때까지 배전에 서있었다.

나도 끝없이 밀려오는 마음의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 그냥 아바이곁에 서있었어. 내 가슴은 그냥 빠른해 오기만 하더구나.

순간도 멈춤이 없이 단 한결음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것처럼 어려운 길을 주저도 동요도 없이 떠나간 불같은 사람에 대한 나의 인상은 너무도 크고 강렬한것이였어.

날이 밝았을 때 나는 선미쪽에서 임자없는 배낭 하나를 발견했단다. 그건 목직한것이였어.

《아바이, 이게 그 제대군인의 배낭이 아닐가요?》

《그 사람의것이 옳겠구나. 갈 정신에 그걸 다 두고 갔군. 잘 건사해뒀라. 이제 만날 때가 있겠지.》

나는 그 배낭을 가져다 내 침대 한쪽에 소중히 보관해두었다.

×

우리가 탄 자동차는 속력을 내어 창대같은 비줄기를 뚫고 바다쪽으로 힘차게 내달렸단다. 자동차의 불빛에 드러나보이는 바다는 정말 무섭게 몸부림치고있었어. 산악같이 까마득히 울려다보이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물갈기를 날리며 제방우로 달리는 우리 자동차대렬을 겨냥해서 달려들었다가는 제방의 장

석에 부딪쳐 허리가 부러져 《우와》 소리를 내면서 물러가곤하더구나.

나는 달리는 자동차우에서 문득 옆을 스쳐지나가는 좁고 긴 판자집 한채를 보았다. 제방을 따라 길게 지은 중간휴계실이었어.

《돌직장휴계실!》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여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피륙 들더구나.

내가 그 동무를 찾아왔다가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무슨 운명적인 계선과도 같은 그 마지막 점이 바로 여기였지.

그때는 여기가 제방끝이었는데...

그때로부터 한해겨울과 봄이 지나갔으니 제방이 지금은 바다쪽으로 또 얼마나 뻗어나갔을까?

내가 그때 제대군인을 찾아 예까지 왔다 돌아간 첫에 과연 더 이어지지 않는 길때문이었는가? 아니면 시간이 촉박해서였던가? 아니였지, 다 아니 었어.

나는 달리는 차우에서 비바람이 막 얼굴을 후려치고 파도의 물갈기가 온몸에 들쭉쭉이는것도 모르고 어둠속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그 휴계실을 보며 줄곧 생각을 이어나갔다.

X

내가 제대군인청년이 두고간 배낭을 지고 그를 찾아 떠난것은 우리 배에서 그가 해염쳐 섬으로 간 다음날 늦은 점심때쯤이었어.

우리는 밀물이 들자 배를 감탕판에서 인차 뿔수는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기관에 고장이 나서 한것이나 신고를 하고야 겨우 소연도부두에 배를 댈수 있었던다.

《그 배낭을 꽤 지고 가겠니,

그 사람이 벌일없이 여기 와닿았는지 가서 꼭 안부를 알아봐라.》

선장아바이는 밤새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는 그 제대군인을 걱정하며 나를 떠나보냈단다.

《갔다 빨리 돌아오너라. 오래 기다리지 않게.》

《네.》

나는 배가 섬에 닿자마자 제2건설사업소가 자리잡고있는 섬 동쪽편기슭으로 달리다싶이 걸음을 다그쳤다.

날이 밝을 때까지 무슨 소식이 있을가 해서 어둠속을 눈이 아프게 살폈는데 그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보지 못한것은 아닌지, 선장아바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것은 아닌지 섬에 오르자 마음은 자무 초초하고 더 조급해 나기만 하더구나.

나는 배를 타고 소연도건설장을 늘 지나다니면서도 섬에 직접 올라보기는 처음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야 섬 동쪽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들어선 건설자들의 마을과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낼수 있었던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는 마침 무슨 회의를 하고 헤어지려는 참이었던지 직장일군 여러 문명이 담배를 붙여 물고 일어나 더러는 나가고 더러는 긴 의자에 그냥 앉아 이야기를 하고있더구나.

나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며 방안을 둘러보다가 가운데 책상에 앉은 직장장인 듯한 안경낀 중키의 뚱뚱한 사람앞으로 가서 인사를 했단다.

그는 무슨 통계철을 펼쳐놓고 거기에 수자들을 적어넣다가 내가 앞에 와 인사하는것을 보고 《수고했소. 이제 오는길이요.》 하며 좀 실무적이기는 하지만 반가운 기색을 보이더구나.

(이제 오다니?!)

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어. 웅당히 여기로 올 그 누구로 나를 잘못 아는것은 아닌지... 하기야 매일과 같이 수많은 건설자들이 여기로 배치받아오기도 하고 또 배치되어 가기도 하고...그렇테니까...

《저는 여기에 배치받아온 제대군인 한사람을 찾아 왔습니다.》

나의 말을 들은 간부인듯한 그 사람은 글을 쓰다가 안경너머로 나를 한참 눈여겨보더니 웃음을 지으며 몸을 젖히더구나.

《아하, 그런걸 난 또... 안됐소, 처녀동무... 그러니 면회를 왔단말이지?》

(면회?!)

나는 얼굴이 확 붉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어.

옆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나에게로 쏠리더구나.

나는 그만 몸을 돌리며 벽쪽으로 돌아서지 않을수 없었던단다.

《가만, 거기 좀 앉아있소. 내 인차 일을 끝낼테니.》

안경낀 그 사람은 자기앞의 의자를 친절하게 권하면서 그야말로 일을 빨리 끝낼셈으로 부지런히 장부책을 번져가며 글은 쓰더구나.

(어쩌나, 내가 온 사연을 한두마디로 간단히 설명할수도 없고...)

나는 웅색해서 어찌지를 못하고 그냥 선체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단다. 그러다가 어계를 내리누르는 배낭의 무게를 느끼고서야 그것을 나에게 앉으라고 권한 그 의자우에 조용히 बैठ어놓았던단다.

그런데 방안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밖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은근히 호기심을 띤 눈으로 나를 슬쩍 훑쳐보는것을 느끼자 나는 점점 더 거북스러운 생각이 들었어.

내옆에서 책상을 가운데 두고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던 네댓명의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빗대고 한마디씩 하더구나.

《어느 제대군인인지 이제 심장이 터지든가 일이 나겠군.》

《부러운데, 마음이자 얼굴이라구.》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나는 더욱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몸둘바를 모르겠더구나.

넌 내 성미가 감성적이지만 어떤 때는 엉뚱하게 당돌하다고 말했지. 그러나 이렇게 남자들앞에서 아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니.

나는 즐거운 통담을 받으며 더 있을수 없어서 가운데 책상에서 글을 쓰는 그 사람앞으로 다시 조용히 다가가 말했단다.

《...전 러객선의 안내원이예요. 우리 배는 여기로 오다가 엿저녁에 감탕판에 걸렸댔어요. 그런데 배에 탔던 한 제대군인이 밤에 여기로 헤엄쳐왔습니다.

그 제대군인이 배낭두 안가지고 그냥 왔고 또 어떻게 됐는지?...

《헤엄을 쳐?!》

장부책에 글을 쓰던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안경을 벗어들며 놀라더구나.

《여보, 돌직장장, 당신네 직장앞에 러객선이 멎어있었지. 그래 그런 사람 온게 없소?》

《네?! ... 모르겠는데요... 우리한테는 단속초소도 없구...》

한쪽구석에서 통계원인듯한 처녀와 이러니저러니 싱갱이질을 하며 이야기하던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이 나를 슬쩍 결눈질해 보며 아주 능청스럽게 말하더구나.

다음은 누구도 더 말이 없었어.

(어쩌나, 다 모른다면... 그러면 혹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것은 아닌가?...)

나는 은근히 겁이 났고 조바심도 생겨 여기 사람들이 나의 말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려고 애썼단다.

내가 찾는 제대군인은 키가 좀 크고 체구가 우람하며 눈은 특별히 서글서글하게 생겼다는것, 여기에 그가 와닿으면 전지로 신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우리 선장아바이라밤 밤을 새워 걱정했다는것, 이런것을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단다.

《돌직장장》이라는 사람은 히물히물 웃으면서 나의 말을 듣더니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하더구나.

《뭐 그런 용감한 제대군인총각이 여기 간석지판에 한둘이라고 찾고 말고 하겠습니까.

물에 뛰어들 때야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거구, 여기 왔다면 어디서 일을 할거구, 배낭은 여기다 두면 언제든지 본인의 손에 가닿을거구...

걱정할게 있습니까.》

《돌직장장》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싱거운 사람 같았어.

어쩌면 그렇게 말할수 있겠니. 전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경끈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아주 진중하

게 말하더구나.

(그가 기사장이라는것은 후에 알았단다.)

《이 동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알아봐야지 않소.》

그는 수화기를 들더니 《로동과를 좀 대주오... 통화라구?》

기사장은 잠시 기다리다가 수화기를 놓으며 《처녀동무, 거기 좀 많소. 이제 알게 될게요.》 하더구나.

《이제 나타나겠지. 엉터리없는 때군들도 없진 않지만...

어떤 친구들은 오자마자 사석정리작업장이라든가 <6. 4청년돌격대> 같은데를 내탐해가지구 먼저 떡 들어가 배겨서는 배치를 그쪽으로 떼달라고 거꾸로 올려먹이는 판이요.

그런 한심한 친구들도 있소.》

기사장이 로동과를 찾으려고 다시 송수화기를 들었단다.

그런데 직장장이라는 능청스러운 사람이 몇걸음 슬쩍 기사장 책상앞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든 기사장의 손을 움켜잡으며 허리를 굽혀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귀속말을 하지 않겠니. 이러는 직장장의 얼굴엔 노상 웃음과 익살이 넘쳐있었어.

그의 말을 듣는 기사장도 히물히물 웃고있더구나.

《여보,당신네 그렇게 자주 하면 되우.》

기사장이 일부러 정색하여 말했단다.

그러나 직장장은 역시 떼질을 하는 어린애처럼 여전히 기사장의 손을 놓지 않고 《자, 이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들겠습니까.》 하며 옆에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주의를 돌리지 않나 슬쩍 결눈 질 해보는 척하더구나.

내가 《돌직장장》의 이런 익살을 보며 웃음을 참고있는데

《이 사람이 참 엉터리군. 안내원동무네 배에서 달아났다는 그 동무말이요. 이 직장장이 가로채 가쳤소.》 하고 기사장이 나를 보면 웃더구나.

《네?! 그 동무가 어디 있습니까? 무사하겠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그쳐 묻는 나의 음성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흥분에 넘친것이었어. 이것은 참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실수였지.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내가 그렇게 놀라게 표현하고 행동해서는 안된다는거야 뻔하지 않니.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움직여지지는 않게 돼먹었는가봐.

《이직장장을 따라가오. 그러면 동무가 찾던 동무가 찾던 그 제대군인을 만나게 될게요.》

기사장이 안경을 추어올리며 별스레 의미있는 웃음을 베푼것이 지어보이더구나.

하기야 그럴만도 한 일이지. 그들의 생각으로서야 그럴수도 있었으니까.

나는 자신을 다잡고 행동하지 못한것을 후회하면서 키가 후리후리한 그 직장장을 따라 문밖을 나섰다.

《그걸 이리주요. 이런- 상당히 무겁군 그래. 그 친구 수가 보통이 아니란말이야. 비올 때 우산을 빌려주고 려해한다더니 슬쩍 배낭을 떨궈놓구...》

《아니 그렇게 아니예요...》

내가 기겁을 하면서 항변을 하려고 했지만 그럴 짬도 없이 직장장은 제 말만 계속하더구나.

《거야 뭐 그럴수 있지요. 나도 그 친구가 밤중에 제방 끝머리에 있는 우리 직장휴게실에 나타났을 때 첫눈에 벌써 마음에 들더라말입니다, 배에서 거기까지 온걸 보면 담도 크고 배짱도 있고... 우리 사석작업장엔 제격이겠더라 말이요. 그래서 내가 선손을 좀 썼지요. 당분간 현장굴착기에 가있으라고 했는데 지금쯤. 가면 한잠 푹 자고있을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던진 배낭까지 지고 여길 왔으니 만나면 거저 돌려보내지는 않을겁니다.

사람을 보니 인정도 있겠더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이지. 직장장이란 사람은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내가 지고 온 배낭을 꺾충하게 올려메고 긴다리로 성큼성큼 앞서 걸더구나.

우리는 자그마한 둔덕 하나를 넘어서 인차 채석장에 가닿았다.

채석장은 집채같은 바위돌이 짝 들어찼는데 작업수들이 그 꼭대기에 올라서서 돌우에 구멍을 뚫고있더구나.

적재장의 한쪽옆에는 막돌을 실은 대형화물차들이 쪽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우리가 차들이 있는데로 다가가자 키가 작고 다부지게 생긴 운전수가 차에서 뛰어내려 오며 《직장장동지, 이제 옵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구나.

《기계화반장이 어떻게 된 일이요. 자동차를 다 몰구.》

《그렇게 됐습니다. 회의는 끝났다는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어디 나와야지요.》

《무슨 젓먹이에들이라구. 잠깐만 어딜 가도 직장장, 직장장 하는거요.》

《그럴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게?》

이들이 몇마디 말을 주고받는데 상차를 지휘하는 빨간 수건을 쓴 처녀가 호각을 불며 차례가 되었으니 굴착기밀로 차를 빨리 들이대라고 기발로 신호를 하더구나.

바가지가 넘쳐나게 돌을 잔뜩 퍼담아들고 기다리던 굴착기가 자동차적재함이 밀에 와닿기 바쁘게 《와르르》 쏟아붓더구나. 그것으로 벌써 반집이 되었어.

나와 직장장 돌이 다 운전칸에 타자 자동차는 바다를 가로질러 곧추 뻗어나간 제방길우를 힘있게 달

리었다.

《07호해상굴착기말입니다. 그제 사석정리작업장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몰며 기계화반장이 말했어.

《07호가?! 가긴 어떻게 가?》

《수리작업을 끝냈지요.》

《뭐 꿈같은 소리. 수리공이 언제 왔길래.》

직장장은 심드렁하니 말하고 담배만 피우더구나. 그러다가 영문을 모르겠다는듯이 눈을 크게 뜨고 기계화반장을 바라보는것이였어.

그러나 반장은 말없이 앞을 보고 그냥 운전만 하더구나.

《그래 07호수리를 어떻게 했다는건가?》

직장장이 끝내 참지를 못하고 다시 물었다.

반장은 왜 그런지 옆에서 듣는 내가 다 답답할 정도로 그냥 입을 봉한채 차만 몰더구나.

얼마쯤 이렇게 그냥 가다가 반장이 천천히 말을 뗐어.

《밤에 간석지판에 배가 걸려서 헤엄치구 걸구 해서 왔다는 그 해군상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이지요.》

나는 반장의 말이 놀라와 그쪽을 보며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 동무는 해상굴착기에 가서 쉬라고 하자 거기에 올라가서 기관에 고장이 나 움직이지 못한다는것을 알았지요.》

그는 그때부터 이것저것 점검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침 고장을 발견하자 그는 쉴념도 하지 않고 달려붙어 고쳐냈지요.

그러니 거기 사람들이 가만있을 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고 뭐고가 있습니까. 그 동무가 다른 동무들을 다 선동해 가지고 끝내 고쳐서 끌고 나갔지요.》

《뭐 끌고가?!》

그렇게 주눅이 좋던 직장장은 그만 눈이 커져서 멍해있더구나.

《그 친구가 해군에서 기관수리공이었던게로군.》

한번 본때있게 해보겠더라니 빈말이 아니였군...

배를 끌고 갔단말이지.》

(가다니, 어디로 갔단말인가?)

이럼 생각을 하는 사이에 우리가 탄 차는 이미 제방끝에 와 닿고말았다.

나와 직장장은 차에서 인차 내리고 차는 회전대차에서 돌려 가지고 뒤걸음질을 하여 싣고 온 돌을 바다에 부리웠다.

물기둥이 솟구치며 집채같은 돌이 바다물에 쏟아져 들어가는것이 장관이였어.

불도젤 한대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자동차들이 싣

고 와 부리는 흙과 돌을 바다에 밀어넣더구나.

나는 이 제방끝머리 공사장이 실로 한치한치의 땅을 늘구면서 망망한 바다를 정복해나가는 예리한 총창의 끝과도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직장장동지! 여기서 더 가야 합니까?》

아까부터 멀리 바다 가운데서 일하고있는 몇척의 굴착선과 해상 기중기를 지켜보고있는 직장장에게 나는 참을수가 없어 재촉해물었다.

《더 가야지요. 가야 하구말구... 저기 왼쪽에 보이는 배가 07호입니다. 그 동문 저기 있으니까요.》

직장장이 손을 들어 가리켰어.

《또 떠 났군요...》

나의 입에서는 부지중 이런 말이 새어나왔어.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이 간석지건설장에서는 이렇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 좀 있기는 한데... 참 사람두... 지금은 전마선도 없구 어떻게 한다? 좌우간 저 휴계실에 가서 좀 기다리시오.》

직장장은 이미 건설한 제방을 따라 길게 나무판자로 지은 현장휴계실쪽으로 성큼성큼 앞서 걸어 가는 것이었어.

나는 이때 선장아바이가 나를 기다리고있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 시계를 들여다보았단다. 벌써 여섯시가 넘었더구나. 어쩔가 망설이다가 《직장장동지.》 하고 저쪽 간 그를 찾았지.

《저는 돌아가야겠어요.》

직장장은 나의 말을 듣고 멈춰서서 의아해하더구나.

《기왕 왔던 길인데 되돌아가다니... 이 건설장에서 사람찾기가 그리 쉬운줄 아오. 뽕두 딸겉 늪도 불겉 왔던김에 건설장 구경도 하면서 좀 기다리시오. 내 이제 무전으로 그 친구를 당장 불러올테요.》

직장장은 손세를 써가며 또 익살을 시작하더구나.

나는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그 체대군인을 무전으로까지 찾으며 소문을 내면서 만나는데 어쩐지 쑥스럽게 생각했어. 더구나 그런 소동이 나로서는 확실히 분수없는 행동으로 생각되었기때문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단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은 십분 옳았던것 같애.

《직장장동지, 전 돌아가야겠어요. 배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이 배낭을 건사했다가 그 동무가 오면 전해주십시오.》

《아니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갈수 있소?》

직장장이 어쩔줄을 모르며 나를 잡아두려 별의별 소리를 다하더구나.

그래도 나는 할수 없었어.

난들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고싶진 않았지만...

그러나 쉬지도 않고 고장난 배를 시간을 다투어 고쳐가지고 떠났다는 그 체대군인 청년, 지금도 해상굴착선에서 땀을 흘리며 온 정신을 모아 일에 몰

두해있을 그를 내가 어떻게 찾겠니. 그를 오라고 한다는것은 내가 이미 우리 배에서 그의 앞을 막아서며 못간다고 붙들던 그 경우와 무엇인가 상통하는것이 있는것 같아 나는 그를 찾아달라고 할수 없었던다.

그가 있는 굴착선을 바라보면서도 것처럼 찾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를 지척에 두고도 만날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아마 너는 짐작하지 못 할거야. 사실 거리는 얼마 멀지 않아도 그와 나 사이는 아득히 멀어져 보였기때문이야. 격동하는 우리 시대, 어렵지만 또 그만큼 보람찬 초소의 맨 앞장에서 달리는 그가 얼마나 장쾌해보였던지. 시대의 첨단에서 청춘의 심장으로 새로운 위훈을 새겨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모두의 자랑이 아니겠니. 사실 그를 찾아 떠날 때만 해도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꼼꼼히 돌이켜보니 선뜻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 사실 만만다고 해야 무슨 말을 하겠니. 내가 아직 그의 큰결음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나는 앞서간 사람을 만나려면 적어도 그들의 높은 지향에 자신을 따라세워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야 심장이 하나의 맥박으로 높뛰고 걸음도 맞출수 있다는것을...

그래서 나는 그날 돌아서고말았어. 하지만 앞으로 그를 꼭 만나리라고 마음다지면서...

나는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면 이번 휴가라도 이 들끓는 간석지건설전투장에서 보내기로 다짐하였지. 이렇게 생각하고나니 나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

그래서 나는 결국 직장휴계실까지 왔다가 되돌아가고말았지 ...

×

비속을 뚫고 폭풍을 가르며 내가 탄 자동차는 제 방향으로 달려나갔단다.

지난 초겨울에는 내가 저 집 앞마당에서 되돌아섰지만 지금은 제방이 더 멀리 바다쪽으로 뻗어나갔고 나도 새로 이어진 이 길을 따라 더 멀리 앞으로 달려간다. 나는 전진하는 대오의 한 성원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 나는 이것으로 하여 공지가 있고 보람이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동안 이미 우리가 탄 자동차가 제방의 끝에 와닿았단다.

우리는 앞뒤를 분간하고 생각할 사이도 없었어. 마치 조난당한 작은 배에 탄것처럼 파도는 우리를 덮쳐 삼킬듯이 달려들어 물벼락을 뒤집어쳐우고 태풍은 당장 바다속에 처박을듯이 미쳐날뛰더구나.

선옥아,

생각해봐라, 태풍을 안고 몸부림치며 미친듯이 달려드는 이 파도, 이 바다와 맞선다는것이 말처럼 험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실로 생명을 내건 필사의 투쟁이 아니면 안된다. 우리가 일하는 여기로부터 소연도까지는 날 바다로 근 심리가 되는데 그 어느 구간, 어느 지점이 이 드세찬 파도를 이겨내기 못하고 끊긴다면 우리는 모두 날바다 한가운데 갇히고말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때 그런 상각을 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던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올수도 없었을것이다.

나와 함께 차에서 내린 동무들은 작업지시도 받기 전에 파도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막돌과 흙을 넣은 가마니들을 무너지는 제방쪽으로 메여 날라갔었다.

나도 그들속에 끼워 막돌을 날랐어.

어느때 같으면 내 힘으로는 꼼짝도 못할 그런 큰 돌들을 닦음 들어옮기곤했어.

참으로 힘이란 무진장한가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한치의 땅, 한치의 제방을 지켜나가겠는가, 어떻게 하면 아직 블록과 장석을 채 입히지 못한 벌거숭이 제방을 파도에 끊겨나가지 않도록 지켜내겠는가 이 한가지 생각뿐이었어.

《자 동무들, 두시간만 더 견지합시다. 이제 날이 밝으면 물이 쪼입니다. 모두 용기를 냅시다!》

누구의 웨침소리가 파도의 울부짖음보다 더 높이, 더 우렁차게 들려왔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초인간적인 힘을 불러일으키는 그 힘찬 웨침소리가 들리는쪽을 돌아보는 순간 나는 너무도 큰 충격과 기쁨으로 놀랐어.

그가 바로 그 제대군인이 아니였겠니.

나는 귀를 강구며 그의 다음말을 기다렸었다.

《동무들, 여기에 황금파도가 물결칠 래일의 풍요한 대지를 눈앞에 그려보며 용기를 냅시다. 이 사나운 바다를 황금바다로 만드는 성스러운 싸움에서 우리 청년건설자들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립시다.》

그는 두주먹을 머리에 높이 들고 힘차게 웨쳤었다.

여기저기서 그의 호소에 호응하는 웨침소리가 터져나왔어. 실로 그것은 어둠을 가르고 파도를 짓누르며 온 천지에 메아리쳐갔어.

그는 든든하고 역세게 생긴 몸으로 달려드는 파도와 꺾꽂이 싸우며 동무들이 섬겨주는 돌을 받아 제방의 아래굽이를 쌓아나가고있었다.

어쨌든 큰 파도가 물갈기를 날리며 그를 등뒤로부터 달려들어 사정없이 덮쳐누를 때마다 나는 마음을 조이며 지켜보곤했었다.

그는 파도속에서 용케 다시 솟구쳐 나와 여전히 바위들을 안고 또 제방쪽으로 날라가곤했어. 참으로 불사신이라면 저런 사람, 저런 인간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피가 나도록 입술을 꼭 감쳐물고 불에 황황 이는 눈으로 앞을 쏘아보며 한치 또 한치 장석을 쌓아나가는 그 모습... 파도도, 그 무엇도, 그 어떠한 힘도 어쩔수 없는 사람!

내가 그에게서 받은 인상은 참으로 크고 강렬한 것이었어. 그것은 언제나 나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을거야.

X

드디어 먹물같이 진하던 어둠이 스름스름 희어지면서 하늘이 들리고 날이 밝기 시작했었다.

바람도 어지간히 힘이 진했는지 혈떡이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당장 푹을 삼켜버릴듯이 아우성을 치며 달려들던 파도도 이제는 어쩔수 없었던지 한풀 꺾여 허세만 부리면서 으르렁대더구나.

드디어 썰물이 지기 시작했어.

5시간의 전투끝에 휴식구령이 내려졌었다.

남동무들은 이런 때 담배라도 한대 척 붙여 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겠지만 밤새 바다물속에 잠겨있던 그들에게 어디 실 한오리 마르게 있었겠니.

그들은 여기저기 물켜서서 이야기판을 벌리기도 하고 젖은 옷을 벗어 짜기도 하더구나.

처녀들도 기진했지만 가슴뿌듯이 젖어드는 보람으로 모두 밝게 웃으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었다.

나는 그들이 부러웠어.

나도 이때처럼 자신이 장해 보이기는 처음이 었어.

그런데 내가 올라선 쪽우에서 남동무들 한패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와》 하고 환성을 지르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더구나.

나는 잠시 주춤하고 그쪽을 보았었다. 거기서는 크지 않은 키에 옆으로 딱 벌어진 뚱뚱보청년이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동무들에게 담배를 나누어주고 있더구나.

남동무들은 기적같이 생겨난 담배를 보더니만 너무도 좋아서 어쩔줄을 모르고 떠들어대는데 뚱뚱보청년을 그들에게 담배를 한대씩 나누어주면서 뭐라고 룡말을 건넌지 때 사람이 담배를 받을 때마다 연방 웃음이 터지곤했어.

그 뚱뚱보청년이 웃으면서 내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도 나를 알아보았어.

정말 공교롭다고 할가. 우리 배에 탔던 그 희떠운 뚱뚱보청년이 아니겠니.

나는 반가웠지만 어쩐지 많은 사람들앞에서 그를 만나기가 쑥스러워 푹길을 그냥 내쳐 걸었었다.

그러나 내가 얼마 못갔을 때 《안내원동무!》 하고 그가 나를 찾더구나.

《오래간만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길 다 왔습니까? 그렇지. 지원전투를 나왔군요. 우리 돌격대장동무를 만나봤습니까? 아주 기뻐할겁니다.》

(돌격대장이라니?)

내가 누군지를 몰라 어정쩡해있는것을 보고 그가 《선길동무말입니다. 배에서 밤에 도망을 쳐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질 않겠니.

《그 동무 이름이 선길인가요?》

《예, 우리 <6. 4청년돌격대> 대장이지요. 사로청 위원장이구.

내 그때 여길 오자마자 동무들의 부탁대로 따졌지요. 왜 도착신호를 안했는가구 했더니 전지에 물이 들어가 그만 고장이 났다는게 아닙니까. 허 참,

난 그 친구때문에 하마트면 돌격대에서 쫓겨날뻔 했답니다.》

《동무가 우리 배에 탔을 때처럼 또 잠만 잤기때문이었지요.》

《아 아닙니다. 이 덕만이가 그때 그만 실수를 해서 잠은 좀 잤지만 어림이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돌격대장동무가 도망을 쳤단말입니다. 도망을…》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저 웃고말았다.

《도망을 치다니요?》

《그러니 문제라는겁니다.》

덕만이란 청년의 말을 듣고서야 다리를 상해 입원했던 선길동무가 나홀만에 《도망》쳐서 다시 섬으로 갔다는것을 알게 되였어. 물론 병원담장을 넘겨준 《공모자》는 덕만동무였지…

병원을 나온후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덕만동무도 말하지 않더구나. 필경 그 무슨 기술혁신 안때문에 바빠났던 모양이야.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선옥이 네가 찾던 그 용서할수 없는 도망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걸 알게 되였어.

나는 은근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게 병원에서는 잃어진 사람들을 찾지 않던가고 불었다.

《왜 찾질 않겠습니까. 간호원이 전화를 걸어오고 사방에서 소란을 피웠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를 어쩔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데 속은 불덩이가 막 이글거리는 사람입니다. 순간도 가만 있지 못합니다. 저길 보십시오. 또 날 찾는걸.》

굴착기운전공이 가리키는쪽에서는 이미 작업을 끝낸 기중기차들이 다음 작업구간을 향해 바다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가기 시작했었다. 그 전진하는 대오앞에서 길을 잡아나가는 사람은 다름아닌 제대군인 그 청년이었어. 정말 그가 이쪽에 대고 무어라고 찾는것 같았지만 그 소리는 들리지 않더구나.

《어려운 모퉁이면 언제나 우리 대장동무가 있지요. 그래서 동무들이 다 좋아하는지도 모르지요. 이제도 자기 품속 어디에 깊숙이 간수했던 담배를 꺼 내주면서 <친구, 심부름이라고 생각지 말고 좀 갔다와야겠어. 이걸 저 동무들에게 한대씩 나눠주라구, 사로청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라구 하면 좋지 않을테니 덕만이가 한턱 낸다구 하면 좋아들할거야.》 하더군요.

어제저녁에도 굴착선을 대피시키자마자 당장 이리로 나가자고 충동질을 했거던요. 항상 들볶아 대

면서 야단이지요. 빨리 가보아야 하겠습니까.》

똥똥보청년이 그에게로 달려갔었다.

나는 끌리듯 그가 간쪽을 바라보며 오래 서있었어. 《글쎄 내 비슷하다 했지. 안내원동무군.》

이때 내옆으로 지나가던 웬 커큰 사람이 나를 한참 눈여겨보더니 반색을 하며 말하는것이였어.

긴 비옷을 입고 다 젖은 모자를 꼭 눌러써서 처음엔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가 《돌직장장》이더구나.

《…그러니까 지원전투를 나왔단말이지요? 잘 했소. 뽕두 딸검 님두 볼검…》

(또 그 말이군, 아이참.)

나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여 얼굴이 확 붉어지고 가슴이 뛰는것을 느꼈어.

《오늘이 지원전투의 마지막 날인데 왜 그사이 우리한테는 오질 않았소. 난 약속을 다 지켰는데… 배낭도 전달하구 필요한 설명도 다 하구… 그래 그를 만나봤소?》

《네.》 나는 이렇게 짧게 대답했었다.

왜 그랬을까?… 그건 나도 몰라… 만나지도 못한 그 사람을 왜 만났다고 했는지…

방송차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자 또다시 블록을 실은 대형화물차들과 기중기차들, 불도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었다.

《우리 돌격대장은 배짱이 있고 사람이 좀 거친것 같아도 아주 살뜰한데가 있는 사람ियो. 나무랄데 없는 청년ियो.》

직장장은 나를 보고 의미있게 싱긋 웃어보이더구나. 《후에 또 만나지요.》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전진하는 대오를 따라 제 방쪽으로 성큼성큼 가는것이였어.

제대군인청년은 움직여나가는 대오의 앞장에서 길을 살피며 기중기차를 이끌고 제방끝쪽으로 나가고있었다.

나도 그와 나란히 걷고싶은 심정으로 뛰여갔어.

바다를 건너 다시 돌아와야 할 날이 바로 그날 이라는것도 잊고…

나는 이때로부터 저 간석지건설장을 무심히 보지 않는다. 나는 이때로부터 여기로 오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을 더없이 친근하게 대하게 되였어.

얼마나 미더운 사람들이냐!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냐! 제방을 때리는 파도소리가 지금도 나의 가슴을 팡팡 울린다.

나는 바다를 가르고 전진해나가는 이 대오와 함께, 잊을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언제나 전진하고 싶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선옥아!

아직 못다한 이야기는 후에 쓰마.

우리 배는 또 손님들을 태우고 떠나야 한다.

우리의 우정을 생각하며 다음 편지를 기다려다오.

이도포에서

정희 보낸

신들메를 조이자

설진기

얼마전에 나는 출판사로부터 《80년대속도》에 관한 수필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80년대속도》!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제목이어서 그랬던지 아니면 내 재능의 부족때문이었는지 좀처럼 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온 나라가 떠들고있는 《80년대속도》를 두고 너무나도 사색이 부족했었구나- 하는 자책에 이어 이번 청탁을 물리쳐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이 물밀듯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불현듯 나의 머리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구절이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군속도,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앙양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어서 가보자- 금골방으로!

《80년대속도》창조의 봉화 드높은 제3선광장으로!

부라부라 차비를 서둘러 렬차에 몸을 실은 나의 머리속에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검덕제3선광장의 웅장한 모습이 환상의 날개를 달고 꽃구름처럼 펼쳐졌다.

구름의 광란이 심하다고 하여 그제날에는 운룡덕이라고도 했다는 해발 1200고지- 운룡덕, 1년에 천만톤의 광석을 처리한다는 세계굴지의 대선광장, 강철뿔만 해도 한대에 보통자동차 30여대분이 들어간다는 특대형마광기, 축구경기장의 두곱을 훨씬 넘는다는 부선장의 기계바다!... 아, 얼마나 가보고싶어 조바심치던 그 건설장인가!

허나 건설은 이미 다 끝나고 지금 나는 완공된 모습을 구경하러 가고 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의 유감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온 나라가 검덕을 향하여 지원의 열정을 내뽐고 있을 때 나도 이 시대 청춘으로서 반드시 그곳에 충성의 구슬땀을 보탬하리라- 버르고 버르다가 종시 실천에 옮기지 못한채 인제 비로소 지척인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나의 송구스러움 또한 달랠길이 없었다.

참으로 방대한 그 건설공사가 이다지도 빨리 끝나

버릴줄은 미처 모르기도 했었다.

그사이 신단천건설장에 나가있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놓고 자신을 변명해 보아도 량심은 좀처럼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를 않는 것이었다.

울렁이는 가슴을 안고 현지에 도착하여 마침내 눈앞에 바라보게 된 선광장의 웅장은 나의 환상을 훨씬 초월한 것이었다.

운룡덕은 이 세상 가장 높은 산정인듯 천하가 발아래에 내려다보였고 성벽처럼 줄줄이 일떠선 선광장 건물들과 수백세대의 선광동살림집들은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였다. 특대형마광기는 하나의 산악 같았으며 부선장은 망원경이라도 있었으면싶은 그 야말로 기계바다였다!

기계는 바다처럼 설레었지만 그 기계들을 운전하는 로동자들의 모습은 동해바다에서 갈매기보듯처럼 눈에 띄여보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자동화, 원격조종, 기대옆에 앉아있는 처녀운전공들... 모든 것이 그저 신비스러울뿐이었다.

나는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 산정으로 오르시여 선광장을 부감하시였다는 력사적인 자리에다 다가가 보았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이것이 바로 《80년대속도》이라고, 세계건설력사에 없는 기적이라고 긍지로이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았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시대의 진두에서 달리고있는 거창한 화폭앞에 서있음을 심심히 느꼈다.

그렇다! 오늘 이 세상에서 바른 속도, 다름아닌 우리의 《80년대속도》가 바로 여기에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앞서나가고있는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첨단을 달려가고있는 운룡덕!

그리하여 나는 여기서 온 나라를 굽어본다. 여기서 《80년대속도》창조의 숨결을 안아본다.

사람들이여 어서 여기로, 기적과 혁신이 나래치는 여기로 오시라! 여기 와서 세상으뜸의 속도, 《80년대속도》창조의 발구름소리를 들으시라.

여기 와서 나는 이곳 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었다. 열밤이 새도록 쓰고 또 써도 그 이야기를 다 적어내지는 못하리라.

나는 다만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 설계가에 대한 이야기만을 여기에 옮기려 한다.

채굴공업 발전력사가 기록하고있는 기존상식으로 생각한다면 10년은 실히 걸려야 한다는 방대한 건설

과제를 단 1년동안에 해제긴 힘은 과연 무엇이였는가.

설계만 해도 빨리 하는 경우 1년이상 걸리며 공사준비기간 역시 1년이상 걸리는것으로 알려져있는 이 공사!

검덕의 건설자들은 작업량을 놓고 필요한 건설기간을 정한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건설속도를 정하는 우리 식 계산법으로 모든 공사를 밀고나갔던것이다.

광업설계연구소 설계가들은 공사준공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매 공정에 필요한 날자를 꺼꾸로 떼여 낸 후 나머지 날자들 설계완성날자로 정하였다고 한다.

그 날자는 보름뿐이었는데 당장 착공해야 할 마광사건축설계는 단 하루밤사이에 끝내야 하는것으로 되였다.

허나 설계가는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에게 래일 아침부터 공사를 어김없이 시작할수 있게 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였다. 그 시각은 밤 12시였다.

이튿날아침, 돌격대원들은 약속된 시간에 현장으로 달려나갔으나 설계가를 찾을수 없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바빠서 숨기라도 했단말인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돌격대원들은 동관우에 줄을 띄워놓은 기초자리와 기둥을 세울 표식을 해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어 한쪽구석에서, 수첩과 콤팩트를 전체 말뚝잡이 든 설계가의 모습도 발견하였다. 직접 땅을 파보며 기초심도를 확정했을 설계가의 그 모습!

그 모습을 뜨겁게 바라보던 지휘일군은 설계가의 단잠을 깨울세라 나직이 말하였다.

《동무들, 설계가는 종이가 아니라 땅우에 직접 설계를 하였소! 우리도 우리 식대로 이 마광사를 건설하여 <80년대속도>를 창조합시다!》

이리하여 그들은 선광장건설에서 처음으로 미끄럼식시공법을 도입하기로 결심하였고 단 두달안에 마광사를 일떠세우는 기적을 낳았던것이다.

이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도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대속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익히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아니, 이대로 펜을 놓기엔 너무도 아쉽다. 한 청년건설자의 일기의 한토막만을 더 상기해보기로하자.

함남도 사무원돌격대의 한 대원을 몸에 열이 있어

숙소에 눕혔다는 소식을 듣고 지휘관이 그의 숙소로 찾아갔을 때 환자는 없고 퍼놓은 이부자리 우에는 보풀이 인 일기장만이 놓여있었다.

일기장에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다음과 같은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날씨가 몹시 춥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몸엔 땀만이 흐른다.

의사는 내 몸에 열이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심장이 끓고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심장이, 80년대에 청춘을 맞이한 네가 당을 위한 불덩이가 못된다면 너는 벌써 고동을 멈춘 심장이리.

나의 청춘아, <80년대속도>를 창조하는 길에서 네가 주저하는것이 있다면 너는 벌써 병든 청춘이리. 내 살아도 죽어도 이 길에서 행복을 찾으려다. 전우여! 내 만약 높은곳에서 쓰러지면 붉은기를 덮어다오. 심장이 재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그보다 빛나는 삶이 또 어디 있으랴!》

이 밤, 일기의 주인공은 눈보라 휘뿌리는 철지붕우에서 충성의 구슬땀을 방울방울 쏟아부으며 새 날을 맞이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심장들에 의하여 《80년대속도》창조의 시범이 이룩되었던것이다!

얼마나 뜨거운 심장들인가!

얼마나 빛나는 청춘들인가!

그들의 구슬땀이 습배인 이 땅에 와서 나는 삼가 머리를 숙이며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라!

나의 가슴은 그들에 대한 부러움으로 가득차있다. 가장 떼떽한 사람들!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렇다. 오늘 우리 시대에 《80년대속도》의 창조자들, 《80년대속도》창조의 기수들보다 다 자랑차고 행복한 사람들이 또 누구이랴.

나도 영광의 그 대오에 떼떽이 들어서기 위하여, 어서 빨리 그러한 행복을 지니기 위하여 이내 심장을 더욱 강렬히 불태우려다! 조국의 어느 초소에 서있든지 시대의 이 거세찬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신들메를 든듯히 조이자!

내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으리라. -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며 나는 결심도 새로이 운운덕을 내렸다.

검덕에서

갈꽃질때

림길명

1

편지를 읽고난 순영은 어쩐지 가슴이 막 설레어와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서늘한 가을바람에 하르르한 문발이 기폭처럼 날리었다. 순영은 저도 몰래 붉어진 얼굴을 애기손같이 부드러운 그 문발에 묻어버렸다. 어머니가 써보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되살아났던것이다.

《…순영아! 네가 천수리프락포르 중대장한테 말이 있어 한다니 집안식구들도 모두 찬성이다. 글썄 대학을 나온 네가 로동현장에서 대상을 택하였다니 얼마나 훌륭한 일이나. 이번에 진펄개간이 끝나면 그 사람을 꼭 데리고 오너라. 과년한 딸을 둔 부모들의 심정이란 하루가 새롭단다.》

(어머니두 참!)

순영은 때없이 안겨드는 행복감을 가슴 한가득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문화주택지붕들너머 누런 벼이삭들이 불을 비비며 설렁대는 설렁대는 농장벌이 한눈에 안겨왔다. 논벌과 경계를 이룬 강둑 저 멀리로는 개간이 끝나 바둑판같은 논배미들로 이루어진 갈매벌이 아득히 펼쳐졌다. 수천년 갈숲에 묻혀있던 진펄땅이 옥답으로 전변된 것이다.

머지 않아 황금이삭이 물결치게 될 개간지를 바라보노라니 순영의 생각은 자연히 깊어진다.

해묵은 갈숲에 새순이 돋아나던 이른봄, 피피한 진펄땅에 프락포르의 첫 보습을 박던 때가 어제같다. 그동안 프락포르 한개 대대를 이끌고 감탕발인들 얼마나 걸었으며 허허벌판에서 프락포르와 함께 밤을 새운적은 또 얼마였던가. 꼬리라도 문뚝 연신 진펄에 빠지는 프락포르를 끌어내다가 밤이 깊으면 감탕투성이 된채 우등불가에서 족잠을 자기도 하였고 비가 억수로 쏟아져 온 대대의 프락포르들이 진펄에 갇혀 이틀이나 운전칸에서 내리지 못한적도 있었다.

실로 간고한 나날이었다. 그러나 거기엔 그의 행복과 기쁨도 깃들어있었다.

라관적인 젊은이들의 불타는 심장으로 진펄을 다져가는 이 나날은 또 얼마나 많은 랑만에 찬 이야기와 노래로 이어졌던가!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사랑도 맺어졌던것이다.

군적으로 제입 골머리 앓던 진펄개간도 머지 않아 끝나게 된다. 개간자들의 땀이 스며여있는 또 하나의 기름진 새땅을 나라에 바치게 된다. 그러면 자랑높이 새로운 새땅찾기전투장으로 떠나게 될것이며 그의 빨간 뚜껑으로 된 자그마한 사업수첩에는 깨끗한 필체로 쓴 《완결》이란 글자가 또 하나 늘어날것이 아닌가. 그땐 어머니는 영석동무와 함께 고향

에 들릴 이 딸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평생 홀로 산 어머니로 놓고 보면 이 딸은 유일한 사랑이었고 희망이었다.

《…내 새 사위감이 키가 큰지, 얼굴은 넓적한지… 보고싶으니 사진이나 보내렴.》 얼마나 보고싶으면… 보시면 꼭 기뻐할거야. 키도 크지, 얼굴은 미남까지는 안되여도 남자답겐 생겼지, 눈은 또 얼마나 억실억실하게…

순영의 마음은 구름우에 두둥실 뜬듯이 들떴다.

순영은 마음을 다잡으며 창문가에서 돌아섰다. 멀리 미개척지에서 날아온 갈꽃이 조용히 창문을 두드린다. 아직 각 중대들에서 끝내지 못한 진펄 개간을 추위가 무쳐 오기전으로 빨리 결속지어야 할 마지막 과업이 남아있다.

순영은 어저께 중대장들의 협의회에서 그 마지막 진펄개간면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하였었다. 그것만 끝내면 그들은 국가 계획을 초과 완성하게 된다.

《이번엔 그이가 틀림없이 국가수훈의 영예를 받을거야.》

순영은 《이번 임무수행에서 천수리중대장이 정말 수고 많았소. 정말.》

하던 기사장의 말이 떠올라 얼굴을 활짝 붉히고 해죽 웃었다.

책상앞에 마주앉은 순영은 펼쳐진 사업수첩의 계획란에 《완결》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넣으려고 쌍원주필의 빨간색 절개턱을 살짝 늘렸다. 찰칵소리와 함께 뽕죽한 속심끝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순영은 손을 멈추고 얼른 고개를 돌렸다. 뜻밖에도 문을 열고 들어온것은 천수리중대 처녀 프락포르 운전수인 옥진이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왔니?》

《기름타러 왔됐어요.》

《그래!》

순영은 방금 디젤유통을 싣고 들어온듯 손잔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는 옥진을 반겨 맞다가 그의 갈래머리에 눈길이가자 혀를 찼다.

《에이, 이 말괄량이야. 언제나 제몫 처신을 하겠는지.》

며칠전엔 그가 시간을 내여 갈라서 따주며 신신당부하였는데도 지금 그의 머리는 되구마구 머리뒤통수에 궁쳐져 흔들대고있었다.

《자, 내가 다시 따주마, 어서.》

《아이참, 언니두 일없다는데두요.》

《일없긴 이리 오너라!》

순영은 끝내 옥진이를 의자에 앉히었다. 옥진이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그였다. 하긴 중대에 하나뿐인 처녀트락포르문전수이고 또 멀지 않아 순영의 시누이 될 옥진이고 보면 그럴만도 했다.

《아무리 바빠도 머리단장을 제대로 하고다녀야지. 처녀라는게 그렇게 팔랭이가 돼서 총각들이 뭐라 하겠니?》

순영은 옥진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풀어 곱게 빗어 내리며 그의 옆얼굴을 웃음어린 눈길로 훑쳐보았다. 다른 때 같으면 간지럽다고 깔깔 웃어대었을 옥진이나 웬일인지 시무룩해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순영은 의아쩍게 물었다.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뭔데?》

《무등개진펄을 개간면적에서 빼버리기로 했다는게 정말이에요?》

《요- <물귀신진펄> 말이나?》

순영은 새삼스럽게 되뇌었다. 무등개진펄로 말하면 옥진이네 중대가 맡은 개간 구역안에 속한 두어 정보 잘되는 진펄이다. 조금만 비가 와도 높이 되어 버리군하여 《왕진펄》이라 불리우는 곳이다. 옛 날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 진펄을 불러 《물귀신펄》이라고 하였으며 낮에조차 얼썩하기 두려워했다. 그래서 측량 당시부터 지휘부에서는 《왕진펄》을 개간할수 없는 땅으로 측량을 보류해왔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순영은 그 《왕진펄》은 개간면적에서 아주 빼버렸던 것이다.

순영은 곱게 다듬어진 갈래머리를 곱게 빗어 허리를 잘룩하니 고무줄로 묶어주고나서야 입을 뻗었다.

《그래 의견이 있니?》

《왜 무등개진펄을 개간면적에서 빼버리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당장 무등개진펄을 개간하고싶다. 하지만 어디에도 지질학적으로 탐사된 자료가 써여있지 않는 그 왕진펄에 트락포르의 보습을 박는다는건 모험이야. 지휘부에서도 다 예산이 있어 계획에서 뺄것을 동의하지 않았니.》

《그럼 같이시험이라도 해보아야지 않겠어요?》

《같이시험?》

순영은 가볍게 웃었다.

《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래 오빠와 토론해보았니?》

옥진은 입술을 잘근히 깨물기만했다. 벌써 오빠한테 말했다가 안되어 그를 찾아온것이라고 생각한 순영은 시뻘히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것 봐라, 되지 않은걸 괜히 생각지도 말아라.》

《그럼 <왕진펄>을 영영 개간할수 없단말이에요?》

갑자기 옥진은 눈물이 그렇그렇해지며 순영이를 쳐다보았다.

《글쎄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후세사람들이 해낼지도 모르지.》

《뭐라구요. 아니 어찌 그렇게 말할수 있나요. 무책임하게 네?》

옥진의 알수 없는 감정의 급변앞에서 일순 당황해진 순영은 공연히 책상우의 사업수첩을 앞으로 끄당겨놓았다. 할말이 없어진 옥진은 안타까이 순영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야릇한 침묵이 흘렀다. 창문으로 날아들어온 눈송이같이 흰 갈꽃이 순영이의 사업수첩장우에도 사뿐히 내려앉았다. 아직 개간이 채 끝나지 않은 저멀리 천수리의 갈밭에서 날아온 갈꽃이었다.

순영은 글을 쓰려다 말고 수첩장우의 갈꽃을 입으로 불어버렸다. 갈꽃은 홀 날아올랐다가 숨가진 곤충처럼 하늘하늘 춤추며 다시 책상우에 내려앉았다. 장난꾸러기 같은 그 갈꽃을 어떻게 털어버릴가 하고 생각하는데 문득 회억을 더듬는듯한 옥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언젠가 이 진펄에서 갈꽃이 영영 없어진다고 하였지요?》

《그래!》

순영은 얼굴에 대답하며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옥진의 검은 속눈썹이 바르르 떨고있었다.

《전, 언니의 말대로 꼭 그렇게 되기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옥진을 더 말은 잊지 못한채 가까스로 입술을 깨물며 사무실에서 획 나가 버리고 말았다.

《옥진아!》

순영은 책상우의 갈꽃을 쓸던 손을 멈춘채 한동안 덤덤히 앉아있었다. 옥진이가 《왕진펄》때문에 그처럼 안타까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적 없는 그였다. 더우기 그를 놀라게 한것은 언젠가 무심히 한 말을 꼼꼼히 되새기고있는 옥진이었다.

《전 언니의 말대로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열려진 창문으로는 여전히 갈꽃이 날아들고있었다. 순영을 가을의 풍치를 질게 하며 흩날리는 그 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갈꽃이 영영 없어진다고 말했었지. 그러나 모든 일이 어찌 자기 마음대로 되랴... 에이 쓸데없는 생각을 말자.)

순영은 귀전에 끊임없이 울려오는 옥진의 절절한 목소리를 잊으려고 머리를 획 저었다. 그러나 순영의 눈앞엔 옥진에게 그 말을 들려주던 잊을수 없는 그날이 삼삼히 안겨왔다.

...순영이가 진펄개간전투장을 찾아 떠난것은 지난해 마가울 어느날이었다. 류달리 높아진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햇숨뭉치같은 구름송이들이 뚝뚝 떠나

고 한낮의 태양은 따사로운 별을 온 진펄땅에 끌고 루 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수천년 자연의 변화속에 몸을 말긴채 잠들어 온 진펄땅은 따사롭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햇빛을 느끼지 못한채 깊은 꿈에 취해있는것만 같았다.

구수스레한 감탕썩은 냄새를 풍기는 거뭇거뭇한 진펄을 바라보는 순간 순영은 이 잠든 대지를 두들겨 깨우고싶은 욕망으로 가슴이 뻐근해왔다.

(내 이 기름진 땅을 기어이 옥답으로 만들리라!)

순영은 걸쭉한 감탕을 한줌 가득 움켜잡은채 걷고 또 걸었다. 진펄땅에 매혹된 순영은 자신이 위험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것을 알지 못했다.

《왕진펄》 근처에 이른 순영은 더 전진할수가 없었다. 온통 해묵은 갈잎으로 뒤덮여있어 어디가 감탕인지 분간할수 없었던것이다.

끝내 그는 덤벼치다가 감탕을 밟고야 말았다.

《어마나!》

순식간에 무릎까지 쑥 빠져들어갔다. 당황해난 순영은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팔을 허우적거렸다. 그럴수록 몸은 더 빨리 감탕속으로 잦아들었다.

《사람 살려요!》

순영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질렀다.

이때 갈숲을 헤치며 웬 처녀가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움직이지 말아요!》

갈대처럼 키가 늘씬한 처녀는 황새처럼 새초딩굴을 뉘뉘뉘뉘 끌라 디디며 다가오더니 한손으로 옆의 갈대를 휘어잡고 다른 손을 순영이앞으로 쑥 내밀어 주었다. 그 숨씨가 어찌나 재빠르고 침착한지 놀라울 지경이었다.

《고마와요.》

요행 구원자를 만나 위험구역에서 몸을 빼낸 순영은 모두숨을 호- 내그으며 겁먹은 눈을 살풋이 내리 감았다.

처녀는 순영이의 희맑은 얼굴을 호기심어린 눈길로 쳐다보다가 물었다.

《글쎄 어찌자구 이런곳에 돌아왔어요.》

그때에야 비로소 순영은 눈길을 들어 구원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갈잎거스름에 굵히고진 진펄 바람에 터갈린 처녀의 살결은 거치른 진펄땅처럼 거뭇다. 하지만 그 얼굴에 청춘의 정열이 차고넘쳐 펴 다정스러워보였다.

순영은 미안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사실은 경영위원회에서 차를 타고 가라는 걸 개간지를 돌아볼겸 걸어서 떠났다가 그만...》

《어마나, 그럼 새로 오신다는 기사동무가 아니에요?》

《아니 동무가 그걸 어떻게?》

처녀는 순영이에 대한 그 무슨 비밀을 알기나 한듯 자랑스럽게 말했다.

《군에 회의갔던 오빠한테서 들었지요 뭐.》

《오빠라니?》

《어마나 내가 그만... 천수리중대장말이에요.》

처녀는 스스로 실수한것이 부끄러운듯 방긋이 웃어보였다.

《그래요.》

순영은 이 처녀가 천수리중대장의 누이동생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저도 몰래 가슴이 뛴뛰었다. 왜서인지, 것처럼 그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중대장 영석동무에 대한 생각이 되살아나서였다.

...순영이가 장진고원의 동틀개간을 끝내고 군에 돌아왔을 때였다.

《순영동무가 마침 잘 왔구만.》

군경영위원장은 일군이 나타났다고 못내 기뻐하면서 그를 새땅찾기전투지휘부에서 조직한 협의회에 참가시켰었다.

협의회에서는 천수리의 진펄개간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토론들이 벌어졌다. 일부 일군들은 현재의 생활조건으로는 도저히 진펄개간을 금년안으로 끝낼수 없다고 하였다.

기사장이 말했다.

《아직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정황에서 한꺼번에 큰 면적에서의 개간을 시작하는것은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농사에 지장을 줄바엔 두 단계를 나누어 적은 면적에서부터 개간하자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일부 인원과 트랙토르는 집을 짓고 창고를 짓는데 돌립시다.》

《다른 의견이 없소?》

경영위원장이 좌중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길은 순영이앞에서 멎었다.

《동틀개간을 두달 앞당겨 끝낸 기사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선망어린 눈길들이 순영이에게로 쏠렸다. 그들속에는 새땅찾기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처녀 기사에게 은근히 련정을 품고있는 총각기사들도 있었다.

《전 진펄에 대한 파악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더 많은 동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순영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하고나서 조용히 앉았다.

이때 구석쪽에서 의자를 제끼는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불쑥 일어났다. 키골에 흰칠하여 허리를 펴면 천정이 무너질가봐 겁나서인지 구부정하고 선 청년은 흥분이 앞선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진펄개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 하자는것은 당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순영의 가슴을 호되게 때렸다.

《물론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는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온 나라가 <80년대속도>를 창조하고있는데 적은 면적에서 개간을 먼저 시작하면 적지 않는 트랙토르가 쉬게 됩니다. 한대의 트랙토르가 것처럼 귀중한 이때 당에서는 우리 군의 새땅찾기 전투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트랙토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건만 앞세우고 전면적으로 밀고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제 기한내에 당이 준 과업을 완성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조건이 안되면 조건을 창조하고 곤난이 있으면 곤난을 물리치고 당의 과업을 하루도 드림없이 완수합니다.

저는 우리 대대의 사업실과 트랙토르수리소는 우리가 자체로 휴식일이나 저녁시간에 꾸릴것을 제기합니다.》

《웁소.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금년안으로 진펄개간을 끝내고 전 면적에 첫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경영위원장의 흥분에 떠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영은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웁아, 얼마나 훌륭한 제기인가? 정말 돌격중대장답구나.)

불타는 눈, 꼭 다문 입술, 쇠방석만큼한 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태연자약한 모습...

순영은 온 신경이 그에게로 이끌려 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협의회가 끝나기 바쁘게 경영위원장을 찾아가 휴가도 거절하고 진펄개간 전투장으로 보내줄것을 재기했던것이다. ...

《오빠 언니의 사업수첩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직 한번도 경제과업수행에서 <미결>을 남겨본적 없대요.》

《아니 그래요?》

순영은 어쩐지 얼굴이 붉어져왔다. 그 키 큰 중대장이 자기를 잊지 않은것이 꼭 고마왔다.

실로 그의 사업수첩의 갈피마다에는 제기된 과업과 함께 반드시 그 뒤에 《완결》이라는 두 글자가 확고한 신념처럼 밝혀져있다. 무릇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순영이도 일군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는 사업수첩정리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남들의 평가를 받기 위한 한갓 증거물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과업을 단 한프로의 미결도 없이 수행하려고 아글타글 애쓰는 일군들의 철저한 립장의 반영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군농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회도중에 그의 사업수첩을 펼쳐 보이며 일군을 평가하려고든 그의 사업수첩을 보라고 말했는지도 모른다.

《제 여름은 옥진이에요.》

처녀는 말이 적고 웅심깊어보이던 오빠와는 너무나도 달리 남자처럼 팔팔한 성미였다.

《그래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대대에 기를 가지러 가는 길인데 그만 발동이 꺼

져서 ...》

《내 좀 바줄가.》

《아이 일없어요... 어서 타기나 하세요. 제가 대대까지 모셔다드릴게요.》

옥진은 트랙토르가 서있는곳으로 썩 달려가 걸싸게 발동을 걸었다. 갑자기 터진 요란한 엔진소리에 놀란 황새들이 푸드득 갈숲에서 날아올랐다.

그들이 탄 트랙토르는 방금 황새들이 날아난 갈숲을 지나 강둑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옥진은 어찌나 성미가 급한지 차를 운전하는것도 꼭 사내들처럼 씨원씨원하게 했다.

차창밖으로는 진펄과 갈숲이 엇바뀌어 흘러가고 저 멀리 손거울만큼씩해보이는 갈매마울의 문화주택창문들이 저녁노을빛을 받아 반짝거린다.

순영은 마음이 별로 즐겁기만하여 운전대후사경에 비친 옥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거울결에 하얀 갈꽃이 꽃혀 한들거리다가 트랙토르가 그 무엇에 걸려 덜커덩하고 울릴 때마다 비단실오리같이 흰 갈꽃이 포르르 날아올라 열려진 창문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진다. 순영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길옆의 보퉁엔 가을 들국화가 더미더미 피여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들 있는데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갈꽃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옥진이가 그의 생각을 꿰뚫어본듯 먼저 입을 열었다.

《벌나게 생각되죠? 저의 교대운전수동무도 그리 군해요. 그래서 난 말해주곤했어요. 제가 세상에 나서 처음 알게 된 꽃이 바로 잘못이라구요. 웃진 마세요. 어렸을 때 내가 탁아소어머니들의 잔등에 업혀 진펄논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에게 젖먹으러 갈 때마다 논두렁에서 놀던 오빠가 갈꽃을 꺾어 쥐여주곤했대요. 진펄에 꽃이라곤 갈꽃밖에 없었으니까요. 난 그때 이 세상엔 갈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젠 여기서 갈꽃이 영영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래 없어지고말고... 아마 갈꽃이 없어진 땅을 보면 옥진은 섭섭해하겠지?》

《아이 참 언니두.》

옥진은 순영이를 어리광스럽게 쳐다보고는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또 짹짹 웃어댔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색해진 눈빛으로 차창밖의 무연한 갈숲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섭섭할것 같어요.》

《아니 그건 왜?》

순영은 웃으며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무성한 갈숲은 가을바람이 흥그러운지 아니면 이제 옥답으로 전변될 그날의 환희가 밀려와서인지 온몸을 땅우에 굽혔다일으켰다했다. 그때마다 갈꽃이 구름처럼 날아오른다. 갈꽃이 날려가는 갈매마울의 탈곡장에서는 고성기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언닌 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방송소리?》
 《아니 갈숲의 설레임소리말이에요.》
 《원 애두...》……

순영은 그때의 그 다감한 옥진을 다시 보는것만 같아 혼자 빙긋이 웃어버리고말았다.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 말을 그토록 기억하고 실현되지 않으니 눈물까지 글썽해서… 정말 아직도 아이야)

물론 자기 고향땅의 한치의 땅이라도 목이지 말려는 옥진의 심정은 기록했다. 하지만 무동개진펄을 개간면적에서 빼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순영이의 심중을 옥진은 모르고있었다.

(어쨌든 그를 만나서 잘 깨우쳐주자!)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비단솜같은 갈꽃이 설새없이 날아든다. 자기는 영원히 없어질수 없다고 뿔뿔이 면서…

2

이튿날 아침

가도가도 끝이 없을 개간된 갈매벌의 논두렁길을 따라 한 처녀가 걸어가고있었다. 머리에는 잡자리수건을 쓰고 무릎까지 오는 자지빋 꽃문양이 드문드문 박힌 하늘색 치마에 노란색 사출장화를 받쳐신은 처녀는 천수리로 가는 순영이었다.

가을벌에 부들부들해진 새땅을 밟으며 걷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마치도 황금벼이삭들이 치마자락에 스치는 두렁길을 가는것만 같은 환각속에 잠겼다. 개간지의 보람이란 바로 이런것이구나 순영은 불모의 땅을 흔들어 깨우며 새땅찾기 전투장에서 전투장으로 찾아다니던 나날들이 얼마나 보람찼던가 하고 생각했다.

순영은 두렁가에 피어난 매꽃 한송이를 꺾어 들고 정겹게 그 향기를 맡았다. 여기서 바로 영석이와 첫사랑을 속삭이던곳이었다.

…진펄개간전투가 한창 고조되어가던 어느날 저녁무렵이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영은 급히 각 중대들에 프락포르를 대피시키라고 전화로 알렸다. 하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프락포르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천수리중대가 걱정되었다. 끝내 그는 비를 흠뻑 맞으며 천수리로 향했다. 감탕에 쑥쑥 빠지는 다리를 힘겹게 뿔아 옮기며 그가 천수리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진펄을 살피던 순영은 멀리 갈숲에서 프락포르의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순영은 정신없이 그리로 달려갔다. 순간 그는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프락포르곁에 안타까이 서있는 중대장 영석이를 보았던것이다.

《순영동무가 아니요?》

영석은 감탕투성이 되어가지고 나타난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중대의 프락포르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영은 경황없이 물었다.

《아니 그때문에 이 먼곳엘 달려왔소?》

영석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고맙소. 프락포르들은 다 대피했소.》

《그런데 중대장동문?…》

《다른 차들을 대피시키고 오니 벌써 물이…》

그제서야 순영은 진펄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물을 보고 놀랐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소.》

영석이가 다급히 웨쳤다.

《차는 어떻게 하구요.》

《내가 지키겠소.》

《저도… 여기 남겠어요.》

《그건 안되오!》

《걱정 말라요.》

순영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

영석은 더 말할수가 없었다. 사실상 물이 정쟁이를 넘는 진펄로 순영이를 혼자 보내고싶지 않았다. 게다가 중대를 위해 먼길을 달려온 그를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이제는 여기서 함께 비가 끊기를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둘은 운전칸에 올라가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번개치고 우뢰가 울었다. 순영은 비에 축축히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겁먹은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프락포르가 물에 잠기지 않을까요?》

《걱정 마시오. 이제 비가 끊을겁니다.》

영석은 얼어드는 순영의 마음을 덤쳐주려는듯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땅땅, 따땅, 밀둥없는 항아리에 물을 퍼붓듯이 감감한 밤하늘에서 쏟아져내리는 소낙비는 담겨진 프락포르 운전칸창문을 여지없이 두드린다.

창문틈으로 습새어들어오는 밤기운에 순영은 저도 모르게 으스스 몸을 떨었다. 그런 눈치를 어느새 알아차렸는지 영석이가 덧옷을 벗어 순영의 어깨우에 걸쳐주었다.

《괜찮아요.》

《그래두 이런 땀 도움이 될겁니다.》

따뜻한 영석의 체온이 깃든 덧옷은 순영의 어깨를 포근히 감싸주었다.

순영은 영석이의 말없는 련정이 가슴속에 찾아드는것만 같아 온몸이 후터워났다. 웬일인지 도도룩한 앞가슴이 왈랑거리기 시작하더니 세차게 들먹이는 심장의 고동소리는 귀전에서 울리는듯 싶었다.

《여기 와서 무척 고생스러울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지요. 그런 고생이야 금을 주고도 살수없으니까. 진펄개간이 끝나면 아마 순영동문 옛말을 할겁니다.》

영석의 그 허식없는 말에 순영의 마음을 저으기 가라앉으며 멀지 않은 래일로 나래쳤다.

《참 훌륭한 생각이군요.》

《그래 순영동문?》

《저도 함께...》

《그렇소?》

영석은 저도 몰래 순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기뻐했다.

끝없는 희망을 속삭이던 그 밤, 언젠가 비도 떨어 검푸른 하늘에서는 무수한 애기별들이 그들을 굽어 보며 반짝이고있었다.

《아니 이게 기사가 아닌가?》

문득 들려오는 거울진 목소리에 놀란 순영은 회상에게 깨여났다.

뜻밖에도 그의 앞에는 흰머리를 흘날리며 갈매마울의 덕수로인이 서있었다.

《아바이!》

순영은 마음속 비밀을 엿보인것만 같아 당황히 머리숙여 인사하였다.

《이거 오래간만이구먼.》

진필과 더불어 불품없이 늙어온 덕수로인은 순영이를 보자 자식을 만난듯반가와했다.

《그래 합숙생활이 어떤가? 얼굴이 몹시 축간것같은데.》

《축가진요.》

《허- 얼굴색이 말이 아니네. 우리 로친넌 노상 자네 걱정을 한다네.》

《할머니가요?》

순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곳에 처음 와서 늙도록 자식없이 산다는 덕수로인네 집에 숙소를 정하고 있을 때 극진히 보살펴주던 두 내외의 정성이 되살아났던것이다.

《그런데 어딜 갔다오십니까?》

순영은 로인의 아래도리에 감탕이 묻혀있는것을 보고 의아하게 물었다.

《글쎄 옥진이 그 애가 <왕진필>을 개간한다고 하기에 어디 가만 있겠던가. 내 늙긴 했어도 도움이 될가 해서 진필을 좀 돌아봤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구... 허허.》

로인은 두툼한 목이 박힌 울퉁불퉁한 손으로 허연 턱수염을 쓸어만지었다.

《아니 그 위험한데...》

《그래 언제면 개간을 하게 되나?》

로인이 궁금한듯 물었다.

《저... 아직은...》

《그럴테지... 이 기름진 땅에 눈독을 들인 왜놈들도 측량을 시작했다가 술한 표척수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다네. 땅이야 오죽 좋은가, 기름이 철철 흘러 술한 사람들이 찾아 왔다간 슬픔만을 안고 돌아가곤했지.》

로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긴 한숨을 획 내쉬었다.

《옛적부터 여기에서 이런 민가가 불려지고있네.

왕진필 귀신진필 염라공의 문전이라

썩은 물은 허리치고 마른 갈대 흐느끼네

돈많은놈 땅도 많아 호의호식 하건마는

백성들은 살길 찾다 진필속의 원귀되네...》

이렇게 민가를 엮어가던 로인은 순영을 돌아보며 다시말을 이었다.

《그런데 자네들이 오늘 <왕진필>을 개간한다니 내 얼굴의 주름살이 쭉 퍼지는것 같네.》

꺄꺄 소리내여 웃는 로인의 얼굴에서는 온갖 시름이 가시여지는듯싶었다.

순영은 가슴이 뭉클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럼 전 가보겠어요.》

《가만, 저 래일이 추석인데 우리 집에 꼭 들리라구. 로친이 기다리지 않게.》

《아바이두 참.》

로인과 헤어진 순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논두렁길을 걷고걸었다. 그는 《왕진필》개간문제가 옥진이만이 아닌 이교장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있었다. 아니 《왕진필》을 개간면적에서 빼버리는 문제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진필개간면적확정을 취소해야 한단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는 《왕진필》여구에 이르렀다.

해묵은 늙잔디를 저겨디디며 갈밭둔덕에 올라선 순영은 사위를 휘돌러보았다.

같이며 팡팔이며 새초쉴이 우거진 진필변두리에는 여기저기 거뭇거뭇한 감탕밭이 살집을 드러내보이고있었다. 웅덩이마다에는 하얀 갈꽃이 물거품처럼 한데 뭉쳐 이리저리 바람에 떠다니고있었다. 갈숲이 잠들 때면 수천년 썩은 감탕밑에서 풀떡 풀떡 가스가 피어오르는 소리가 끔찍스럽게 들려온다. 이 께께하고 울씨넌스러운 진필을 개간하자면 측량부터 해야 한다는것을 순영은 모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죽음의 함정》같은 진필로 누가 들어가야 하는가. 《왕진필》개간을 말아나선 중대의 지휘관들부터 들어가게 된다는것은 너무나도 불보듯 한 일이었다.

순영은 소름이 끼쳐와 지긋게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수 없어, 이 귀신진필에 그이를...》

순영은 황급히 중대부로 향했다. 빨리 옥진이를 만나고싶은 그였다. 그가 방금 중대사무실마당가에 들어서는데 방안에서 영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한창 운전수가 긴장한데 너까지 같이시험에 돌리면 개간은 누가 한단말이나?》

(옥진이가 벌써 같이시험문제를 제기한거로구나.)
 옥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수가 그렇게 긴장한줄 아는 오빠가 저의 교대운전수를 왜 농장으로 돌려보냈어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운전수도 기능이 높은 운전수로만 골라쓰고 땅도 조건이 좋은 땅만 골라서 개간하자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옥진의 그 말에 순영은 저도 몰래 가슴이 뜨끔해났다. 얼마전에 그가 자기 농장으로 되돌려보낸 옥진의 교대운전수 때문이라는것을 알았던것이다.
 순영은 방안이 조용해지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간 두사람은 당황한 눈빛으로 순영이를 반겨맞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순영은 기분이 좋지 않아 서있는 옥진이를 쳐다보며 물었다.
 《글쎄 문길이를 농장으로 돌려보냈다고 이 성화가 아십니까?》
 《변명하지 말아요. 그래 오빠 자기 교대운전수를 몰래 빼돌리면 좋았겠어요?》
 옥진은 여전히 깔끔한 눈으로 영석이를 흘겨보며 쏘아붙였다.
 순영은 옥진이를 진정시키려고 조용히 타일렀다.
 《옥진이 그만해라. 사실 교대운전수를 돌려보내기로 한건 나였어!》
 《뭐 언니가요?》
 순간 옥진이와 눈길에 순영의 얼굴에 날아와 화살처럼 찔렸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순영은 그만 눈길을 피하고말았다. 그 어색한 순간을 메워준것은 영석이었다.
 《옥진아, 그럼 못써! 물론 내가 널 동생이라고 사전에 토의하지 않고 문길이를 내놓은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문길이와 <같이시험>이 무슨 상관이나?》
 《왜 상관없어요? 운전수가 긴장해서 <왕진펄>을 개간하지 못한다는데...》
 《글쎄 기사동무도 너만 못해서 그랬는줄 아니냐?》
 《좋아요. 언니도 오빠도 승낙하지 않으면 나라도 혼자 하겠어요!》
 옥진은 방문을 탕 소리나게 닫아버리었다.
 《에- 언제면 철이 들겠는지...》
 영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풀썩풀썩 태우기 시작했다. 그런 영석이를 보자 순영은 더욱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중대를 위하하던 일이 오누이 사이를 어성버성하게 만드는것만 같아서였다.
 《옥진이가 제기한 <같이시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득 영석이가 물었다.
 《저도 그 때문에 <왕진펄>을 돌아보고 오는길이에

요.》
 《그렇소?》
 그래서야 영석은 감탕이 제발린 순영의 장화를 뜨거운 눈길로 더듬어보았다.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는군요.》
 《어쨌든 수고 많았소. 오느라구 피곤하겠는데 함속에 가서 꼭 쉬시오. 난 아무래도 밤작업을 하는 동무들때문에 나가보고 와야겠소.》
 영석은 다정한 눈길로 순영을 돌아보고는 덧저고리를 걸쳤다. 순영은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영석이를 눈바래며 오래도록 문앞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왜서인지 마음이 불안했다.
 옥진이가 교대운전수문제를 상기시킨것이 가슴에 쏘여왔다.
 옥진의 교대운전수 림문길은 기능이 어리어 매일 같이 트랙포트를 진펄에 빠뜨리곤했었다. 그때마다 온 중대가 달라붙어 문길이의 트랙포트를 끌어내느라고 생산이 지체되곤하었다. 순영은 그 때문에 안타까이 뛰어다니는 영석이를 곁에서 보기가 더 괴로웠다. 더우기 문길이때문에 영석이네 중대가 대대적으로 제인 먼저 계획을 끝내지 못할가봐 걱정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에도 문길이가 그를 찾아와서 자기를 농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제기했었다. 순영은 꽤히 승낙해버리고말았다. 중대의 생산도 지장주지 않게 될것이며 본인도 다른 운전수들의 짐이 되기보다 돌아가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생각한 그였다. 마침 그때 농장에서 농사철에 딸리는 로력때문에 우수한 운전수 한명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순영은 그 기회에 문길이를 돌려보냈던것이다. 그런 사연을 옥진은 모르고있었다. 그때 옥진은 군에 트랙포르부속품을 인수하러 가고 없었던것이다.
 순영은 아까 그를 쏘아보던 옥진의 눈길에서 자기의 량심을 들여다보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 하지만 순영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이게 모두 그들을 위해서임을 옥전이라도 차차 알게 될거야.)
 순영은 이렇게 자신을 위로했다.

3

이튿날 순영은 영석이와 함께 개간현장을 돌아 보고있었다.
 순영은 영석이와 방금 개간된 질적질적인 빼기밭을 나란히 걸으면서 조용히 속삭였다.
 《저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가까스로 짜내는 말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뭐라구 썼소?》
 《글쎄 개간이 끝나면 함께 집에...》
 《그래? 어머니가 동의하셨단말이지!》
 영석은 아이들처럼 기뻐했다.
 《아이참!》
 순영은 수줍어 얼굴을 살짝 붉히었다.

《어쨌든 이 진폐개간을 추위가 닥쳐오기전으로 끝내야겠는데...》

영석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초조한 빛이 떠올랐다.

《걱정 말아요. 모든것이 제대로 될거예요.》

《하긴 기사동지가 장담하는데야 뭐, 걱정이 있겠나.》

영석의 익살스러운 우스개소리에 그들은 마주보며 웃었다.

떠가는 구름, 달리는 렬차, 가로수 반겨주는 산뜻한 거리, 정향나무꽃이 핀 마당으로 달려나오는 어머니...

《프락포르가 빠진다!》

갑자기 어디선가 났나간 사람의 목소리가 총알처럼 날아왔다. 순간 정신을 번쩍 차린 영석이가 외작 외작 갈대를 걸어차며 소리나는쪽으로 뛰어 갔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순영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불안고 영석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비명소리를 내며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감탕속으로 거침없이 빠져들어가는 프락포르를 보았던 것이다.

《옥진아, 뛰어나내려라!》

영석의 웨침소리가 다시 울려 왔을 때 순영은 눈앞이 아찔해지었다. 그러나 그 위기일탈의 순간에 운전칸에 뛰어든 영석이가 옥진이를 잡아끄는 모습이 보였다. 두사람이 뛰어나오는 순간 프락포르는 감탕속에 숨박꼭질해버렸다. 운전칸에 차있던 마지막 공기가 푹푹푹 감탕우로 방울져 오르는 소리만이 울썸느낌처럼 들렸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사람들은 손 쓸념도 없이 그자리에 덩뎡히 서있었다. 다만 기가 막혀 씨근덕거리며 왔다갔다하던 영석이가 옥진이를 육하려다가 순영이가 곁에 선것을 보고는 운전수들에게 소리질렀다.

《왜들 이러구만 있소. 빨리 프락포르를 끌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하려다가 달려온 운전수들은 웅성대기만하다가 중대장의 명령에 흠어져 가서 바줄을 끌어온다 나무들 메운다 부산스럽게 돌아쳤다. 옷동을 벗어던지고 감탕속에 들어가 프락포르 바퀴에 어깨를 들이미는 영석이를 보고 순영이도 뒤따라 들어갔다.

두시간쯤이 되게 간고한 전투끝에 끌어낸 프락포르를 물론 운전수들까지 온통 감탕투성이 되어 눈만 깜빡거렸다.

《에- 오늘 같이계획을 하긴 코집이 틀렸는걸.》

운전수들이 두덜거리며 흠어져갔다. 그때에야 영석은 얼굴이 까맣게 질린 수령가에 서있는 옥진에게 어성을 높였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거냐. 프락포르를 이지경으

루 만들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모든게 제 불찰이었어요.》

순영은 얼른 영석이를 말리며 송구스럽게 말했다. 순간 머리를 쳐든 옥진은 순영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강가로 끌려가는 감탕투성이 된 프락포르를 쫓아 장달음쳐 가는 것이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러라 싶은 생각에 순영은 가슴이 찢르르해왔다.

《지나쳤군요. 옥진인 가슴이 풀리지 않을거예요.》

《내버려두시오. 그 성미에 그러다 말지요.》

《그래두...》

순영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강가로 향했다.

채양버들이 머리라도 감을듯이 칠칠한 아지를 드리우고 늘어선 강가에서 옥진이가 프락포르를 씻고 있었다.

순영은 조용히 프락포르앞으로 다가갔다. 다른 때 같으면 다가오는 그에게 물을 끼얹으려는데 손짓하며 깔깔 웃어댈 옥진이런만 오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프락포르에 물을 들썩워 대기만 한다.

《인다오!》

그는 옥진의 손에서 바게뜨를 빼앗아들었다. 옥진은 순영이를 외면하듯 고개를 수그린채 개울가에 나와 풀밭에 펄썩 주저앉는 것이었다.

《원 애두!》

순영은 혼자 시뭇히 웃고나서 바게뜨에 물을 떠서 프락포르에 묻은 감탕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는 프락포르청소를 말끔히 끝낸 다음 개울가로 나와 옥진이곁에 앉았다. 그때까지 옥진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도 사고를 쳐놓고보니 생각되는 것이 많은 모양이었다.

순영은 어깨우에 드려온 버드나무아지를 한줄 쥐여 옥진의 갈래머리를 손질하듯 정히 쓰다듬다가 입을 열었다.

《글쎄 네가 상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어쩔번했느냐!》

순영은 방금전의 광경을 눈앞에 보듯이 몸서리쳤다.

《나도 그렇게 깊은 수령이 나타날줄은 몰랐어요.》

《그러니 다신 모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쨌든 개간해야지 않겠어요?》

《물론 개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그럴만한 로력도 시간도 없다.》

《그건 걱정할게 없어요... 언니 자요. 이걸 좀 보세요.》

옥진은 언제 성냈던가싶게 빙긋 웃으며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순영이앞에 펴보였다.

《왕진펄》 개간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토랑에 이르기까지 타산해본 계산지였다.

《로력을 우리손으로, 모자라는 시간은 예비를 탐구하여 보충하겠어요.》

순영은 서툰 솜씨로 계산해본 종이장우의 수자들을 잡자고 들여다보기만했다.

《어때요? 될것 같어요?》

순영은 피곳피곳 본 계산지들에서 눈을 떼고 태연스럽게 말했다.

《측량도 안한 땅에 개간타산이 무슨 소용있니. 뻔히 되지도 않을걸.》

《측량은 덕수아바이와 함께 우리가 하겠어요. 덕수아바인 옛날에 피모를 심으려 그곳에 들어가 본적이 있다지 않았어요.》

순영은 갈매마을의 덕수로인이 생각났다.

《나도 알고있다. 네가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아바이를 <왕진필>에 들어가게 한것은 잘못된것 같다.

《아바이가 그곳에 들어가다니요?》

옥진은 저르기 놀라는 눈빛으로 순영이를 쳐다보았다. 순영은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아야 한다는것을 자각했다.

《옥진아, 덕수아바이의 말대로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왕진필>을 측량하자면 그 위험한곳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측량대 동무들은 다른곳으로 이동했지 우리가 하자면, 그땐 누가 그 귀신진필에...》

순영은 떨리는 음성을 가까스로 진정했다.

《아니 그럼, 언니 그것때문에?...》

《그렇다. 다른것은 다 제쳐놓고 난 누구도 그 위험한 수령밭으로 들여보낼수가... 없다. 그곳을 개간하지 않아도 우리는 과업을 넘쳐난것으로 되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불필요한 모험을 한단말이나...》

순영은 더 말을 잊지 못한채 입술을 깨물었다.

《이젠 다 알겠어요. 언니 오빠때문이지요?... 난 언니가 그런줄을 몰랐어요. 교대운전수를 돌려보낸것도, <왕진필>을 개간면적에서 빼버린것도... 어쩌면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그렇게 속일수 있단 말이에요.》

《뭐라구?》

순간 순영도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화끈 달아오름을 어쩔수 없었다.

《내 말이 지나쳤다면 용서해요.》

옥진은 솟구쳐 오르는 그 무엇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다가 몸을 비틀며 장독길을 달음쳐갔다.

《옥진아!》

목메게 그를 부르며 따라가던 순영은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한참만에 마음을 다 잡은 그는 옆의 버드나무를 부둥켜안고 모대겼다. 자기가 것처럼 믿고 사랑해주던 옥진이한테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허전하고 쓸쓸하기 짝이 없었던것이다.

《...어쩌면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그렇게 속일수가 있단말이에요.》

(내가 량심을 속이고있단말인가? 아! 아니야 옥진은 내 맘을 다는 모르고있어.)

순영은 지못게 머리를 흔들었다.

어느새 어둠을 진필땅을 덮어버렸다. 보금자리를 찾아 갈숲에 날아든 황새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순영은 오래도록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어둠속에 앉아있었다.

4

순영은 밤이 이속해서야 중대로 돌아왔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앞에 마주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던 영석이가 어느때 없이 살뜰하게 맞아주었다.

《왜 이렇게 늦었소?》

《그저 좀...》

순영은 태연히 의자에 앉았다. 허지만 여전히 가슴은 허전했다. 옥진이한테서 받은 충격이 컸던것이다. 그는 무심히 책상위에 눈길을 주다가 놀랐다.

《아니 이 종이가 어떻게?》

그것은 옥진이가 보여주던 《왕진필》개간에 필요한 로력과 토량을 계산한 종이장이었다.

《옥진이가 제기한 방안이요. 난 그 애가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있는줄은 몰랐소. 그를 철이 없다고 한 내가 어리석었지...》

《허지만 옥진인 진필을 잘 모르고있어요.》

《아니 오히려 순영동무가 잘 모르고있소.》

《그럼 영석동무도?...》

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소!》

영석은 심한 자책에 잠겨 창문가에 서있었다. 그는 순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한 수령밭으로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 《왕진필》을 개간면적에서 빼버렸다는것을 옥진이한테서 들었을 때 놀랐었다. 모든것이 자기 불찰이라는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그였다.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과업을 단 한프로라도 미결로 남기지 않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순영의 마음에 감동된 나머지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실수가 없다고만 인정해온 영석이었다. 결국 그의 눈먼 사랑때문에 순영이로 하여금 《왕진필》을 개간면적에서 꺼버리게 한것이 아닌가.

영석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난 오늘 한가위날 아들의 묘지를 찾아 진필에 나왔는데 덕수로인을 만났소.에 나왔는데 덕수로인을 만났소...》

...진필은 이고장 농사군들에게 명줄을 걸기도 하고 명줄을 끊어 놓기도 했었다. 그래도 지주가 없는 땅이라고 하여 해마다 술한 사람들이 진필변두리의 굳은 땅을 골가면서 피를 심었다.

어느해 때아닌 봄장마가 쳐서 진필땅은 온통 두부모처럼 흐들흐들해졌다. 하지만 피모라도 심어야 먹

구 살겠기에 마을사람들은 진펄로 나갔다. 갈매마을의 덕수도 앓는 몸이지만 기를 쓰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나섰다. 기운이 쇠약해진 덕수는 진펄에 나갔다가 마을사람들의 등에 업혀 들어오고 말았다.

《여보게를 날 진펄에 내다달라구. 저 어린것을 먹여살려야 할게 아닌가?》

몸을 운신하지 못하면서도 마을사람들을 붙잡고 애걸하는 아버지를 보다못해 어린 아들이 몰래 문밖에 나섰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피모를 심겠다고 진펄에 나간 어린 아들은 그날밤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한많은 진펄땅에 묻은 로인의 가슴인들 얼마나 아프겠소. 어찌 그뿐이겠소. 갈매마을 사람들치고 이 진펄에 원한의 씨앗을 묻지 않은 사람이란 없다오. 오늘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바로 이곳 인민들의 절절한 소원을 헤아려 따사로운 해빛으로 천년묵은 이 귀신진펄땅을 곡창으로 변모시켜주고있소. 그런데 우리 일꾼들이 일을 쓰개 못하여 이 상처자욱을 남겨놓는다면... 난 우리의 참다운 행복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사랑을 이 조국땅에 바쳐가는데 있다고 생각하오...》

《영석동무!》

순영은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영석은 안타까이 방안을 거닐었다.

이때 사무실문이 벌럭 열리더니 나이 지긋한 운전수가 들어왔다.

《중대장동무... 참 기사동무도 있었구만.》

《무슨 일이요?》

《글쎄 문길이가 돌아왔습니다.》

순영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 보십시오. 옥진이가 보낼 편지를 받구 왔구만요.》

《아 마침 잘 왔소. 순영동무! 어서 만나보지요.》

영석은 못내 기뻐하며 운전수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허지만 순영은 무엇인가 가슴이 찢려와 그 자리에 덩뎁히 앉아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옥진이가 교대운전수문제를 상기시키더니 다시 데려왔단말인가!

순영은 저르기 떨리는 손으로 책상우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 문길동무! 절 용서해요. 모든게 제 탓이었어요. 내가 좀 더 극성스럽게 운전법을 숙련시켜 기능을 높여주었더라면 기사언니도 동무의 제기를 받아주지 않았을거예요. 그러나 동무가 중대의 같이계획수행에 지장이 되는것이 미안하여 돌아갔다는것을 알았을 때 격분을 참을수가 없었어요. 동문 저의 오빠와 기사언니의 사업수첩에 <미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것이 창피하지도 않나요. 동문 개간전투장을 떠나가 버리면 단줄 알지만 <계획을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량심에 오점을 남

기게 될거예요.

문길동무, 난 동무가 결코 이 진펄개간전투장을 떠나갔다고 믿고싶지 않아요. 진펄을 개간하는 일이 단순히 쌀 몇토리를 얻어내느냐 못얻어내느냐 하는 실무적문제만이 아니라 한치의 땅이라두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 후대들에게 넘겨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리라 믿어요.

문길동무 우리는 오래지 않아 우리 전투의 마지막 결전장인 왕진펄개간전투에 뛰어들어요. 물론 여기엔 생명의 위험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위대한 수령님과 고마운 당을 충성으로 받드는 길이며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 상처를 말끔히 가셔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믿기에 서슴없이 이 길을 택한것 이예요. ...》

순영은 눈앞이 캄 흐려와 편지를 읽을수가 없었다. 그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사업수첩을 움켜잡았다. 그의 눈앞에는 언제나 금지높이 써오던 사업수첩의 《완결》 글자들이 마치 그를 조롱하듯 살아 움직이며 하나하나 빠져나와 왕진펄로 날아가는듯 한 환각이 안겨왔다.

(옥진아! 날... 날용서해줘...)

X

순영은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문밖에 뛰쳐나오고말았다. 그는 허둥지둥 달빛이 어스름한 동쪽길을 향방없이 걸어갔다.

문득 순영도 인기척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왕진펄》 어구쪽에서 중얼거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달빛이 흐르는 갈숲을 유심히 살피던 순영은 다시금 놀랐다. 갈밭둔덕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덕수로인을 보았던것이다. 진펄 어딘가에 묻혔다는 아들을 생각하여 한가위날 이 밤을 지새고 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순영은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팠다.

로인의 눈물에 젖은 목소리가 갈숲의 설레임소리에 파묻혀 간간히 들려온다.

《장쇠야! 너도 이젠 원한을 풀 날이 왔다. 갈뿌리처럼 엉킨 그 모진 세월의 원한을 안은채 이 진펄말에 누워있는 널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팠다. 허지만 이젠 황금이삭이 물결치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너도 이 갈매벌에 안기여 편히 잠들수 있게 될거다... 장쇠야-!》

로인의 부름에 화답이라도 하는듯 갈숲이 쉼- 설레인다.

《아바이!》

순영은 뜨거운것을 목메게 삼키었다. 그 으스스한 갈숲의 설레임소리는 마치도 원한품고 진펄땅에 묻힌 수많은 사람들의 하소연과 흐느낌소리처럼 들려왔던것이다. 이고장을 처음 찾아오던 날 옥진이가

저 소리가 들리는가 하였을 때 너무나도 레사롭게
생각한 갈숲의 설레임소리였다.

그렇다.

이 땅에 남아있는 한조각의 얼룩도 가셔지고 황금
물결이 설레일 때라야만 덕수로인과 이 고장 사람들
의 얼굴에 한점의 그늘도 없는 웃음이 비끼고 먼 후
대들까지도 우리 개간자들을 잊지 못할것이다.

순영은 《왕진펄》을 개간할 다른 방도가 없는가
고 묻던 영석의 물음에 대답을 주지 못한것이 후회
되었다. 자신이 《왕진펄》 측량에 첫사람으로 들어
설것을 왜 말하지 못했는가. 그는 이것이 자기의 마
음속 《왕진펄》도 개간하는 마지막 전투임을 새삼
스레 깨달았다.

순영은 가슴이 뛴뛰었다. 그는 길다란 장대를 얹
어 한아름 되게 묶어 안고 《왕진펄》에 들어섰다.

순영은 조금도 두렵없이 감탕을 저벅저벅 밟으며
앞으로 전진해나갔다. 한동안 수령이 있는곳에 장대
를 꽂아 놓으면서 갈밭을 누비고있는데 세개의 해불
이 늑가로 다가오고있었다. 순영은 영석이가 옥진이
네들과 함께 이 밤에 《왕진펄》을 탐사하기 위해서
나왔으리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끼며 기쁨의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순영이, 순영이,》

《순영언니... 순영언니...》

그들속에서 순영이를 찾는 영석이와 옥진의 목
소리가 울려왔다. 그러나 순영이는 목이 확 메여와
아무 대답도 못한채 그들을 향해 허둥지둥 걸음을

재촉했다.

이 시각 그들이 못견디게 그리워났다.

《누구요. 거 기사가 아닌가?》

저벅저벅 감탕밟는 소리를 들었는지 덕수로인의
거울진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아바이!》 순영은 가까스로 대답했다.

《어마나 언니예요!》

《순영동무.》 두 오누이가 침병침병 감탕속으로 들
어서는것을 알아차린 순영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들어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언니!》

《순영동무, 동무가 꼭 여기 있을줄 믿었소. 고맙
소.》

영석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지척에서 들려왔다.

순영은 눈앞이 흐려와 더 걸을수가 없었다. 무엇
인가 그의 양볼을 다정히 쓰다듬고있었다. 그것은
숨같이 보드라운 갈꽃이었다.

이 고장에 처음 왔을 때 그를 쓸쓸하게 반겨주던
갈꽃, 이고장 사람들의 원한과 옥진의 어린시절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갈꽃, 이 땅을 보다 아름답게 꽃
피우려는 옥진의 뜨거운 소원이 깃들어있는 갈꽃을
순영은 한껏 볼에 비비었다. 《기사동무!》

어느새 트랙포트를 몰고 온 문길이가 조명등불빛
으로 순영의 앞을 밝혀주고있었다. 푸르르 놀란 황
새들이 떼지어 날아올라 어둠속 어디론가 사라져간
다. 그바람에 갈숲이 와슬렁거리면서 갈꽃을 날린
다. 밤눈이 내리듯이...

기 발 외 1편

계훈

숫구쳐오르는 철탑
하늘가 아득한곳에
수리개마냥 연공들을 이끌며
환성에 불리워 오르는 한사람

《이젠 내려오시우 소조원동무!》
그러면 마주 올리는 소리
《넘려 마시우
젊은 우리 자리야 바로 여기지요.》

그럴테지

창이라면 창끝이
노래라면 첫가락이
배라면 창과 가르는 배머리가

그럴테지
3대혁명소조원 그대의 자리야

하늘가 아득한곳
숫구치는 탑의 맨 옷끝에
하얀 입김 날리며 소조원동무 서있다
아, 하나의 기발처럼

역두에서

앞다투어 전보한장 들려보며
제대군인총각들 환성 올렸네
고향치너 온다누나

건설자인 총각을 찾아
떠들썩 젊은이를 역두로 달려갔네
건설장에서 곧추 지름길 따라

하지만 공교롭기란
렬차는 들어오네 철길을 건너서기전에

렬차를 사이에 두고
못넘는 이 마음이야 처녀가 알라
저편에 개찰구-화려한 도시
이편에 건설장-속상한 총각들

들고온 짐도 많을테지
개찰구로 나가 사람들속에 헤맬테지
지금쯤은 화려한 도시에 반해
고층건물 늘어선 큰거리로 나설테지

늦은건 누구를 탓할게 없어

문제는 우리가 일에 반한것이지
그보다 이것이 더 야단이야
제대군인총각들이 인사성없다면

순간 렬차의 승강대문이 열리고
머리수건 날리며 처녀 하나 나섰네
용접불꽃 피어나는 건설장 바라보며
바로 제대군인총각들앞에

《보라구, 동무들!》 누군가 웨쳤네
글쎄 내가 말하지 않았어
5개지구전선건설장에 처녀가 반했다고
우리의 처녀들은
건설자총각이 좋아 틀림없이 여기 온다고!

빛내이리 청춘시절

안창모

청춘
입속으로 외워만 보아도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시절
소리를 쳐도 우뢰치고 싶고
걸음을 걸어도 살같이 내달아라

청춘
남아가는 흰구름도 잡힐듯싶고
전장의 총탄도
맞받아 무섭지 않은 시절
비굴한 삶보다
죽음도 영생으로 빛내일줄 아는 이 시절
이 시절에 나는 산다.

귀전을 스치는 한가락 노래에도
심장은 높뛰고
창조와 건설의 구호만 들어도
이몸은 달아오른다.
일손에 번개를 알리고싶어
숫구치는 충성을 빛내고싶어

굽이치는 대오속에
이몸을 세워준 은혜로운 품
그 품에 꽃피나는

나의 청춘이여

몸에 흐르는 방울방울 붉은 피는
열정의 억센 폭포수
달아오른 가슴은
로가 되어 끓거니

폭풍을 가리라
불구름이 두려우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걸어온 투사들의 자욱자욱에
이 마음의 걸음을 따라세우며
젊음을 빛내여가는 이 시절

청춘
이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심장
끓어야만 웃음이 피는
투쟁없이 청춘시절에 산다말라
열정과 노력 없이 청춘이라 하지 말라

아, 일생의 가장 보람찬 시절
당의 품에 꽃피난 나의 청춘
위훈의 금별로 새겨지는 나날이여

일주일간

윤경수

편지를 다 읽고난 김원구는 납덩이처럼 가라앉은 마음때문에 가쁜 숨을 뿔아내고있었다. 가슴이 답답하여났다.

미간에 주름을 깊숙이 지으며 기울어진 그의 깊은 창미가 얼굴의 병색을 한결 돋구어준다.

(사람이 어찌면 그럴수가 있는가... 응... 지금이 어느 때라구...)

포롱... 포롱... 포로롱!

정원의 버드나무에 한무리의 새들이 줄레줄레 날아든다. 재잘거리는 새들의 지저귂소리가 창문으로 흘러들어 고즈넉한 방안의 정적을 흔들어 깨운다.

침대위에 누워있던 김원구가 새들의 청아한 울음소리에 홀린듯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서고있었다.

병색이 도는 그의 부석부석한 얼굴은 몹시 심중한 빛을 띠고있었다. 어느덧 새들의 울음소리는 고조에 이르고있었다. 제나름으로 울어 대는 지저귂이었으나 하나의 숨결과 선률에 맞춰진 합창이다. 티없이 맑은 음조와 정연한 리듬을 탄 그 합창은 신비로운 동화세계를 방안에 펼쳐놓았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미새는 새끼들의 주둥이에다 먹물것을 물려주는라고 그 고운 목청을 한번도 돋구지 못한다.

(허허, 저 무심한 날짐승에게도 제 새끼가 그렇게 귀중한것인가. 아마 피를 나눈 그것때문일테지...)

포로롱!...

때아닌 회오리바람에 삼단같은 가지들을 휘여잡힌 버드나무는 일시에 새무리를 털어버린다.

정적... 환희로움에 잠겼던 버드나무의 평화로운 가지들이 강풍을 안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김원구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더는 들을수 없는것이 아쉬웠다. 먹이를 물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고무공처럼 뚱뚱 날아다니던. 어미새의 모습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있는듯하다.

그는 건평 수산사업소 초급당비서이다.

부임한지 석달만에 병진단을 받고 중앙의 어느 큰 병원에 입원한지가 석달 가까이 되어온다.

처음에 담당의사는 그에게 《절대안정》이라는 의학적 감시를 붙여 놓았다가 20일전에 그를 경환자 일과표 생활에 편입시켜놓았다. 그렇다고 그의 병을 회복이라는 말로 대치시키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치료기일을 요해야만 하였다. 이런 그에게 사업소 기사장이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조직을 잘못하여 계획을 못했다는 소식과 함께 계획을 못한 원인은 전적으로 기사장 리인철이한테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당에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날아들었다. 조직부비서가 보낸 그 편지에는 그에게

규률문제를 보자는 의견까지 덧붙여왔다. 대상이 기사장이어서 문제처리에서 심중해야 하는만큼 당비서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라는것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기사장이 자기 잘못을 끝끝내 인정하지, 앓은데 있으며 새로운 프랄도입을 위해 무어졌던 기술혁신조까지 해산시켜버린데 있었다. 사업소의 이런 형편을 두고 김원구는 더이상 침대에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담당의사를 찾아간 그는 무작정 퇴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그의 제의를 단마디로 거절해버렸다. 서로 양보할줄 모르던 그들의 싱갱이는 일주일동안만 나가서 일을 보고 다시 병원에 들어와야 한다는 임시 퇴원안으로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김원구가 그동안(일주일)에 먹을 약과 담당의사가 밤새 작성한 치료일람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병원문을 나선것은 다음날 오후 였다...

저녁차로 건평역에 내린 김원구는 수산사업소쪽으로 가는 빠스를 타려고 정류소를 향해 바쁜 걸음을 놓고있었다.

서산에서 뉘엿거리는 해가 노을을 피워놓아 땅도 하늘도 온통 감빛으로 되어버렸다.

역전광장을 꿰질러 가던 김원구는 누군가 자기를 찾는 소리에 뒤로 돌아섰다.

뜻밖에도 승용차운전수가 자기를 향해 벌죽벌죽 웃으며 쫓아오는것이였다. 군대에서 정치위원의 차를 몰았다는 그는 날과람이 있었고 눈썰미가 여간 재지 않았다. 오래동안 떨어져있다가 뜻밖의 장소에서 그를 만난것이 김원구에게는 여간 반갑지 않았다. 운전수는 안기다싶이 달려오더니 당비서앞에 군대식으로 차렷자세로 서는것이였다.

《당비서동지, 안녕하십니까?》

보기만해도 의젓하고 릉름한 모습이였다.

《그동안 몸두 나구 키두 더 자란것 같구만. 하 하... 이젠 우리에게두 새서방감이 있다구 소문을 내야겠네. 어때? 하하하.》

젊은 운전수의 어깨며 잔등을 두드려주며 웃는 김원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길가던 사람의 걸음을 멈춰세우기까지 하였다.

《참 비서동지두, 길가던 사람이 들겠습니까.》

운전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몸돌바를 몰라 한다.

《들으면 어때. 보오, 저 처녀동무도 동무를 결눈질해보질 않나.》

김원구는 자기들쪽으로 눈길을 돌렸다가 그의 말을 듣고 황황히 달아나는 처녀를 턱으로 가리키며 운전수의 실박한 어깨를 또한번 두드려냈다. 퇴원해

오면서 기사장 인철이로 하여 개운치 못했던 그의 마음은 젊음과 건강미가 한껏 풍기는 운전수의 출현으로 해서 봄눈처럼 녹아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노상 대상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간격없이 익숙되어 버리는 그의 천품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왔소?》

《비서동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일주일간 퇴원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병이 아직 회복도 못되었는데 그러다가 더 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는바와 같이 난 이렇게 건강하오.》

《거짓말 마십시오. 의사들도 썩 근심하던데...》

《됐소. 그말은 동무만 알고 비밀에 붙입니다.》

《저...》

《명령이요.》

《예.》

군사복무기간에 명령에 습관된 운전수는 차렷 자세로 대답을 하고는 뒤더수기만 썩썩 굵적이며 쪽스러운듯 얼굴을 붉혔다.

승용차는 떠났다. 역광장을 벗어나자 차는 인츰 잔솔밭이 펼쳐진 바다기슭을 한옆에 끼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차창으로 파도소리, 물새의 울음소리를 실은 일렁이는 밤바다의 컴컴한 풍경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래, 봐둔 처녀가 있소?》

《?》

뜻밖의 물음에 운전수는 당황하였다.

《대답이 없는걸 보니 약속한 처녀가 있는 모양이군.》

《아닙니다. 저... 아직...》

《하하하... 그렇게 바빠할 필요는 없소. 사업소에 좋은 처녀들이 많은데 내가 하나 소개해줄가. 그때 어떤 처녀를 요구하오.》

처음에 통담비슷하던 당비서의 말이 점점 정색해지자 바빠맞은것은 운전수쪽이었다.

승용차의 속도가 점점 떠진다.

그에게는 아직 약속해둔 처녀는 없었지만 행동공간에서 일하는 옥숙이라는 처녀를 생각해보는 때가 있었다. 그 처녀는 기사장의 처제였다. 이미 조용한 솔밭을 뒤편 거닐어본적도 있었다.

기사장의 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그 생각도 자연 복잡하였다. 공연히 불붙는 집안에 뛰어들건 뭐람. 그러나...

《허허, 총각이 꼴문 병어리가 된걸 보니 없긴 없는 것 같은데... 좋아, 그 문제는 나한테 맡기라구.》

이 순간 김원구는 기사장의 처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아귀를 짓고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에 굳어져갔다.

승용차는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당비서의 퇴원은 기사장 리인철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한것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번져가고 있는 문제가 이제 곧 바로잡히게 될것이기때문이었다.

어제밤도 뜬눈으로 밤을 밝힌 그는 날이 새기 바쁘게 병원에서 퇴원해 나온 당비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르기 시작하였다.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간단히 치른 인철은 사무실에 들러 사업수첩을 꺼내들었다. 몇분후이면 당비서를 만나게 된다. 당비서도 출근을 했는지 푸른철을 한 창문들이 활짝 열려져있었다. 어쩐지 심장이 후두둑 뛰면서 가슴이 두근거려났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사리에 맞게 풀어나가는 수완을 가지고있는 당비서여서 어떤하련만은 어쩐지 이번 일에 대한 위구심이 은근히 가슴을 조이고있었다. 인철은 당비서를 만나기 앞서 그간에 있는 일을 한번 상기시켜보았다. 어느면으로 보나 자기의 잘못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들이 스쳐보는 사소한 현상에서도 전혀 예상할수 없었던 문제를 끄집어내어 상대방을 아연실색케 하는 당비서의 예리한 통찰력앞에 매사에 심중해야 한다는것을 인철은 모르지 않았다.

자기가 옳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다듬은 인철은 앞상우에 펼쳐놓은 사업수첩을 덮었다. 이제는 당비서를 만나도 주저할것이 없을것 같았다.

현장을 뒤로 밀며 자리에서 일어나던 인철이가 선택로 굳어지고만다.

때아닌 종소리가 그를 선자리에 붙잡아놓았던것이다.

(무슨 전화가?)

《기사장동무요? 뭘 날 찾아오던 길이였다구?... 음 알겠소. 내 이제 그리로 가겠소.》

전화를 건 때로부터 당비서가 기사장의 방에 나타난것은 인철이의 방금 피워문 담배가 절반쯤 탔을 때였다.

그들사이에 인사차림이 오고간후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담배연기만 자욱히 어려왔다.

《동문 어째서 새로운 프랄의 불가능성을 그렇게도 완강하게 고집하오?》

《오를수 없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했다고 될수 없는 일에 로력과 자재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구 봅니다.》

《그러니 동무 말대로 한다면 새 프랄은 안된다는 거겠소.》

당비서의 손가락끝에서 저절로 타들어가는 담배가 은실같은 연기를 피워올리고 있었다.

《지금 형편에서 그렇게 보는것이 착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이나 실패한것을 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까짓 확대판이나 뜯어고치는 식으로 새 프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이미부터 그걸 인정하고싶지 않았습시다.》

뚜벅뚜벅...

조용한 방안에는 당비서의 발자국소리만이 무겁게 울리고있었다.

《그렇다... 그렇단말이지... 그러니 동무 말대로 한다면 사업소가 겨울철물고기잡이계획을 못한것도 응당하단말이겠지. 누구한테도 아무런 책임이 없이 말ियो.》

《제 생각엔 책임을 따지기전에 계획을 못하게 된 원인부터 알아봐야 한다고봅니다.》

갑자기 당비서의 발자국소리가 똑 멎었다.

창문쪽으로 향해있던 그의 몸이 인철이쪽으로 휩 돌아섰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지 꼭 다문입술이 실룩거린다.

《...금년같은 이상기후조건에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글썄 그놈의 물고기들이 물에 떠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어떻게나 조화를 부리는지... 정말 바다의 그 변화무쌍한 현상을 무슨 힘으로도 막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접시로 막아보는 격이라고 했으면 좋겠는지...》

《음-》

꼭 다물어져있던 당비서의 입술새로 새나온 성대의 진동소리는 방안의 공기를 더한층 무겁게 하여준다.

인철은 안타까왔다. 그래도 당비서만이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줄줄 알았다.

수산부문에 문의한이 아닌 그로서 새로운 프탈이 어떤 과정을 걸쳐야 현실에 옮겨질수 있다는것쯤은 모르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인철은 이름할수 없는 고독감에 말려 들어가는 자신의 마음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방안에는 당비서의 발자국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부석부석한 얼굴에 실주름이 열기설기 패워져있었다.

숨가쁜 침묵의 순간이 그들사이를 배회하고있었다.

인철은 병원에서 갓 퇴원한 당비서를 너무 괴롭히는것 같은 자책감이 들었다.

가서지지 않은 얼굴의 병색은 당비서의 병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무슨 말을 해서라도 당비서를 위로해주고싶었다.

《비서동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겨울철의 교훈을 놓고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말고 금년엔 우에다 제기해서 현대적인 수입설비들을 좀 받아올 결심입니다.》

《뭐라구?! 그래 결국은 그것이였구만!》

《예?! 무슨 말씀인지...》

《동문 지금 자신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걸 모르고있는것 같소. 지금처럼 하다간 동무를 영영 건져내지 못할것 같소.》

《저는 비서동지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줄은 몰랐

습니다.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장상태가 변한게 무슨 제 탓이라도 되는것처럼말입니다. 저도 일하자고 애를 쓰고있는 사람입니다.》

인철은 당비서와 부딪칠뻔한 눈길을 얼른 책상위로 떨구며 퍼놓았던 사업수첩을 덮어버렸다.

《기사장동무, 동무는 바다를 정복하는 일이 <하늘을 접시로 가리워보는것>처럼 어리석다고 보는데 그러면 새로운 프탈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동무의 그 견해를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는지 매우 의문스럽소.》

《그건 량심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형편을 넘두해...》

인철의 말끝을 잘라버리는 당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하였다.

《그렇다면 더 힘들여 연구하여야 될게 아니요., 그런데 동무는 어째서 새 기술혁신조를 해산시켜 버렸소. 이 사업소에서 동무외에는 그 누구도 연구해낼수 없다는거요? 동무는 언제부터 자기 파신에 빠진 사람으로 돼버렸소. 동무는 지금 당에서 우리 일꾼들이 어떻게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나라의 형편을 타개해 나갈것을 희망하고있는지 잘 알것ियो. 물론 곤난은 있소. 그러나 우리가 모두 곤난하다고 당에 손을 내밀고 외국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혁명은 누가 한단말ियो.》

《...》

인철의 얼굴에 비지땀이 내뿜었다.

《동무는 무엇때문에 새로운 프탈을 대담히 도입해서 때늦게 닥쳐온 추위를 무릅쓰고 물고기잡이 파업을 완성하려는 동무들의 뜨거운 마음을 무시하고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또 연구집단을 해산하며 독단을 부려 물고기잡이에서 우리가 비겁한 투항파로 되게 하는가말ियो. 그래 이것이 과학이고 또 동무의 량심이란 말ियो?》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부치는 일을...》

《뭐라구? 동무는 그래 모든 일이 그렇게 험하게 될줄 알았소. 동무가 어떻게 오늘까지 당의 기술일군으로 살아왔는지 의심되누만. 동무, 동무가 그래 당원이요?》

당비서의 목청은 격동으로 하여 떨려나왔다.

인철은 으스스 온몸을 떨며 두손으로 폭 숙인 머리털을 움켜잡았다.

인철의 얼굴에 비지땀이 내뿜었다.

기사장실을 나선 당비서의 걸음은 힘들게 옮겨지고있었다. 《기술과설계실》이라는 흰판에 검은 글의 패쪽이 붙은 문앞에서 그의 발걸음은 문득 멈춰졌다. 반쯤 열려진 문틈으로는 젊은 녀성의 청청한 목소리가 도간도간 흘러나오고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말소리에 자기와 기사장의 이름이 비치고있기 때문이었다.

《...비서동지가 퇴원해 나왔으니 무슨 일이 생길거

야.》

《무슨 일?》

《그거야 뻔하지. 기사장한테 책벌이 적용되든가 아니면... 계획까지 못했는데다가 독단을 부려 기술실을 해산해 버렸는데 무사할것 같애.》

《언니두 그런 험한 소리를 함부로...》

《애애, 그만둬. 어디 나쁜인줄 아니. 기사장에 대해 사업소안이 뒤숭숭한데 넌 그것도 모르고있니. 박진숙기사언니일이 정말 안됐어. 그렇지 않아도 남편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이고있니. 뭐 언니가 연구사업을 하니 집을 돌보지 않는다고 늘 나무란다. 그래서 기술혁신조까지 해산시켰는지 몰라. 그리고 또 요즈음 기사장은 집에서 큰소리만 친대. 마치 제가 잘한듯...》

김원구는 문전에서 물러났다. 점점 험악하게 번져져가는 말을 더는 들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인철의 문제가 이렇게 가정적문제로까지 심각하게 번져진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김원구다.

탕! 탕! 타당!

아래층 복도에서 바람을 안은 현관문이 닫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복도의 바닥이 울리고 창문이 드르릉거린다.

X

한동안 찾아오던 사람들로 붐비던 당비서실은 퇴근시간이 되자 조용하여졌다.

쏘파등받이에 기대여앉은 당비서 김원구의 심정은 착잡한 생각에 깊이 말려들어가고있었다.

사람이 어찌면 그렇게 되었을가... 정말 모를 일이였다. 한때 인철은 도내 수산부문에서도 한다하는 일군중의 한사람이였다. 젊고 열정이 있고 기술에서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도당에 있을 때 김원구는 해당부서와 동무들을 통해 그의 사업을 자주 알아보곤하였다.

그때마다 인철이에 대한 평은 《한다 하는 일군》, 《전망있는 사람》, 《통이 크고 대담한 지휘관》으로 평이 내려지곤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사업총화에서 그의 이름은 자주 성과 부분에만 비치곤하였다,

건평수산사업소 초급당비서로 임명될 때에도 그곳에 인철이가 있다는것으로 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웠던 김원구였다.

그런 리인철이가 도리어 집이 될줄이야...

그는 쏘파의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주위를 거닐기 시작했다.

창너머에서 보름을 재촉하는 상현달이 머리를 가웃거리며 방안을 엿보고있었다.

멀리 달빛이 푸르스름하게 깔린 밤바다는 우중충한 밀림처럼 보였다.

그 우중충한 밀림의 아득한 공간을 한가득 채우고 있는 수억만의 별들이 바다물결에 부서지는 달빛과 한데 어울려 신비로운 빛의 세계를 이루고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삼태성만은 나란히 손을 잡고 바다 위에 떠있었다. 몇억만년이 될지 모르는 허구한 세월 삼라만상들이 널려있는 우주의 한복판을 변함없이 의종고 다정하게 걸어온 별형제...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불렀을가, 삼태성이라고.

문득 김원구의 눈앞에는 새무리들이 줄레줄레 날아들던 입원실 정문의 그 버드나무가 삼삼히 떠올랐다.

포로롱! ...

부드럽고 은은한 어미새의 퍼덕임소리가 마음의 갈피를 들춰놓는다. 그 드린 마음의 갈피속으로 다정한 별형제의 속삭임이 한줄기의 빛이 되어 살뚫이 스며든다.

《비서동지가 퇴원해 나왔으니 무슨 일이 생길거야... 기사장한테 책벌이 적용되든가 아니면 그자리에 서 해임되던가...》

뒤구석에서 수군덕거리던 수다스런 녀인들의 말소리가 김원구의 심연속에서 깃을 퍼던 어미새를 어디론가 날려보낸다. 포르릉... 여운만이 맴돈다. 다정한 속삭임을 안겨주던 별형제의 그 정겨운 반짝임도 허공중으로 날려보낸다. 사정없이... 허전한 마음뿐이다. 김원구는 당일군의 사명을 놓고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가 없었다. 일을 잘못하면 책벌이나 주고 자리에서 떼던 지는것과 같은 일은 제일 손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에서 그렇게 수십년동안 키워놓은 기술일군 하나를 일게 될것이다.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 혁명의 중임을 지고나갈 젊은 지식인들이 아닌가! 혁명동지를 버린다는것은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전쟁의 포화속에 잃은 전우들을 불안고 눈물머금던 그날 천금보다 귀중한것이 동지임을 가슴통절히 느껴온 그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를 구원할것인가...

방과제를 들이받는 파도소리가 쿵쿵 들려온다. 그 파도소리에 실린 회억의 물결이 김원구의 가슴팍을 두드린다.

어느덧 김원구의 마음은 물결에 동등 뜬채 20년전의 기슭으로 밀려가고있었다.

...그것은 수산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김원구가 갓 입학한 신입생들을 데리고 어느 수산사업소에 견학실습을 나갔을 때에 있는 일이었다.

때는 문어잡이 철이었다.

물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는 돌섬근방에서 문어가 많이 잡힌다는것이 학생들의 구미를 부쩍 동하게 했다. 그중에서도 인철의 관심은 각별하였다. 해염을 치면 잠간사이에 가닿을것 같은 돌섬근방에서 문어가 많이 잡힌다는것이 어쩐지 신기하기만 하였다. 그는 자기 손으로 문어를 꼭 잡아보고 싶었다.

어느날 밤 인철의 휘둥에 걸려든 몇명의 학생들이 누구도 몰래 계선장의 범선에 몸을 실었다. 폭우가 터진 새벽녘이 되어서야 김원구는 인철이를 비롯한 몇명의 학생들과 계선장의 배 한척이 없어 졌다는것

을 알게 되었다. 집채같은 파도와 광풍이 태질하는
갑갑한 바다에서 학생들을 찾을 길이란 막연하였다.

불안과 절망, 행여나하는 한가닥의 희망이 겹쳐드
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김원구의 애간장을 바질바질
래왔다.

온 사업소가 펼쳐나서 돌섬의 바위쥬에 얹디여 있
는 인철이네들을 찾아낸것은 새날이 밝을 무렵이었
다. 그들의 손에서는 목줄을 잡히운 문어가 요동을
치고있었다. 이런 그들에게 어로공들은 저저마다 한
마디씩 던지였다.

《허... 그너석들 체통은 작아도 담들은 크단말이야.
그만하면 훌륭한 바다사람이 될수있어.》

《무슨 소리. 이너석들 진정한 바다사람이 되겠거
든 제멋대로 살려는 그 골통부터 고쳐야 해.》

김원구 자신도 바다에서 자유주의는 만회할수 없
는 후파를 가져온다고 얼마나 이야기해왔던가. 신랄
한 비판의 파력이 된 인철이네들은 조직과 집단의
호된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인철이만은 자기 결함
을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바람이 터졌으니 망정이지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걸 가지고 공연히 떠든
다고...

김원구는 조직과 집단의 영예를 훼손시킨 리인철
이한테서 학급반장 자리를 떼내였다.

며칠후 김원구는 상급당의 소환을 받고 학교를 떠
나갔었다...

《음, 그놈의 고집이 다시 머리를 추켜든단말이지
...》

김원구는 조용히 입속으로 되뇌였다.

×

퇴근길에 오른 김원구는 어둠에 잠기기 시작한 사
택마을을 지나가고있었다.

오늘 오후 안해한테서 기쁜 소식을 적은 쪽지편지
가 날아들었다. 몸을 푼 딸애 (그에게는 시집간 딸이
있었다)가 오늘 산원에서 퇴원해 나왔는데 외손자를
안아 보고싶은 생각이 있으면 퇴근후 인차 집에 들
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외손자를 볼 생각은 아예 하
지 말라는것이다. 안해의 편지구절을 더듬어보는 그
의 눈가에 느슨한 미소가 어렸다.

(너자들이란 그저...)

집에 들어가 외손자를 안아볼 생각에 그의 걸음도
자연히 빨라졌다.

(그너석 누구를 닮았을가. 외견으로 기울어졌으면
나를 닮았을텐데...)

그래야 안해한테도 그너석 제 할애비를 닮아 이목
구비가 쑥 빠진게 참 잘생겼다고 빼길수 있을것 같
았다. 하긴 키가 작달막하고 코가 돌창코 인데다가
얼굴에 주근깨가 다문다문 한 좀상스러운 로친네에
비하면 룡척의 장승인 이 김원구가 좀만 잘났다고
할가...

갓 태어난 외손자로 해서 환기된 감정이여서인지
는 모르나 가정적분위기에 말려들어가는 그의 마음
속에 오래전에 사라져내린 천진성이 되살아난 듯실
다.

《누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그럴래.》

《가긴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 빨리 집에 들어 가
자.》

《싫어, 엄마한테 갈래.》

저녁안개를 뚫고 들리는 아이들의 야무진 말소리
에 정신을 차린 김원구는 자기가 지금 걷고있는 발
길이 낯은 판자올타리를 두른 기사장의 집앞이라
는것을 알게 되었다. 반쯤 열려진 부엌문으로 내비
치는 흰한 전등불빛속에 아이들의 모습이 확연히 안
겨왔다. 분명 자기를 현실로 되돌려세운 그 목소리
의 임자인것 같았다. 김원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쪽으로 되돌아섰다. 그동안 아이들이 퍽 컸으
리라는 생각에 뒤이어 보고싶은 생각이 들어 김원구
는 마당안으로 들어섰다.

《경희야, 잘 있었니, 너희들은 여기서 뭘하니?》

김원구는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인철의 딸딸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앞에서 오금을 꺾었다. 누나의
손에서 빠져나온 여라문살 돼보이는 남자에게 김원
구의 품에 와락 안긴다.

《큰아버지, 누나가 자꾸 때려요.》

《큰아버지, 경일이가 내 빨간 원주필을 못쓰게 만
들었어요.》

아이들은 겨끔내기로 상대방의 《죄》를 김원구
한테 고해바치였다. 그는 랑쪽 팔소매에 매여달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어디 갔니?》

《저 무슨 종이장들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니야, 설계도면이라 했어.》 경희가 경일이의
말을 가로챘다.

퇴근후에도 그 어텐가에서 또 설계도를 안고 모대
길 진숙이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김원구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났다. 남편이 지은 파오때문에
당에 끼친 크나큰 손실을 하루바삐 가시려는 진숙이
의 마음이 헤아려져서였다.

《아버진?》

《아버진 아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버진 요즘 늘
성만 내요. 큰아버지, 영수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비판을 받는대요. 그래요? 큰아버지, 아니지요?
요?》

김원구의 무릎에 달짝 올라앉은 경일이 녀석이 그
를 빤히 쳐다보며 묻는 말이다.

경일이의 눈엔 천진하면서도 그 무슨 절절하달만
치 기대가 차있었다.

《...? ...》

김원구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철없는 어린것의 질
문이 고추가루를 버무려놓은 범벅덩이처럼 명치끝
을 쓰리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줄만한 말을

고를수 없는 이 순간 자신이 더더욱 야속하게 생각되었다.

언뜻 눈길에 스치는 한줄기의 애수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 한점 그들과 그 무엇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찾아내어 따뜻한 품에 안아 소원을 이룩하여주었을 때야야 당일군으로서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것이다. 당일군들속에서 흔히하는 마음의 빚이라는 말로 통용되군하는 그 책임감앞에서 순간의 외면도 해본적이 없는 김원구다. 이런 그가 오늘저녁 철없는 어린것에게 한마디 대답도 해줄수 없는 자신이 여간 무능력해 보이지 않았다.

황황히 얼굴을 돌려 방안의 이구석 저구석을 더듬는 그의 눈길에 방 저쪽 그릇들이 쉼겨져 있는 밥상에 가서 멎었다.

수를 놓은 옥당목보자기를 썩은 네모난 밥상, 보기만 해도 이 집 주부의 알뜰한 솜씨가 엿보인다.

《그래 저녁들은 먹었느냐?》

《예, 큰아버진?...》

《오- 나말이나. 먹지 않구.》

김원구는 밥상보자기를 들어보았다.

빈그릇들뿐이다.

《엄만 늘 이런 글을 써서 밥상우에 놓군해요.》

경일이녀석이 뾰르르 달려오더니 방바닥에 떨어진 종이쪽지를 김원구앞에 내민다.

《경일아, 경희야, 일이 있어 엄마는 늦게 온단다. 경일이가 좋아하는 감자절개는 찬장안에, 경희가 좋아하는 계란국은 국가마에 있다. 저녁은 먹고 자거라. 싸우면 안돼. -어머니-》

확실히 애들의 어머니는 찬찬한, 녀성이었다. 집안의 어느 구석을 봐도 기쁨기가 반지르하게 돌고 있었다.

침대머리에는 바늘을 펜대로 착착 포개어놓은 폭신한 모세타가 보였다. 남자용이었다.

《이건 누구 해니? 참 좋구나.》

《아버지거야. 우리 엄마가 점심먹으러 와서도 뜨고 저녁에도 떠요. 이걸 다 뜨고 내걸 뜬다고 했어.》

경일이는 제법 신이나서 팔소매도 없는 옷을 제몸에 대보며 으시대었다.

이런 녀성한테서 인철이가 느껴진다는 불만은 어떤것일까...

《큰아버지, 나 숙제검열 좀 해줘요.》

경일이녀석이 가방안에서 꺼낸 수학숙제장을 김원구앞에 내놓는다. 글씨가 좀 판잡한외에는 안갈기 부호를 하나 잘못친것뿐이고 문제들은 정확하게 풀어져있었다.

김원구가 부호를 잘못친 문제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더니 경일은 제격 고쳐놓았다. 그리고는 김원구를 힐끔 쳐다본다.

《우리 경일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허허... 10점이다. 10점!》

김원구는 경일의 숙제상에 10이라는 수자를 빨간색연필로 크게 써놓았다.

경일의 입이 헤벌쭉해진다. 그런 어린것에 눈웃음을 보내며 김원구는 숙제장을 덮은 다음 가방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경일이녀석이 그의 손에서 숙제장을 앗아낸다.

《큰아버지, 여기다 <아버지 검>이라고 써야 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가 하는데 씨- 나만은 엄마가 늘 하거든요.》

아버지 검... 그래서 경일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일까. 아이들의 생활에서 아버지란 없어서는 안될 어린 녀의 기동이다.

그러한 아버지들이 가정생활의 한복판에 기동으로 튼튼히 뿌리를 내리게 하고 사람들앞에 떳떳이나설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자기들, 당일군들에게 있다는 자각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김원구는 방바닥에 엎드린채 잠든 아이들의 잠자리를 구들아래목에 잡아놓았다.

경일이녀석은 무슨 좋은 꿈을 꾸는지 씨물씨물 웃기까지 한다. 잠든 아이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김원구의 심정은 착잡한 생각들로 뒤엉키기 시작하였다.

(이 철없는것이 아버지를 그토록 기다리고있는데... 인철이는 어찌하여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가. 퇴근시간이 지난지도 오랜데. 제시간에 돌아오게 깨우쳐줘야지... 낮에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아마 지금쯤 어디서 고민하겠지... 음, 자기를 잘 뉘우치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되씹는 김원구의 가슴은 짜릿이 아파났다.

밤이 깊도록 애들의 부모들은 도라오지 않았다.

다 어디로 갔을까...

×

똑 ... 똑...

뒤이어 들어선 사람은 운전수 용석이었다.

그의 출현은 김원구를 여간 기쁘게 해주지 않았다.

《비서동지, 중사... 아니... 저 운전수 차용석 만날수 있습니까?》

아직 군대생활의 때를 벗지 못한 그였다.

《암, 만날수 있구말구. 자, 그렇게 서있지 말고 여기 와서 앉소. 어서, 마침 중사동무를 만나려던 참인데 이렇게 와주어서 고맙소.》

김원구는 창문쪽에 놓여있는 소파를 가리키며 그 자신도 거기에 털썩 주저앉는것이였다.

이 청년만 만나면 어둡던 마음도 고무풍선처럼 가벼워지군하여 어떤 때는 그를 기다리게 되는 때도 있었다.

《우리 여기에 앉아 이야기나 하자구.》

용석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김원구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비서동지, 오후에 도당에 갔다가 몇시쯤 돼서 올

것 같습니까?)

《글쎄… 그런데 그건 왜 묻소?》

《저… 아닙니다. 그저 좀…》

용석은 말을 더듬으며 자리에서 움쑥 일어섰다. 전에 없던 행동이었다. 당비서방에 들어오면 하다 못해 물이라도 한바케뜨 떠다 놓고 가던 그였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아닙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가만, 그래 그걸 묻자고 날 찾아왔소?》

성난듯한 당비서의 말에 용석은 그자리에 못박힌 듯이 서버렸다.

《허허… 그러지 말고 여기에 와앉으라구. 내 물어볼 말도 있는데…》

김원구는 용석의 팔을 잡아끌어 그를 소파에 앉혀 놓았다.

《그래 요새두 옥숙이를 만나오?》

《…?!》

《그렇게 놀랄건 없어. 그런데 대답이 없는걸 보니 처녀한테 실련을 당한 모양이군.》

용석이를 일별하는 당비서의 눈가에 느슨한 미소가 함뿍 어렸어었다.

며칠전, 퇴근길에서 밤산보를 하던 그들과 마주 칠번하였다. 그때 김원구가 얼른 자리를 피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열이 오른 젊은이들의 사랑의 흥취를 깨뜨릴번하였던것이다.

이런 당비서인줄을 용석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는 당비서를 힐끔 쳐다보고나서 목단추를 와락와락 열어제끼었다. 몹시 흥분한 모양이다.

《이젠 그 동무를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왜?》

《왜라니요. 기사장동무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집안인데 오늘 그 동무는 압축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랭동창고 물고기들 몽땅 썩일번했지요. 예익. -무슨 동무가 그런지…》

《음-》

김원구의 입에서 아픔을 이겨내는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한동안 방안은 침묵속에 잠겨버렸다.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활짝 꽃피어야 할 사랑이 움도 트기전에 된서리를 맞는것이 김원구에게는 못내 아쉬웠다.

김원구는 자신의 어깨에 덧놓여지는 또하나의 무거운 짐을 뿌듯하게 느꼈다.

《그렇다고 만나는걸 그만두면 되나. 만나서 따듯이 위로도 해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타일러도 줘야지. 난 사랑이라는데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용석이 생각은 어때?》

당비서의 시선이 상대방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용석이를 일별하고있다.

《저, 비서동지, 알았습니다.》

용석은 기다렸던 대답이라도 들은듯 붉어진 얼굴

에 빙긋빙긋 미소까지 피웠다.

《그럼 오늘저녁에 만나서 약속하라구. 내 시간을 보장해줄테니.》

《예!》

당비서는 책상서랍에서 담배갑을 꺼내더니 용석에게 한대 넘겨주고 자기도 한대 붙여물었다.

《이것 보라구 용석이, 사랑이라는데 그 어떤 타산보다도 서로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마음이 아니겠소. 신뢰하고, 믿어주구… 사람은 하나 버리는거야 쉽지. 그러나 피로움도 기쁨도 함께 나누며 고락을 같이할 한생의 동지를 얻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동문 로동당원인데 사랑도 로동당원답게 해야지. 오늘 좋다가 래일은 싫다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소? 오늘저녁에 옥숙이를 꼭 만나보오.》

《그럼 비서동지는?…》

《허허 내 걱정은 마오. 동무들이 좋다고 하면 내 천리를 걸어서 간들 힘들겠소. 자 그럼 어서 가보오.》

용석이를 문까지 바래주고난 김원구는 한동안 방안에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기능이 높은 옥숙이가 어떻게 돼서 사고를 쳤을까?)

노을처럼 피어나던 즐거운 감정을 마치 용석이가 휘감아 가지고 간듯 고독과 적막감이 앙금처럼 가라앉기 시작한 당비서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언제나 드바쁜 사업여가에 느닷없이 고요가 찾아들 때면 김원구는 그 시간을 천금같이 귀중히 여겨왔었다. 늘 그 시간이면 사업수첩에 붉은 줄을 그었거나 방점을 친 부분, 의문표를 난 문제들이 그의 폭넓은 사색을 거쳐 현실에로 옮겨져 갔다.

반으면 가슴후련해지는 중고로, 아량있는 포옹으로!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습기찬 해풍은 뽕얀 운무를 기슭에 몰아왔다.

창백한 햇빛이 드리워져있는 대기는 흐린듯이 뿌연다.

부두를 지나 바다기슭의 모래불우를 걸어가는 그의 발밑에서 파도에 밀려나는 흰 거품이 부실부실거린다.

그는 지금 시험소 청사로 가는 길이다. 거기에는 이번에 다시 조직된 새 기술혁신조가 일하고 있었다.

바로 그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김원구였다.

바람은 점차 강풍으로 변해버렸다. 바람이 거침없이 열어대는 바다는 흰말기를 추켜드는 파도를 안고 세차게 몸부림치고있었다. 바다기슭의 절벽을 물어뜯는 파도의 울부짖음소리가 포성처럼 들려온다.

짝을 잃어버린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바위섬쪽에 서 처량하게 들려왔다. 흰 거품을 문 파도가 기슭까지 밀려나와 김원구의 발밑에 검질기게 감기군 한다.

순간 저쪽 잔술발속에서 얼굴을 찌른 처녀가 불쑥 나타나더니 후후 흐느끼며 김원구의 옆을 쏙살같이 지나가버렸다.

《애 옥숙아-!》

처녀를 찾으며 술발속에서 달려나오던 웬 녀인이 앞에 서있는 당비서를 보자 그자리에 돌처럼 굳어지고만다.

기사장의 안해 박진숙이었다. 그의 시선은 편리화를 신은 동그란 발등우에 떨어졌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저 동문 누구요?》

《저의 동생이에요. 오늘 사고까지 쳐서...》

모래불에 얼어붙은듯한 박진숙은 그자리에서 어쩔줄을 몰라한다. 김원구의 얼굴엔 느슨한 미소가 어렸다.

《방금 찾아가던 길인데 잘했소. 만난 길에 좀 걸으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래 확대판설계도면이 언제쯤은 될것 같소.》

《아직 ...》

《빨리 다그쳐야 할것 같소. 이제 먼바다에 나가는 모든 배들을 새로운 프랄화하자는것을 초급당위원회 결정서에 한조항 박아넣게 되오.》

그 말에 진숙은 무겁게 숙였던 머리를 번쩍들더니 두눈에 밝은 빛을 뿜었다. 그러나 이것도 순간 뿐이지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옥숙이가 어떻게 돼서 사고를 친것 같소 ...》

《...》

《...책임성도 높은 동문데...》

《비서동지... 전...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박진숙을 건너다보는 김원구의 눈길에 의혹이 무겁게 실려있었다.

《간혹 제가 괜히 새로운 프랄을 해보겠다고 나선것 같은 생각도 들곤합니다. 그저 말은 일이나 하고 남의 말밖에 모르지 않으면 되지 않을가 하고 말입니다.》

김원구는 박진숙이한테서 이런 약한 소리를 들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늘 봐야 말이 없고 조용하면서도 사색적인 탐구심은 사업소에 걸린 기술적매듭들을 풀어주곤하여 기사들중에서도 이채를 띠고 있었다. 이런 그가 몇년전부터 저층프랄을 새로운 프랄화할때 대한 기술혁신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중추적 고리인 확대판을 미달이식으로 개조하여 바다 밑의 임의의 층에서도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길을 모색해놓았던것이다.

그것이 여태껏 남편인 기사장 리인철이한테 놀리워있던것을 김원구가 이곳으로 오면서 빛을 보게 되었던것이다.

그런데 당비서가 임원하고있는동안 리인철이에 의해서 새로운 프랄도입을 위한 기술혁신조가 해산

되었다. 인철은 그때 안해한테 다시는 그 문제를 들고 다니지 말라고 되게 으름장까지 놓았던것이다.

《난 동무한테서 그런 나약한 한숨소리를 들을줄은 몰랐소. 새것을 위한 투쟁이 그렇게 쉽게 되면 구태여 거기에서 혁명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있겠소.》 하면서도 김원구는 박진숙의 심정을 심분 리해할수가 있었다. 그도 다름아닌 가정을 가지고 있는 녀성이며 더우기는 그 대상이 남편이라는 점에서 ...

《진숙동무, 그러지 않아도 내 좀 만나 물어보려던 참인데 남편이지만 인철동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줄수 없겠소.》

《...》

《다르게는 생각하지 마오. 어쩐지 사람이 그럴것 같질 않아서 하는 말ियो.》

박진숙은 인차 대답을 못하였다. 손에 쥔 마른 폴대를 토막토막 끊어내던 그의 얼굴에 그 어떤 결심의 빛이 내배이기 시작하였다.

《그이는 변했어요. 남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새는 얼핏하면 성을 내곤합니다.》

박진숙은 오늘아침에 있었던 일을 당비서앞에 털어놓았다.

...리인철은 밥숟가락을 드는등마는등 하다가 상결에서 물러나앉았다.

《여보, 어디 아프세요? 그런데 왜 밥을 잡숫지 않으세요.》

박진숙은 남편이 아침식사를 하다가 마는것이 못내 걱정스러웠다. 며칠동안 일이 바쁘다고 하며 집에 들어서면 식사나 바빠하고 나가버리는 남편이었으나 박진숙은 그 바쁜 아침시간에도 그가 좋아하는 식찬을 마련하느라고 부엌에서 잠깐 허리를 펴사이드 없었던것이다.

《어디 밥을 먹을 경황이 됐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이젠 모든게 끝장ियो. 비서동지까지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 사업소에서 되지도 않을 그 프랄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소. 지금 당비서동지는 먼바다 물고기잡이를 새로운 프랄화하겠다고 그 불편한 몸도 돌보지 못하고있소. 그래 당신이 책임질만한가 말ियो! 이젠 내가 무슨 낮으로 머리를 들고 다닌단 말ियो... 난 이젠 자격을 상실한 사람ियो. 저 작업복이나 마련하오.》

아버지의 침울한 목소리에 기가 질린 아이들이 밥 먹던 숟가락을 쥔채 어머니 얼굴만 뵈히 쳐다보고있었다...

《...비서동지, 그이를 좀 도와주세요.》

지난날엔 일에서 내밀성도 있었고 기술창안도 적지 않게 하였는데...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고 떠받들리며 살다나니 남의 말도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자기 죄를 아는 그는 지금 손뻘을 놓아버렸어요. 사람들속에서도 애아버지에 대한 뒤송송한 말이 떠도는데다가 그바람에 옥숙이까지 사고를 저질

렸으니 무슨 낯을 들고…》

박진숙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씹어삼키느라고 뒤말을 잊지 못하였다.

썩-썩-

그들의 머리우에서 술바람인지 파도소린지 분별할수 없는 자연의 광란이 태질을 하듯 몸부림치고 있었다.

×

협의회에는 선단장들과 선장들, 일부 어로공들까지 참가하였다. 다른 때 같으면 앉아서 줄거나 옆사람과 말장단을 벌려놓기가 일쑤였을 나이 지숙한 어로공들까지도 오늘날은 여간 긴장하기 않았다.

팽팽하여지는 협의회의 분위기를 감촉할수록 인철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져갔다.

방금전에 끝마친 어느 선장의 토론은 그의 급소에 가해진 드센 타격으로 되었던것이다.

《…지난날 우리 어로공들은 기사장동무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쑤지 못한다고 해도 그대로 믿었다. 왜냐 하면 기사장동무의 말대로 하면 영악없이 고기가 많이 잡혔기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요샌 허물어졌수다. 겨울철전투때부터 말입니다. 글썽 생각해보시우. 하늬만 탓하며 저 바다에서 옥실거리는 고기떼를 그냥 보내는 우리 어로공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말이웨다. 난 저충뜨랄만을 주장하는 기사장동무의 그 사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회의장은 물을 뿌린듯이 조용하였다.

《웁습니다. 저도 기사장동지의 그점이 리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로공들은 지난번 어로전투때 빈배에 앉아 가슴을 치던 일을 일생 두고 잊지 못할것입니다. 당에서 새로운 프랄을 하라하면 했지 거기에 무슨 딴 구실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명령받은 전사는 집행할 권리밖에 없다는걸 기사장동지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협의회에서 원양 어로전투를 기사장동지한테 맡기지 말것을 제의합니다.》

조용하던 회의장이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한때는 자기를 믿어주었고 자기 말이라면 적극 지지해주던 사람들이었다. 그들까지 지금 자기를 경원시하고있으며 자기 몸가까이에서 서두르며 물러가고있는것이다. 인철은 사람들속에서 높아가던 자기의 위신과 기술만능이 밀뿌리채 흔들리고있음을 절감하였다. 정신적허탈감에 빠진 그의 심혼은 모순속에서 헤매이고있었다. 머리가 아파났고 다 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자 며들지 말고 토론들을 계속합니다.》

김원구의 우선우선한 얼굴이 회의장을 향해 여유있는 웃음을 보내고있었다.

회의분위기가 팽팽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긴장해질수록 그만은 노상 얼굴에 웃음을 담고있었다.

《거 진숙동무가 왔습니까?》

김원구의 그 말에 뒤전에서 누군가 왔다고 대답한

다.

《우리 박진숙기사동무의 말을 들어봅시다. 저 기사동무의 토론을 들어보면 새로운 프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진숙동무, 어서 일어나 이야기하시오.》

인철은 오늘 협의회에 안해가 참가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있었다.

그리고 보면 안해앞에서 툭툭히 망신을 당한셈이다. 인철은 자기의 온몸에 가지 묶음이 닿는것 같았다. 이제 안해의 입에서 무슨 말이 터칠것인지 어떻게 알랴… 주석단에 앉지 않았다면 움쑥 일어서 나가고싶었다.

처음에 더듬거리던 박진숙의 토론은 점차 실꾸레미가 풀려나가듯이 거침이 없었다.

팽팽하던 회의장분위기도 가뭇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토론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빛이 함뿍 돌아나고있었다.

《…이렇게 우에서 설명한 원리에 기초해놓고보면 미달이식확대판은 바다물속의 임의의 층에서도 현대어로학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수 있을 정도로 그물을 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제기되는 난점은…》

거침없이 풀려나오던 박진숙의 말은 여기서 툭 끊어졌다.

인철은 안해의 설명을 듣고 놀랐다.

박진숙이가 제기한 그 난점 그것은 바로 자기가 연구한바 있는 류체학을 안받침하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왜서 여기까지 생각 못했을까? 아, 늦었어. 늦었어.)

성공을 내다볼수 있는 기쁨의 섬광이 눈앞에서 번쩍거렸다. 그러나 그는 벌써 그 섬광을 볼 자격조차 잃은 사람이 아닌가?

그 어려운 학술적인 문제들을 제기한 사람이 자기결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인철은 폭 숙였던 머리를 저도 모르게 번쩍 들었다. 안해가 있는쪽으로 머리를 돌린 그의 시선이 사람들의 머리우에서 안해의 눈길과 부딪친것은 한순간이었다.

인철은 안해의 눈길에서 이름할수 없는 야릇한 느낌을 받았다.

원망갈기도 하고 번민의 모대김이 깃든 서글픈 하소연 같기도 한…

협의회가 끝나자 곧장 자기 방으로 돌아온 기사장리인철은 허둥지둥 이 빼람 저 빼람을 열어제끼며 무엇인가 찾고있었다.

(가만, 내가 뭘 찾자고 했더라? 음, 그렇지. 책장 열쇠였지.)

인철은 그제사 안해가 더듬거리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 저… 바다밑의 임의의 층에서 확대판의 벌림

각을 유지하자면 저... 배의 속도, 물의 지향, 확대판의 부력, 파도의 장애와 같은 류체력학적인 고리들을 어떻게 전일적인 공간상에서 푸는가 하는것입니다.》

토론에서 안해가 남겨 놓은 숙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은 대학졸업론문을 쓸 때 깊이 연구한 문제가 아닌가.

조금만 방조주면 안해도 어렵게 생각해오던 숙제를 능히 풀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도 아득히 보이던 산봉우리가 수림을 지나면 앞에 척 나설것만 같은 환각속에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동안 씨름질을 해서야 인철은 책장자물쇠를 열 수가 있었다.

열쇠를 물고 들어가야 할 자물쇠입구가 녹이 쏠여있었던것이다.

책장문을 열자 매캐한 먼지냄새가 확 풍겨왔다. 책을 번질 때마다 먼지가 날렸다.

이 책 저 책을 뒤지던 인철은 책꽂에서 무슨 도면 같은것을 발견했다.

(무슨 도면인가?)

펼쳐보니 모서리들이 노랗게 되어버린 안해의 확대판도면이었다.

인철은 어떻게 되어 이 도면이 자기의 책장안에 들어있게 되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한잠만어야 그는 몇년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던것이다.

쉬는 날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존화면앞에 앉은 인철은 몇분후에 있게 될 축구경기를 자못 유쾌한 기분으로 기다리고있었다. 이때 옷방에서 안해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보, 이걸 좀 보여주세요.》

《뭐요?》

《도면 이에요.》

《도면? 이제 경기가 시작되겠는데 좀 있다가.》

《그럼 책상우에 놓아요.》

《그렇게 하오. 가만 그러지 말고 내 가방안에 넣어두오. 래일 직장에 나가 구체적으로 보고 의견을 주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안해는 남편한테서 도면에 대한 의견을 받지 못했다.

그 의견은 역증으로, 다시 가정불화로 번져 갔다...

그러던 도면이었다.

책상우에 퍼놓은 도면에 정신을 빼앗긴 인철은 창밖에서 나는 사람의 인척기를 감촉하지 못하였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기사장실의 창가에서 물러난 김원구의 눈가에는 가벼운 미소가 마냥 피어나고 있었다.

×

김원구가 자신의 몸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낄새도

없이 사무실 출입문에서는 손기척소리가 낮이나 밤이나 때없이 물렸다.

책상우의 전화기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질세라 노상 보채고있었다. 그동안 사업소에서는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먼바다물고기잡이를 새로운 프탈로 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벌써 일주일이 되다니... 참 세월이란...》

탁상일력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던 김원구는 창문가로 다가섰다. 밖에서는 아침부터 내리는 봄비가 시름없이 내리고있었다. 음산한 날씨가.

이런 날에도 김원구는 다층에서 시험프탈을 하게 될 해구를 선정하기 위해 해상조건이 먼바다와 비슷한 해구로 나가야 했다. 며칠째 바다에 나가 살다싶이하는 김원구다. 솜동복우에 비옷을 걸치고 양털모자까지 눌러쓴 그는 의자에 앉아 사출장화를 신었다. 이전에는 쑥쑥 들어가던 장화가 발목에 걸려 잘 들어가지 않는다. 한참만에야 김원구는 발등이 몹시 부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에서 움쑥 일어난 김원구는 출입문 고리를 잡다 말고 다시 돌아섰다. 천천히 책상옆으로 다가선 그는 한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시험소에 대주오... 진숙동무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지금 곧 내 방으로 와주오.》

박진숙이가 설계도면을 들고 당비서의 방에 나타난것은 한참후였다.

급히 달려왔는지 곤색데트론작업복앞섶을 펑펑하게 퍼놓은 그의 불룩한 앞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리고있었다.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요, 동무가 설계도면에서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연구소에 의뢰하여 해결 받겠다고 제기한 의견을 취소시켜달라는거요.》

《예? 그럼 그 부분은...》

《기사장동무에게 맡깁시다.》

《?!》

박진숙의 커다란 눈에 의혹이 가득 실린다.

《허허... 내 말이 믿어지질 않는 모양이구만. 오늘 중으로 도면을 가지고 기사장동무한테 가보오. 가면 방조를 줄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침묵만 지키던 남편이었다.

협의회가 있는 다음부터는 깊은 사색속에 잠긴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터해 나군하던 진숙이는 확실히 남편이 뭔가 달라져가고있음을 감촉하곤하였다. 어떻게 달라져가고있는지 그 까닭을 알수 없는 박진숙이로서는 달라져가고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새로운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었다.

《진숙동무, 초급당위원회는 먼바다물고기잡이전투 총지휘를 계속 기사장동무에게 위임할것을 결정하였소. 그런것만큼 이제부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와 토론하는것이 좋겠소. 결론도 기사장동무가 하게 될거요!》

순간 협의회에서 하던 어로공아바이의 말이 다시

박진숙의 뇌리를 아프게 때렸다.

《...저는 이 협의회에서 원앙어로전투지휘를 기사장동지한테 맡기지 말것을 제의합니다!》

그날부터 얼마나 많은 시각 바로 그 말마디를 생각하며 떨리는 가슴을 불안고 모대겼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각 약해지는 마음을 모질게 채찍질하며 입술을 사러물고 일했던가.

그런데 당조직은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믿음을 안겨주는것이 아닌가...

박진숙의 동그란 어깨가 가볍게 떨기 시작한다.

김원구는 어깨를 들먹이며 오열을 쏟아놓고있는 박진숙을 보노라니 눈곱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어디든 당의 믿음이 있는곳에서는 저런 모습들이 한껏 깃을 펴며 수없이 탄생하고있을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한없이 넓혀가고있었다.

부-ㅇ-!

출항을 재촉하는 배고동소리가 한적한 부두가에 부드러운 음향을 조용히 남겨놓고 어데론가 달려가고있었다.

눈석이에 질적거리는 부두에서는 어로부기사장을 비롯한 몇몇 일꾼들이 어로공들과 함께 출발전 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그들은 부두가에 나온 당비서를 보자 도로 들어가라고 만류한다.

《비서동지, 오늘은 파도가 심해서 못나갑니다.》

《허허... 내 걱정은 말래두. 이런 날에 배를 타는 맛도 괜찮다니까. 자 어서 출항하지요.》

언젠가 뒤에 다가온 운전수가 불그레해진 두눈을 껌뻑이며 당비서의 옷전을 당긴다.

《비서동지, 저 오늘은 돌아...》

《여, 이거 오늘은 새로운 프랄의 중요한 고리를 푸는 날인데 자 동무도 갈려면 갑시다. 어서...》

김원구는 운전수의 손을 다정히 끌어잡고 배전에 걸쳐놓은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았다.

들끓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배에 오르기 시작 한다.

《자, 닻줄을 쥐오. 저...》

인철이의 우람진 목청이 사람들의 소음을 뚫고 날아온다.

원구의 얼굴엔 흡족한 미소가 피여오른다. 그러나 이때 무심중 당비서의 손이 허리춤을 쥐고있음을 눈치챈것은 운전수 용석이뿐이었다.

파도가 방파제를 들이받을 때마다 지심이 쿵쿵 울린다. 부서진 파도가 물보라로 되어 후두둑 부두가에 떨어진다.

모두들 배에 오르기 시작한다. 갑판우에 한발을 짚고 배에 올라서려던 김원구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비칠거리기 시작하였다.

《비서동지!》

뒤에서 따라서던 용석은 조금씩 넘어지려는 당비서를 덤석 안아일으켰다.

《비서동지, 정신을 차리십시오.》

한참만에야 의식을 차린 김원구는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곳이 부두가에서 가까운곳에 있는 선단후계실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의 몸이 근심과 불안에 잠긴 눈길들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는것을 느낀 김원구는 병긋 웃음을 지었다.

진료소 간호원의 통통한 손길아래 맑은 유리관의 액체는 서서히 원구의 툭툭 뛰는 혈관속에 흘러든다. 원구의 얼굴은 점점 혈색이 돌고 풀려있던 그의 눈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배가 늦어지겠소.》

《아직...》

《자 날 좀 일으켜주오. 나때문에 배가 출항하지 못하면 안되오.》

《안됩니다. 비서동지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료소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를 도로 눌러놓았다.

리인철이가 휴계실에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선것이 이때였다. 뒤로는 박진숙이가 따라들어섰다.

《비서동지가 어디 계시오?》

김원구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리인철부부에게 길을 내주었다.

《비서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인철은 당비서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기사장동무가 왔구만. 허허, 참... 이 사람들이 날 여기에 잡아두고 바다에 못나가게 놓아주질 않소. 어서 명령을 펴구오. 떠나자구말이요.》

《안됩니다. 비서동지는 이 길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방금 평양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이면 일주일의 마감날이라구. 래일까지 병원에 도착시키라는 겁니다. 담당의사가 전화로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자, 이거 아직도 시간이 많지 않소!》

이렇게 말하면서도 김원구는 보건일꾼들의 그 뜨겁고 책임적인 정성에 눈시울이 젖어오름을 금할수가 없었다.

《저때문에 병원에서 나오신줄을 모르고... 비서동지... 저의 머리속 병을 떼여주시고 자신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원 사람들-》

방안의 사람들은 리인철의 물기어린 목소리에 조용히 어깨를 들먹이였다.

김원구는 리인철의 부촉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비서동지》 여기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프랄시험에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야 진짜 기사장동무의 모습을 보게 되누만. 그렇게 되니 내 마음도 기쁘오. 정말 병도 다 나은것 같소.》

사람들의 근심과 불안을 말끔히 가셔낸 부드러운

미소가 벌나비를 부르는 꽃향기처럼 방안에 한껏 넘친다.

《가만 저게 옥숙이가 아니요. 용석동무도 함께 왔구만. 저런... 웃는걸 보니 좋은 모양이지. 허허... 빨리 국수나 먹자구.》

《어마나!》

옥숙은 얼굴에 돌린 눈길에 용석이와 부딪치자 옆에 선 진숙의 잔등에 얼굴을 와락 묻어버린다.

방안에 폭소가 터졌다.

《기사장동무, 어쩔소. 내 생각에는 저 두 젊은이가 좋은 배필이라고 보는데 둘사이에는 벌써 약속이 돼 있지만 내가 중매를 서지.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에서 말아요!》

《선생님!》

이것은 인철의 입에서 그자신도 모르게 튀어나 온 말이였다.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보는 부름이였다. 김원구의 잔주름

많은 눈가에 온갖 시름을 다 털어버린 밝은 웃음이 조용히 물결치고있었다. 그 부름의 향기에 취한듯 김원구는 살며시 눈을 감으며 벽에 기대어 있었다. 다 자란 제자한테서 들어보는 부름이여서 이다지도 가슴을 치는것일가...

포르릉... 심연을 헤치며 날아드는 새 무리들의 그 부드러운 퍼덕임소리가 들리는듯. 아, 별형제의 속삭임은 또 얼마나 다정한것인가.

김원구는 부축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사장동무, 우리 함께 바다에 나갔다 읊시다!》

당비서의 그 목소리가 어떻게나 힘있고 확신에 넘쳤던지 누구도 바다에 나가려는 그를 만류할 생각을 못하고있었다.

초급당비서 김원구를 앞세우고 리인철, 박진숙이 들은 출항의 부두를 향해 힘찬 걸음을 옮겨가고 있었다.

맑게 개인 하늘과 바다사이로 무르녹아내리는 봄별이 그들의 앞길을 찬란히 비쳐주고있었다.

나도 그 별 하나 외 1 편

럼우봉

인차로 나온 서느러운 갯박엔
축하의 꽃보라인가 밤하늘의 별무리

캐고캔 쇠돌들도 함께 가잔듯
큰배아 타고서 발밑에 흐르는데

홍성이는 다리우로 간데라불 들고가니

이 또한 아닐가 흘러가는 별무리

쇠돌의 흐름우에 별무리 흐를 때
하늘 땅의 못별 내려 강물속은 별천지

알았구나 쇠란간에 기대어 강을 보니
저 별 하나는 나... 아, 나도 그 별 하나...

내 정끝은...

앞에는 성벽같이 막아선 막상
뒤에는 어머니조국이 지켜보는 눈길
내 틀어잡은
착암기 정끝은...

진정 조국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이 깊은 막장에서조차 알라고
암벽우에 새 좌표를 새겨가는
날카로운 강철북

오 광부의 한걸음, 한순간을
높뛰는 불꽃으로 말해주는
나의 랑심, 나의 의지인
너 정끝이어

나의 정끝이어!

너를 움켜잡았기에
내 언제나 뜨거운 이 가슴
사랑하는 조국과 마주 비비고
광부가 서야 할 시대의 첨단
너는 씩없이 짊어주고있거니

정녕 무딜줄 모르는
날선 너로 캐고캐는
더 많은 쇠돌로써만
나는 조국의 참된 아들
내 살리라, 조국의 이 정끝으로!

고전소설 《사성기봉》에 대하여

리창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제시한 지도에 의하여 최근 시기 수많은 민족고전작품들이 발굴되고 윤색되어 광범한 독자들속에 널리 읽히우고있다.

그가운데는 고전소설 《사성기봉》과 같이 아직 학계에 잘 알려져있지 않은 큰 형식의 작품들도 있다.

우리 당은 민족고전유산이 가지는 인식적가치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고전유산 발굴정리사업을 전면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었으며 과거 일제시기 우리 나라에서 없어졌거나 오늘 우리 학자들의 관심밖에 있던 고전 소설들을 구해들이고 연구하며 윤색, 출판하기 위한 사업을 포치하고 세심히 지도해주었다.

뿐만아니라 몇해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없어진 고전소설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한 작품의 자료 고증사업이 미진되자 그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구해들일 조치를 취해주었다.

당에서는 또한 고전작품은 우리의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에게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므로 그들이 잘 읽을수 있게 알기 쉬운 말을 윤색할데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참으로 당의 자애로운 품이 있었기에 총 97회 (원고지로 약 8,000여매)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인 《사성기봉》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야 자기의 문학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자면 문화유산 가운데서 탁후한것을 버리고 우수한것을 정확히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민족문화는 결코 빈터우에서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 조상전래의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건설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새로운 사회주의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잘 알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할줄 알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민족문화는 조상전래의 민족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건설되는것이지 결코 빈터우에서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결합시켜 민족문화의 우수한 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할줄 알아야 한다.

고전소설 《사성기봉》(네사람의 기이한 상봉)(일명 《림화정연》)은 작가가 알려져있지 않은 국문소설로서 작품의 사상적내용과 형상수법, 문체상 특성 그리고 중세문학조류와의 관계에서 고찰해볼 때 18세기에 씌여진것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여러가지 인쇄본과 수사본으로 전하여 지는데 인쇄본으로 출판된것만 하더라도 40여권 짜리, 13권짜리, 8권짜리, 6권짜리가 있는 방대한 량의 장편소설이다.

작품은 취급된 사회생활의 폭과 생활반영의 깊이 그리고 등장인물의 다양한 성격과 묘사의 생동성에 있어서 우리 나라 중세소설사에서 자못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500여종을 헤아리는 우리 나라 고전소설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영웅전기를 취급한 군상소설류, 가정인정세태를 반영한 가정소설류, 남녀간의 사랑과 인간개성해방의 지향을 담은 애정소설류가 많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 시기에 씌여진 큰 형식의 장편소설들(테컨대 현실적소재로 씌여진 《기연기봉》류와 꿈형식을 통하여 랑만주의적지향을 반영한 《몽》류 즉 《쌍천기봉》, 《옥루몽》, 등)이 그러한바와 같이 봉건통치계급내부의 인륜도덕적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것을 통하여 이리저리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에는 당대사회현실과 이 시기 진보적 문인들의 사상적립장이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17~18세기는 우리 나라에서 봉건통치체제가 급속히 와해되어가고 지배계급안에서 권력다툼이 극히 격화되고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실학자들을 비롯한 진보적문인들은 조정에서 간신들을 내쫓고 관료들의 탐오행위를 없애며 《어진》 판료를 등용하여 선정을 베풀데 대한 문제, 봉건적신분체도가 빚어내는 후과를 없애기 위하여 봉건사회의 테두리안에서 신분적차이를 줄 일데 대한 문제 등을 주장하였다.

작품에서는 이름없는 시골선비의 아들 립규가 간신들에 의하여 조정에서 쫓겨난 청렴결백한 량반의 딸들인 정, 연, 화 세 소저와 당시의 사회악에 의하여 겪게 되는 가지가지의 우여곡절에 찬 기구한 생활로정에서 인연을 맺으며 조정의 간신들을 몰아내

고 자기의 포부를 실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횡포한 봉건통치질서를 완화시키며 문란한 정사를 바로잡을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당시 봉건사회의 역사적 현실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시대의 선진사상에 공감하였음을 잘 실증하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또한 당대시기 봉건사회의 면모를 여러 측면에 걸쳐 폭넓게 보여주면서 양반계급상층의 생활을 위주로 하여 양민과 천한 신분을 가진 인간들의 생활도 그렸으며 시종일관 선과 악의 날카로운 대립속에서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찬양하고 추악한 것을 타매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부패타락한 봉건관료들과 그에 아부하는 인간들, 물건이나 돈에 유혹되어 갖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청렴결백하고 덕망과 의리심이 강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인물군상을 그에 대치시켜 형상함으로써 뛰어난 지혜와 높은 식견, 청렴 강직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어진》인재를 등용하고 국력을 강화하며 선정을 베풀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작품은 봉건적유교도덕의 테두리안에서나마 인간의 개성을 옹호하고 극심한 봉건적신분제도의 차이를 줄일 데 대한 사상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바로 당대봉건사회의 포악무도한 특권층과 탐관오리들을 증오하고 봉건적구속의 억압 밑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깊이 동정한 작가의 인도주의적 정신과 진보적경향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다.

작품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부분(1회~47회)에서는 중심주인공 립규와 정, 연, 화 세 소저와 인연을 맺는 과정과 그가 정계에 오른 다음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그리고 있고 둘째부분(48회~97회)에서는 립규의 처남인 정연경이 과거에 급제한 후 조정에 올라 재상인 러금오의 사위가 되는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립, 화, 정, 연 네 가정 자식들의 후일담이 펼쳐지고 있다.

작품에는 2대에 걸치는 인물들의 일대기가 폭넓은 생활속에서 그려지고 있는바 주인공들과 연계되는 인물들은 300여명에 달한다.

이 인물들을 군상별로 나누어 보면 긍정인물계열의 《어진》 관리들과 양반부녀들, 천민계층에 속하는 시녀들이 있으며 부정인물계열의 포악무도한 관리들과 양반계층부녀들, 재물에 혹하여 나쁜짓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천민계층들의 인물들이 있다.

긍정인물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형상의 묶을 담담하고 있는 것은 작가의 이상을 체현하고 있는 《어진》 관리들로 그려진 인물군상이다.

이들은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고 전횡을 부리는 간신들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 정사를 망치는 지방 관리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간들이다.

특히 작품의 중심주인공인 립규를 비롯하여 정연경, 진명, 러중옥 등 소설의 중요인물들은 기울어진 조정의 정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학문을 열심히 배우고 문무를 겸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전장에 나가 용감히 싸운다.

《어진》 관리들의 성격에서 주되는 특질은 조정의 간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뿐 아니라 불의를 징벌하고 의로운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어사인 연권(연소저의 아버지)이 조정의 권력은 틀어진 호유옹과 결탁된 지방관리인 리태현과 그 아들의 죄행을 다스리는 장면만이라도 돌이켜 보자.

연권은 간신들의 오해를 입고 쫓겨나 먼곳에 정배간 화경운의 딸 화소저를 지방관리인 리태현이 권력으로 다스려 머저리로 이름난 제 아들과 결혼 시키려다 실패한 후 온갖 모해를 다 꾸미고 있음을 알고 그의 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이 장면은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리몽룡이 어사로 되어 남원부사 변학도의 죄행을 다스리는 사건을 련상하리만큼 심각한 극을 안고 있다.

연권은 이 의로운 일을 한것으로 하여 호유옹의 모해를 입게 되며 마침내 조정에서 내몰려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정배살이를 떠나게 된다.

《어진》 관리들은 인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며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중심주인공 립규는 정소저의 시녀인 석가월을 열렬히 사랑한다. 립규가 조정에 오르자 황제도 립규가 석가월을 첩으로 얻게끔 명을 내린다.

하지만 립규는 석가월이 첩으로 되기를 원치 않자 그의 의사를 존중하고 단념하고 만다.

이것은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라면 남을 무참히 짓밟을뿐 아니라 녀성을 사람축에도 넣지 않고 멸시하며 더우기 천민계층에 속하는 시녀쯤은 제 마음대로 통락하던 봉건사회의 인륜도덕에 비추어볼 때 진정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립규가 가난속에서 허덕이던 한 농촌처녀인 양소저를 만나 그의 의사를 직접 묻고 백년가약을 맺는 장면을 생동하게 그리고 있다.

이것은 봉건적유교도덕에 얽매어 자유를 구속당하던 당시 현실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런 세부는 고전소설 《춘향전》, 《신유복전》, 《징을선전》 등에도 있으나 《사성기봉》에 그린 립규와 양소저의 연약장면은 보다 적극적이다.

긍정인물계열에 속하는 봉건관료들의 형상을 평가하고 리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류의해야 할 문제는 봉건적유교교리에 기초한 이들의 충군사상이다.

이 시기 우리 나라의 고전소설들을 보면 작중인물들이 긍정적측면들을 인정하게 가지고있는 경우에도 거기에는 봉건적충군사상이 안받침되어있으며 봉건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문제어로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소설을 대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상적경향이 어떤 농도와 형태를 띠고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를 정확히 리해하여야 한다.

작품에서 중심주인공 림규를 비롯한 긍정인물계렬에 속하는 봉건관료들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황제보다 명철하고 《어진》 황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들은 새로 즉위한 《어진》 황제를 위하여 충의를 다한다.

림규는 한왕, 진상문 등과 같은 간신들을 반대하고 《어진》 황제에게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신망이 높은 충신이다. 림규의 이러한 관점과 활동은 어디까지나 봉건제도를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주의적관점에서 볼 때 림규를 비롯한 긍정인물계렬에 속하는 관료들의 의롭고 애국적이며 청렴결백한 행동은 봉건유교교리와 충군사상에 기초한것이지만 조정의 권력을 틀어쥐고 전횡을 부리는 간신들과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정사를 망치게 하는 지방관료들, 도덕적으로 타락한자들을 반대하고 선정을 베푸는 《어진》 관료들이 등용될것을 바라던 당대 인민들의 념원과 지향을 체현하고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긍정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신조였던 봉건적유교교리에 바탕을 둔 도덕품행과 충군사상은 사회력사적 및 작가의 세계관상 제한성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인물계렬에 속하는 봉건관료들의 성격적높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당시로서는 어떤 긍정적측면이 있었고 오늘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는 어떤 제한성과 부족점이 있는가를 똑바로 찾아보아야 한다.

고전소설 《사성기봉》에서는 또한 긍정인물계렬에 속하는 천민과 량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이들이 정신도덕적측면에서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특히 천민계층인물인 시녀 석가월을 인간관계의 중심에 놓고 기본이야기줄거리를 즐기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상 중심주인공의 위치에 석가월이 서있음을 잘 알수 있다.

석가월은 조정의 악질관료인 진상문과 지방관료 리태현의 모략을 짓부시고 정, 연, 화 세 소저를 구원해내며 도인으로 가장하고 간신인 한왕에게 접근하여 그의 음모를 적발함으로써 대원수로 출전한 림규의 신변을 보호할뿐아니라 외래침략자를 물리침에 크게 공헌한다.

그는 자기의 불우한 처지에 순응하지 않으며 황제의 명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자 즉시 그를 거역해나서는 굳세고 뜻이 깊은 녀성이다. 그는 사랑보다 의리를 더 귀중히 여기던 나머지 정소저의 결을 떠나게 되면 가는곳마다 불행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로운 일을 한다.

작품에서 석가월은 단지 의리있는 시녀로서만이 아니다 비천한 처지를 숙명적인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 보기 드문 《녀중호걸》로 그려지고있다.

이것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가혹한 봉건적신분제도의 모순과 불합리를 비판한것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의의있고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한것으로 된다.

석가월의 형상이 가지는 의의는 천민출신의 인물을 대형식의 장편소설에서 중심주인공의 위치에 놓는데 있다.

우리 나라 고전소설작품에서는 춘향이나 심청과 같은 천민출신의 주인공들도 적지 않게 그려지고 있으나 실제상 《사성기봉》과 같은 큰 형식의 장편소설에서 최하층신분을 가진 녀성을 중심주인공의 위치에 세워놓고 그 어느 인물보다 슬기롭고 의리가 있는, 빛나는 형상으로 창조한 작품은 거의 찾아볼수 없다.

작품에서 림규나 정소저를 비롯한 긍정인물계렬의 관료들과 량반부녀들은 석가월을 은인으로 대하며 그의 요구라면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이것은 흑심한 봉건적신분제도가 빚어내는 불합리를 그들자신이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여기에 바로 봉건적신분제도의 구속으로부터 고통받는 인간들을 끝없이 동정하고 녀성들의 인권을 일정하게 옹호한 작가의 진보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있고 우리 나라 중세소설문학의 높이를 보여 주는 시대의 참된 리상적주인공을 창조한 작가의 공적이 있는것이다.

작가는 석가월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사회력사적제약성으로부터 오는 자기의 세계관상 제한성의 흔적을 남기였다.

레컨대 석가월이 정소저나 화소저에게 들이닥친 화를 막기 위해 우매한 봉건관료들의 통략물로 다른 시녀들을 《제공》하는것은 자기의 처지에 모순되는 행동이다. 여기서 우리는 봉건적신분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 작가의 세계관상 제한성을 찾아볼수 있다.

고전소설 《사성기봉》에서는 정, 연, 화 세 소저를 비롯한 긍정인물계렬에 속하는 량반부녀들을 중요한 위치에 놓고 형상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성격적특질은 순박하고 해박하며 절개가 굳고 의지가 강한것이다.

그들은 식견도 높고 정의감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앞에 닥쳐올 화를 미리 알고 스스로 피하기도 하며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러서는 부정에 저항하기도 한다.

파소저가 간신 호유용의 줄개였던 지방관료인 리태현의 그릇된 행위로 생긴 화를 피하여 몸을 숨겼다가 자기의 시녀들이 옥에 갇히게 된후 자신의 깨끗한 행실이 루명을 뒤집어쓰게 된 결정적인 상황에서 선정을 베푸는 암행어사연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죄를 다스리는 চাল원에 떳떳하게 나타나 바른말을 하는 장면은 악질관료들의 더러운 인륜도덕을 단죄하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소설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절개를 굳게 지키는 량반계층부녀들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은 어디까지나 순결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에서 이들은 함께 가정을 이루고서도 서로 시기하거나 모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녀성들끼리 화목을 도모하고 서로 모해하지 않는다면 처첩들간의 부단한 암투로 하여 생겨나는 추악한 분쟁과 범죄행위를 막을수 있다는 작가의 주장을 알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최악의 근원인 봉건적추첩제도와 일부다처제의 불합리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온갖 참상을 녀성들 호상관계의 문제로 풀어 보려고 한 작가의 세계관상 제약성을 찾아볼수 있다.

고전소설 《사성기봉》에서 작가는 부정인물들의 성격형상에 많은 힘을 기울임으로써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당대시기 사회악의 근원을 밝혀 보려고 시도하였다.

부정인물계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권력다툼에 눈이 어둡고 도덕적으로 부화방탕한 악질 관료들의 형상이다.

작가는 호유용, 진상문, 한왕 등의 형상을 통하여 당대 봉건사회의 악질관료들인 간신들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간신들의 성격에서 주되는것은 더러운 정치적아욕이다.

간신들은 자기들의 직권을 악용하여 조정에서 바른말을 하는 관료들인 정현, 연권, 화경운 등을 다 내쫓는다. 그들은 자기의 주위에 아첨군들을 규합하고 황제자리를 전복할 계교까지 꾸민다.

그들이 황제자리를 탐내는것은 조정의 청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거나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모든 권력을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작품에서는 간신들의 형상을 통하여 권력다툼에만 몰두하면서 정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벼슬아치들이야말로 가장 더러운놈들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악질관료들을 제때에 조정에서 내쫓아야 문란한 정사를 바로잡을수 있다는 사상을 내놓고 있다. 하여 온

갖 나쁜짓을 다한다.

그들은 지방관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추악한 행동들을 감싸주는가 하면 지어 불량배들과 짜고 들어 자기의 적수들인 《어진》 관료들을 감쪽같이 죽이려고까지 한다.

악질관료들의 가정륜리도 추악하기 그지없다. 진상문, 한왕 등은 주색에 빠져 도덕적으로 부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한다. 진상문은 권력으로 인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친척도, 친우도 서슴없이 죽이려 하던 나머지 처까지 독살한다.

작가는 이러한 간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악 무도한 당대 봉건통치층의 부패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작품의 부정인물계렬에서 량반계층부녀들과 천민출신의 이러저러한 인물들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정인물계렬에 속하는 량반부녀들의 성격에서 주되는 특질은 교만방자하고 투기심이 많은것이다. 그들의 질투와 모해는 저렬한 리기적타산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자기의 지위를 가정에서 확고히 차지하려는데 있다.

작품은 특히 세 처와 여러명의 첩을 거느린 조정의 재상 러금오의 가정안에서 벌어지는 추잡한 싸움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면서 음흉하고 간악하기 그지없는 량반부녀들의 성격을 진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에서는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남의 리익을 짓밟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날치는 봉건사회 량반부녀들의 악랄성을 폭로하고있으며 자기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하나도 똑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봉건통치배들의 무능력성을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씨나 리씨는 봉건적추첩제도와 일부다처제 등 봉건적가정륜리법도가 낳은 악의 화신들이다.

작가는 봉건적가정륜리의 불합리성에서 그들의 성격적바탕을 찾아보지 않고 부정적인 특질들을 기질적인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종일관 간악한 기질을 강조하고 끝까지 파고드는데 각광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작품을 읽어보면 봉건적륜리법도가 빚어낸 참상을 생생히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봉건 관료들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처첩간의 암투와 모해를 진실하게 그려냈기때문이다.

천민출신의 부정인물가운데는 상전이 주는 물건에 혹하여 사람을 함부로 모해하거나 루명을 씌우는데 가담하는 향운과 같은 시녀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미호애와 같은 자들도 있다.

물건과 돈에 유혹되어 악행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는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계급사회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상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간악하기 그지없는 흉인들의

형상은 누구나 물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인간의 의리도, 초보적인 랑심도 없는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고전소설 《사성기봉》은 당대사회현실을 폭넓게 펼쳐보이면서 다양한 인물군상을 선과 악의 심각한 갈등속에서 개성적인 성격들로 형상한 우수한 작품이다.

고전소설 《사성기봉》은 그가 도달한 예술적형상의 높이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 중세문학의 성과를 과시하는 대표적작품의 하나로 된다.

작품은 림, 화, 정, 연 네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도 그들과 관계되는 방대한 인물들의 사건선들을 조리있게 엮어나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의 작은 사건도 여러 인물군상과의 관계속에서 급속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순식간에 복잡한 사건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련쇄되어 벌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 작품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중 어느 하나도 떼어버릴수 없이 서로 잘 맞물려있다.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건발단을 보면 이를 잘 알수 있다,

전반부의 사건은 림규와 정소저의 약혼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된다.

정소저의 아버지 정현은 림규의 얼굴모습보다도 남자다운 그의 품격과 뛰어난 식견, 속이 깊고 넓은 도량을 가진 성품에 탄복하여 딸의 혼사를 정한다.

그러나 정현의 안해 진부인은 얼굴모습을 중시하다보니 림규를 마음에 없애하며 남편 몰래 자기의 조카인 진상문에게 딸을 시집보내려 한다.

사건은 진상문이 과거에 급제하고 조정에 오른 후 승상인 호유룡의 심복이 되어 터무니없는 구실로 정현을 정보보내는것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진상문은 인차 진부인과 짜고들어 정소저를 강짜로 맞으려 한다. 이런 때 정소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림규와의 혼사를 그르칠수 없다고 생각하던 차 석가월의 도움을 받아 집을 떠나 정처없는 방랑의 길에 오른다...

작품의 후반부의 시작 역시 하나의 적은 사건으로 발단되나 급격히 발전하여가는것으로 특징된다.

정연경이 재상 려금오의 소실인 소씨의 딸 려미주의 음란한 행실에 격분하여 좀 밀친것이 동기로 되어 인차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소씨는 미주의 거짓말을 믿고 선실인 강씨와 그의 딸 회주를 포함하며 루명을 씌워 가장인 려금오에게 고해바친다.

무능력한 려금오는 강씨를 집에서 내쫓으며 소씨는 귀비와 짜고들어 회주를 몰래 죽이려 한다. 사건은 급히 왕궁내로 퍼져간다...

보는바와 같이 사건들은 면밀히 련결되어 빨리 발전하고 동일한 시간에 각이한 사건들이 일어나는것으로 복잡하게 엉켜진다. 이것은 그 많은 인물선들과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줄거리에 맞물려 질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된다.

고전소설 《사성기봉》에서 성격들이 생동하게 그려진것도 이 작품이 거둔 예술적성과의 하나로 된다.

소설에서는 작중인물들의 운명문제와 결부된 사건들을 극적으로 엮어나가면서 주인공들의 성격을 기본이야기줄거리와 이리저리한 계기를 통하여 더욱 부각하고있다.

이 작품에서 사건들이 극적으로 엮여져나간것, 이는 작중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그려낸 기본조건으로도 된다.

사건 그자체가 매개 인간들의 운명문제와 결부된 극을 안고있음으로 하여 이 작품은 커다란 예술적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흥미진진한 견인력으로 사건속에 독자들을 《안내》하게 되는것이다.

소설이 거둔 예술적성과는 특히 이 시기의 다른 고전소설에 비하여 현실적사건들을 정확히 취사선택하여 생활을 비교적 진실하게 그려낸것이다.

같은 시기에 창작된 《옥루몽》을 비롯한 적지 않은 고전소설들이 주로 환상과 예술적과장 등 중세기적량만주의수법에 의거하였다면 《사성기봉》은 이와달리 현실적사건들을 중심에 놓고 인간관계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성격형상의 진실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담보하고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도 다른 고전소설에서처럼 사건의 허두와 전개방식 등이 도식적인 《틀》로 되어있으며 설화체로 사건들이 그려져있다.

작품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또하나의 문제는 사건무대와 인명, 지명이 다른 나라로 주어진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 고전소설창작의 일반적경향 즉 작가가 봉건통치배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국내의 절박한 사회정치적문제와 료리도덕적문제를 제시하려 하였거나 다른 나라를 사건무대로 하여 글을 쓰던 고루한 량반사대부들의 사대주의적영향을 받은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설명할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관계없이 작품에 리조봉건통치계급내부의 문제를 취급하고있음은 론의할바 없이 명백한 일이다.

참으로 고전소설 《사성기봉》은 우리 나라 중세기소설문학의 높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작품의 하나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것이며 그의 섬세한 구성조직과 개성화된 성격들의 형상수법 등은 앞으로 깊이있게 연구되어야 할것이다.

선로공이 가는 길

박 함 집

덜고가는 자옥 드림없어
눈비도 가랑잎도 묻지 못한다
산에 들에 무쇠발 꽃으며
고압선과 함께 가는 우리의 길

가는 길 그 누가 보지 않아도
구리줄 오리오리 팽팽히 당기며는
줄따라 울려오는 가야금소리
줄따라 흘러가는 선로공의 노래

달리는 저 광차의 로반밀에는
우리가 땀흘려 지나간 오솔길이 있다
조명등 화려한 무대결연
작업복 말리우던 모닥불자리도 있으리

수많은 건설장 기초공들과 헤어지며
우리는 쉽없이 앞서만 가는 사람
벼랑이면 물러서랴 강들이면 에돌라
손에손에 번개를 갈라쥐고
산악을 넘나드는 수리개

평탄한 큰길을 지척에 두고

우리 왜 이 길 가는가
아, 심장을 두드리는 붉은 피처럼
가슴에 끓는 어머니당의 분부 있어...

선로공이 새벽길을 걸어야
간석지 천막속에 등불이 밝고
지심깊이 정날을 박으며
새 탄광이 문을 여나니

그때문에
우리의 길엔 굽인돌이가 없다
당을 따르는 깨끗한 마음처럼
우리는 가도 끝추만 간다
조국땅 어디서나
송전선은 끝추 뻗어있듯이

그때문에
수령님과 당의 사랑 고압선에 실어
남먼저 나누어주는 이 길에
우리의 긍지높은 걸음새가 있고
선로공의 값높은 삶이 있는것이여라

통일이 되면 외 1 편

신 병 강

강화도가 코앞에 바라보이는
그 옛날 해창포 나루가에서
동행하는 친구는 말하네
저 풍성한 바다를 옆에 끼고
생선 한마리 낚을수 없으니
원통하고 분하다고...
그러나 통일이 되면
여기는 동해어장 못지않는
큰 어장이 될거라고

동창을 지나 봉동의 끊어진 철길우에서
그 옛날 역사의 돌계단을 어루만지며
그는 또 버릇처럼 말하네
미국놈, 미국놈이 원쑤라고...

그러나 통일이 되면 《평양-서울》직행열차
여기를 통과하며 다시 기적소리 울릴게라고

물어보자 친구여!
분계선 기슭을 거니는동안
그대는 그 몇번이나 그 마을
저도 모르게 외웠던가
통일이 되면! ...
통일이 되면! ...

유정히 푸르른 림진강 모모리섬
백학이 나는 신흥리 고개우에서
그대는 감탄의 목소리 올렸지
-야! 경치가 좋구나!

통일이 되어 저 술집에 휴양각 짓는다면
정말이지 얼마나 좋겠는가고...

아, 가는곳 들리는 고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르짖는 통일, 통일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레사로운 날 때없이
초행길 길손들의 가슴을 달구느냐
절로 터진 그 말이 목메어 목메어
절로 또 눈물짓는 친구여!

분계선기슭에 서서 남녘땅 바라보니
그립다, 그날이, 더욱 그날이...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통일의 단상위에 함께 높이 오르실제
환호의 손길 들어 눈물짓는 그 광장
없었던 혈육을 다시 만나 부둥켜안고
기뻐서, 기뻐서 흐느끼는 그 모습이...

아, 민족분렬의 40년!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어날
이제 더는 참을수 없는 분렬의 고통을 두고
가슴이 타고 피가 타는 겨레앞에
시커먼 장벽이여! 물러서라

네 감히 무엇을 막아섰느냐

어서 듣고싶다
너 분렬의 장벽을 터치며
림진강 철교를 통과하는 긴-기적소리
저 장단의 녹슨 송전선 첩탈에
웅-웅-다시 흐를 전류의 흐름소리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아, 낮에도 밤에도 그 언제나
강반에 메아리치는 저 노래-
통일의 이름과 떨어져 살수 없는
5천만 겨레가
분렬의 화근-원썬미제를 향하여
여기서 울분을 터치는가
바라보니 쇠!- 쇠!-
강화만 저 멀리 파도소리 높구나!

흙냄새

냄새가 좋구나 좋아!

봄풀향기 싱그러운 구수한 흙냄새
《엎드렷 전투준비!》 구령소리에
내 잠시 엎드린 땅에서
나는 네 흙냄새에 취하노라

귀중하여라, 이 흙냄새-
투사들 정히 한줌 배낭속에 넣고
장장천리 행군길에 맡아보았을 흙냄새
내 아버지 분여지 네 흙을 불에 비비며
두손 모아 맡아보고 또 보던 그 흙냄새...

심호흡으로 깊숙이 들이키노니
냄새가 아니라 달디단 향기로구나
순간 찡- 폐부를 찌르는 그 무엇?

아,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침략의 화약내 풍기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한줌 흙으로 향기를 더하리
그 어떤 원썬도 감히 흐리울수 없는
구수한 너의 향기들 지켜
나는 영원한 조국의 병사다!